

제4부 사료해제집

사에키 고지·스카와 히데노리·구와노 에이치 편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사에키 고지(佐伯弘次)·스카와 히데노리(須川英徳)·구와노 에이치(桑野榮治) 編

| | |
|-------|-------------|
| 해 설 | Ⅱ. 文祿・慶長の 役 |
| 범 례 | Ⅲ. 근세 |
| I. 중세 | |

해 설

이 사료해제집은 제2분과회 本報告書の 付編으로 작성한 것이다. 중세(11세기 후반~16세기 말)·근세(16세기 말~19세기 후반)의 일본에서 작성되었고, 또한 근대 이후 일본에서 간행된 日韓關係史(日麗關係史・日朝關係史)에 관한 사료 중에서 주요한 사료의 해제집이다. 근대 이후에 편찬·간행된 중근세 日韓關係史에 관한 사료집의 해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 해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 수록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사료에 관한 해제집 작성을 제안한다”는 제2분과회 일본측 간사인 스카와 히데노리(須川英徳)씨의 발언이었다(2007년 8월 25일 제2분과회 합동회의, 제주도에서). 그 제안은 2007년 10월 13일 개최된 제2분과회 합동회의(福岡市)에서 승인되었고, 일본측의 작성 작업은 주로 사에키가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작업으로는 [中世], [文祿・慶長の 役], [近世]의 3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 보조자에게 史料 추출과 원고의 초안 작성을 의뢰했다. 이때 각종 데이터베이스·사전류·연구서 등을 적절히 참조했다.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보조자는 아래와 같다(소속과 직책은 작업 당시의 직책).

荒木和憲(日本學術振興會 特別研究員)

古賀愼也(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學府 修士課程)

守友 隆(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學府 博士後期課程)

戶板將典(九州大學大學院 人文科學府 修士課程)

작성한 원고 초안을 기초로 사에키가 연구보조자와 함께 체재와 내용을 통일하는 작업을 행했다. 여기에 해설과 범례를 추가하고, 일본측 위원 전원의 교열을 거친 뒤에 이 해제집이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중근세에 걸친 대형 총서·사료집의 해제를 [總記로 작성했는데, 그 속에는 각 時期部에서 개별적으로 채록한 것이 많았고, 또 분량적인 문제도 있어서 [總記 부분을 할애했다. [總記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있던 총서·사료집은 《九州史料叢書》, 《群書類從》, 《國史叢書》, 《國史大系》, 《古事類苑》, 《史料纂集》, 《史籍集覽》, 《史料大成》, 《新註皇學叢書》, 《續群書類從》, 《續續群書類從》, 《大日本古記錄》, 《大日本古文書》, 《大日本史料》, 《大日本佛教全書》, 《圖書寮叢刊》 등이다(히라가나 순). 특히 《大日本史料》에는 각 편에 많은 日麗·日朝關係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1. 중세 사료의 특색

中世部에는 日麗關係, 중세 후기(조선 전기)의 日朝關係에 관한 사료 및 사료집을 수록했다. 일본의 중세사료를 대표하는 것은 古文書와 古記錄(日記)이다. 그밖에 편찬된 史書와 著作도 많다. 古文書로는 《金澤文庫古文書》, 《鎌倉遺文》, 《教王護國寺文書》, 《長門二ノ宮忌宮神社文書》, 《平安遺文》, 《宗像神社文書》 등이 있으나 양적으로는 많지 않다. 이것은 중세의 日麗·日朝關係 문서가 우연한 요인으로 작성되었으며, 家文書 속에 전래됨으로써 정리된 關係文書의 전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古記錄은 《蔭涼軒日錄》 이하 다수의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 사료는 京都와 그 주변에 사는 귀족·승려·神官 등의 日記이며, 高麗使節·朝鮮使節의 來日과 몽고습래에 관한 記事를 많이 포함한다. 기록 주체(記主)들의 外國·外國人과 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말해 주고 있다.

편찬된 史書 등으로는 《吾妻鏡》, 《異稱日本傳》, 《鎌倉年代記》, 《鷄林拾葉》,

《皇代曆》, 《五代帝王物語》 등 많은 사료가 있다. 다만 그 사료적 성격은 다양하며, 사료적 가치도 각양각색이다. 1차 사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할 때는 주의를 요하는 것도 많다.

그밖에도 《京都帝國大學國史研究室藏史料集》, 《元寇史料集》를 비롯한 개별 사료집도 많이 수록했다. 그 가운데 《中國·朝鮮史籍의 日本史料集成》이 日麗·日朝關係 사료집으로서 중요하며, 《伏敵編》은 몽고침략 관계 사료의 古典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들 사료집 중에서 《相生市史》 제8권, 《上對馬町誌》 사료편, 《太宰府市史》 고대자료편·중세자료편, 《豊玉町 고문서(중세문서)》, 《長崎縣史》 사료편 제1, 《平戸市史》 역사사료편 I, 《廣島縣史》 고대중세자료편Ⅲ, 《山口縣史》 사료편 중세 1~4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편찬·간행한 地方史誌이다. 이와 같은 地方史誌의 간행은 일본에 있어서 사료집 간행의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2. 文祿·慶長の 役 관계 사료의 특색

文祿·慶長の 役に 관한 사료·사료집의 중심은 古文書·古記錄·編纂史料 세 종류가 있다. 古文書로는 <久留島文書>, 《黑田家文書》, <田尻家文書>, <鶴田家文書>, <龍造寺文書>, <佐竹文書>, 《淺野家文書》, 《伊達家文書》, 《相良家文書》, 《毛利家文書》, 《小早川家文書》, 《上杉家文書》, 《島津家文書》, 《中川家文書》, 《歷代古案》 등이 있으며, 중세와 비교하여 격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문서가 증가한 까닭도 있지만, 文祿·慶長の 役に 참가했던 大名·家臣의 家文書가 다수 남아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대부분이 武家文書이다.

古記錄으로서 《義演准后日記》, 《北野社家日記》와 같은 중앙귀족·승려·社家에 의한 전통적인 日記도 많지만, 이에 더하여 《家忠日記》, <大和田重清日記>, <高麗日記>와 같은 武家日記가 다수 등장하는 것도 큰 특색이다. 분고노쿠니(豊後國) 우스키(臼杵) 安養寺의 승려 慶念의 <朝鮮日日記>는 慶長の 役に 종군했던 지방 승려의 일기로서 진기한 사료이다.

編纂史料도 많은데, 《太閤記》, 《大かうさまくんきのうち》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주변 인물이 기록한 것이다. 《群書類從》, 《續群書類從》에는 文祿·慶長の 役に 종군했던 무사가 후세에 남긴 몇몇 종류의 ‘覺書’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覺書는 일본

각지에서 다수가 작성되었지만, 대개는 아직도 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프로이스 日本史》는 집필자가 기독교 선교사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역사서가 되어 있다.

3. 근세 사료의 특색

근세에 들어서 幕藩體制가 성립되고, 藩體制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각 번에서 많은 문서·기록류를 작성하고 보존했다. 또 농촌문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문서도 방대하게 작성되었다. ‘기록의 시대’라고도 하는 일본의 근세 사료는 그 양의 방대함 때문에 대부분이 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近世部에 수록한 사료는 武家文書와 地方文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세에 있어서는 《異國日記》, 《華夷變態》, <外蕃通書>(《近藤正齋全集》 第1), 《朝鮮通交大紀》, 《通交一覽》 등 외교사료집이 다수 편찬되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외교사 연구가 진전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과 병행하여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가메이 쇼요(龜井昭陽)·구사바 하이센(草場佩川)·곤도 세이사이(近藤正齋) 등의 학자·정치가·외교관의 관계 사료집도 많이 간행되었다. 기타 어학·미술·가부키(歌舞伎)·緣起·農書 등 다방면의 사료가 간행되었으며, 근세에 있어서 사료적인 확산을 엿볼 수 있다.

간행된 사료를 내용적으로 보면 朝鮮通信使와 관련된 사료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大系朝鮮通信使 善隣과 友好의 記錄》, 《朝鮮通信使繪圖集成》이 대표적인 사료인데, 明石藩·岩國藩·岡山藩·豊浦藩·廣島藩·福岡藩 등의 藩政史料, 沿道の 家文書에 남아 있는 관계 사료가 간행되었다. 그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간행한 地方史誌라는 점도 큰 특색이다. 朝鮮通信使 관계 사료에 비하면 기타의 외교관계 사료와 무역관계 사료의 간행은 적다.

對馬藩宗家文書는 근세 日朝關係史의 기본 사료이다. 방대한 양의 宗家文書 중에서 <朝鮮通信使記錄>, <江戶藩邸日記>,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錄>의 3종류가 마이크로 필름판으로 간행된 것은 근세 日朝關係史 연구에 있어서 특필할 만한 일이다(佐伯弘次).

[범례]

1. 일본에서 작성·저술·편찬된 日麗關係史·日朝關係史에 관한 사료 중에서 활자와 影印·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公刊된 사료와 사료집을 수록했다.

2. 시대적으로는 일본의 경우 헤이안(平安)시대부터 근세 말, 한국의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사료를 수록했다.

3. <Ⅰ. 중세>, <Ⅱ. 文祿·慶長の 役>, <Ⅲ. 근세>의 3部로 구성했다. 중세는 헤이안시대~戰國時代(고려시대~조선 전기), 文祿·慶長の 役은 文祿·慶長の 役(임진·정유왜란) 시기, 근세는 에도시대(조선 후기)에 해당한다. 사료 중에는 반드시 이러한 시대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료와 사료집도 있지만, 가장 관계가 깊은 시대 부분에 적절히 배치했다.

각각의 시대 속에서는 히라가나 순서로 사료를 배열했다.

4. 冒頭に 사료와 사료집의 제목을 적었다. 刊本이 된 것은 ≪ ≫로, 개별 사료는 < >로 표시했다.

[1.내용] 항목에는 사료와 사료집의 내용에 관한 기록, 특히 日麗關係·日朝關係에 관한 사료의 개요에 대하여 적었다.

[2.비고] 항목에는 편집·간행·간행년 데이터를 적었다. 아울러서 복수의 刊本이 있는 경우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었다.

I. 중세

《相生市史》 第八卷 上·下

1. 내용

중세 東寺領 하리마국(播磨國) 야노노쇼(矢野莊)에 관한 편년사료집. 東寺百合文書와 教王護國寺文書 등 다수의 사료를 수록했다. 永和 원년(1375)·동 5년·康曆 2년(1380) 등의 고려사절이 일본에 왔을 때 하리마슈고(播磨守護) 아카마쓰(赤松)씨가 야노노쇼(矢野莊)에 대하여 送夫(인부)·傳馬 따위를 부과했던 기록이 있다.

2. 비고

相生市史編纂委員會 편찬. 相生市 간행. 1992~95년.

《吾妻鏡》

1. 내용

가마쿠라(鎌倉)막부가 편찬한 역사서. 治承 4년(1180)부터 文永 3년(1266)까지 역대 쇼군(將軍)의 실록을 편년체로 서술한 것. 前半部(源氏將軍期)를 文永 연간(1264~75)의 성립, 後半部(攝家將軍·皇族將軍期)를 正應·嘉元 연간(1288~1306)의 성립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이 책은 편찬사료로서의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가마쿠라 시대의 일본과 고려의 교류를 보여주는 기사도 많으며, 嘉祿 3년(1227)의 高麗國全羅州道按察使牒寫도 수록했다.

2. 비고

① 高桑駒吉·依田喜一郎·成川睿次郎 교정 《吾妻鏡》(大日本圖書 1896) 전10책.

- ② 《續國史大系》 제4-5책·吾妻鏡(經濟雜誌社 1903).
- ③ 國書刊行會 편찬·간행 《吾妻鏡》 전3책(1915).
- ④ 與謝野寬 편찬 校訂 《吾妻鏡》(日本古典全集·第1回, 日本古典全集刊行會 1926).
- ⑤ 國書刊行會 편찬 《吾妻鏡》 전2책(大觀堂 1943).
- ⑥ 黑板勝美·國史大系編修會 편찬 《新訂增補國史大系》 제32-33책·吾妻鏡·전2책(吉川弘文館 1964~1965, 보급판은 1968~1976·전4책).
- ⑦ 《振り仮名つき吾妻鏡》(寬永版影印, 汲古書院 1976).

원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北條本·吉川本·島津本이 양호한 寫本이다. 이 중에서 北條本을 底本으로 한 刊本이 ②·⑥(⑥은 吉川本·島津本과 校合), 吉川本을 底本으로 한 刊本이 ③·⑤이다. ①의 底本은 伊勢貞丈水谷本으로 寬永本을 교정한 것, ④·⑦의 底本은 寬永本이다.

〈家康公命和睦朝鮮對馬送使約條相定次第 并對馬私記〉

1. 내용

근세 對馬藩의 外交僧 規伯 玄方이 藩主 宗義眞에게 헌상한 두루마리(卷物) 5本 중의 1本이다.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사본의 影印版. 16세기 전반에 있어서 對馬 宗氏의 僞使 과건 체제를 보여준다.

2. 비고

田代和生·李薰 감수 《朝鮮通信使記錄》 別冊下(對馬宗家文書 마이크로필름판 第I期, ゆまに書房, 2000).

《異稱日本傳》

1. 내용

중국과 조선의 서적에서 일본관계 기사를 초록하고, 의문과 비판을 덧붙인 책. 松下秀明(호는 見林·西峯) 編. 元祿 원년(1688) 성립, 동 6년(1693) 간행.

上·中·下 3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下卷에 조선 서적 15종(《海東諸國紀》 등)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倭寇와 히데요시(秀吉)의 조선출병과 관계된 기사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2. 비교

- ① 《改訂史籍集覽》 제20책(近藤活版所 1901).
- ② 《新註皇學叢書》 제11권(廣文庫刊行會 1927).
- ③ 《異稱日本傳》(國書會 1975, 影印本).

《蔭涼軒日錄》

1. 내용

무로마치(室町)·戰國期の 相國寺 鹿苑院 蔭涼軒主 季瓊眞藥(1401~1469) 및 龜泉集證(1424~1493)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永享 7년(1435)부터 明應 2년(1493)에 이른다. 相國寺 慈照院에 舊藏 중이던 원본은 關東大震災(1923년)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소실됐지만 그 일부가 東京大學史料編纂所에 소장되어 있다. 蔭涼軒主는 鹿苑僧錄의 보좌역이었는데, 季瓊 眞藥이 막부의 중신 아카마쓰(赤松)씨의 出自였기 때문에 무로마치막부의 정치·외교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永享 11년(1439)부터 明應 2년(1493)에 걸쳐서 무로마치막부의 對朝鮮外交와 관련된 기사를 풍부하게 수록했다.

2. 비교

- ① 佛書刊行會 편찬·간행 《大日本佛教全書》 日記部·제133~137책·蔭涼軒日錄(1932~1937년) 전5책.
- ② 史籍刊行會 편찬·간행 《蔭涼軒日錄》(1953~54) 전5책.
- ③ 鈴木學術財團 편찬·간행 《大日本佛教全書》 日記部·제75-78책·蔭涼軒日錄(1972년) 전4책.
- ④ 竹內理三 편찬 《增補續史料大成》(臨川書店 1978) 전5책.
- ①·③은 慈照院 舊藏 원본을 底本으로 하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 寫本으로 교

정한 것이며, ②는 ①의 복제판, ④는 ②의 복제판이다(②·④는 史料編纂所 소장 원본에 의하여 逸文을 수록함).

《右武衛殿朝鮮渡海之雜稿》

1. 내용

승려 天荊이 기록한 朝鮮渡航日記. 天荊은 天正 5년(1577) 10월에 兵庫를 출발, 赤間關·博多·壹岐·對馬를 경유하여 이듬해 6년 11월 부산으로 건너갔다. 이듬해 7년 정월 부산에서 한성으로 출발, 한성에서 국왕 宣祖와 대면한 후 釜山으로 돌아왔고, 부산에 체재 중이던 동년 7월 12일자로 일기가 끝난다. 天荊은 右武衛殿의 사절로서 조선으로 건너갔다는 체재를 취하지만, 이 右武衛殿은 對馬 宗氏가 꾸민 가공의 인물·九州探題 시 부카와 요시아키(澁川義明)이다. 이 사료는 중세 말 宗氏가 조선무역을 독점하던 시대에 있어서 외교·무역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료이다.

2. 비교

珍書同好會叢書. 珍書同好會 간행. 1915년. 원본은 尊經閣文庫 소장.

《岡屋關白記》

1. 내용

가마쿠라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가네쓰네(藤原兼經, 1210~1259, 極官關白, 近衛家)의 일기. 기사는 貞應 원년(1222)부터 建長 3년(1251)에 이른다. 내용은 公家社會의 전통 행사에 관한 기사가 많지만, 安貞 원년(1227)에 고려가 보낸 외교문서를 둘러싼 기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2. 비교

① 陽明文庫 편찬 《岡屋關白記·深心院關白記·後知足院關白記》(陽明叢書6·記錄文書

編 제2집, 思文閣出版 1984) 전1책.

②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岡屋關白記(岩波書店 1988) 전1책.

《お湯殿の上の日記》

1. 내용

궁중의 오유도노(御湯殿) 가미노마(上の間, 윗자리에 해당하는 방)에서 天皇 近侍의 女官이 기록한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 말기에 이른다. 京都御所 東山文庫 소장 원본(室町・戰國期の 원본은 일부만 존재)과 사본 외에 高松宮家本 등의 사본이 있다. 延徳 2년(1490)에 조정이 무로마치막부에 <高麗勸合>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2. 비교

① 《續群書類從》(續群書類從刊行會 1956~1957) 전11책.

《臥雲日件錄拔尤》

1. 내용

무로마치시대의 禪僧 瑞溪 周鳳(1391~1473, 別号 臥雲)의 일기 《臥雲日件錄》의 초록. 惟高妙安 편찬. 《臥雲日件錄》 전74책은 文安 3년(1446)부터 文明 5년(1473)까지의 기사를 수록했지만 모두 散逸되었고, 현재는 《拔尤》 1책만이 전한다. 長祿 원년(1457)부터 동 3년(1459)에 걸쳐서 무로마치막부의 대조선 외교와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다.

2. 비교

① 近藤瓶城 편찬 《續史籍集覽》 제3책(近藤活版社 1930).

②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臥雲日件錄拔尤(岩波書店 1961) 전1책.

《金澤文庫古文書》

1. 내용

총 19册(색인·부록 있음). 가마쿠라시대의 金澤流 北條氏의 古文書群을 중심으로 활자화한 것. 제3책(僧侶書狀編下)에 <高麗本>의 일본 유입을 시사하는 고문서, 제9책(佛事編下)에는 高麗國王書(1292년) 및 <蒙古信使記錄>을 수록했다. 그리고 제10책(識語編1)에 高麗版 經典類를 수록했다.

2. 비고

金澤文庫 편찬·간행. 1952~1964년.

《鎌倉遺文》

1. 내용

가마쿠라시대(중세 전기)의 고문서를 망라해서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編年史料集이며, 日韓關係 사료(고려)도 많이 포함한다. 수록 범위는 文治 원년(1185)부터 建武 원년(1334)에 이른다. 古文書編 42책·補遺 4책·索引編 5책. 東京堂出版에서 全文 데이터베이스가 간행되었으며, 中世海事史料研究會編 《鎌倉時代水界史料目錄》(東京堂出版 2003)도 유용하다.

2. 비고

竹內理三 편찬. 東京堂出版 간행. 1974~1995년.

《鎌倉年代記》(北條九代記)

1. 내용

가마쿠라시대를 다룬 연대기. 편저자는 가마쿠라막부 관계자라고 한다. 元弘 원년

(1331) 무렵에 성립(성립 후의 追記·裏書 있음). 현존하는 기사는 壽永 2년(1183)부터 正慶 원년(1332)에 이른다. 천황·연호·攝關·장군·執權連署·六波羅探題·問注所·政所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京都大學부속도서관 소장 壬生家 舊藏 원본이 있으며, <北條九代記>라는 제목의 사본이 유포되어 있다. 安貞 원년(1228)부터 正安 3년(1301)에 걸쳐서 일본 조정의 대고려 외교와 몽고침략과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史籍集覽》 北條九代記.
- ② 《續群書類從》 제29책 上.
- ③ 《改訂史籍集覽》 제5책.
- ④ 《增補續史料大成》 제51책·鎌倉年代記·武家年代記·鎌倉大日記(臨川書店 1979).

《上對馬町誌》 史料編

1. 내용

對馬市 上對馬町에 소재하는 古文書·經典을 수록하고 연표를 부기했다. 중세 사료로는 大浦家文書·洲河家文書·比田勝家文書·平山家文書 등 24家の 家文書を 수록했다. 《海東諸國紀》에 등장하는 朝鮮通交者·大浦宗氏(河內大浦氏)의 家文書 등 日朝關係史料도 많다. 그밖에 琴長松寺가 소장한 高麗版大般若經(初雕本)의 데이터와 사진을 수록했다.

2. 비교

上對馬町誌編纂委員會 편찬. 上對馬町 간행. 2004년.

《勘仲記》

1. 내용

가마쿠라시대의 公卿 후지와라 가네나카(藤原兼仲, 1244~1308, 勘解由小路家·廣橋家,

極官權中納言)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文永 11년(1274)부터 正安 2년(1300)에 이른다. 財團法人東洋文庫가 소장한 원본 외에 많은 사본이 있다. 文永 11년(1274)부터 弘安 4년(1281)에 걸쳐서 ‘文永·弘安의 役’에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였다. 또한 장군 고레야스 신노오(惟康親王)의 京都 송환과 히사아키라 신노오(久明親王)의 장군 宣下 및 關東下向, 兩統迭立 등의 기사도 수록하였고, 가마쿠라 후기의 정치사를 언급할 때의 1급 사료이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 《史料通覽》(日本史籍保存會 1917) 2책.
- ②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교정 《史料大成》 26~27 勘仲記 28 勘仲記·妙槐記(内外書籍 1935~36) 3책.
- ③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34~35 勘仲記(臨川書店 1965) 2책.

《看聞日記》

1. 내용

무로마치시대의 後崇光院 伏見宮 사다후사 신노오(貞成親王, 1372~1456)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應永 23년(1416)부터 文安 5년(1448)에 이른다(別記 있음). 다만 일부 빠진 곳이 있다. 應永 26년(1419)부터 嘉吉 3년(1443)에 걸쳐 ‘應永의 外寇’와 朝鮮通信使의 來日 등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였다. 巷說 등의 傳聞記事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및 예능사 연구에서 귀중한 사료이다.

2. 비교

- ① 續群書類從完成會 편찬·간행 《續群書類從》 補遺2(1958~1959년) 진2책.
- ② 宮内廳書陵部 편찬·간행 《圖書寮叢刊》 看聞日記(2002년~) 既刊 4책.

《吉續記》

1. 내용

가마쿠라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쓰네히사(藤原經長, 1239~1309, 吉田家, 極官權大納言)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文永 4년(1267)부터 乾元 원년(1302)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甘露寺親長(經長の五代孫) 書寫本の 계통을 이은 사본이 다수 존재한다. 朝儀에 관한 기사가 많으며, 또한 兩統迭立에 관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文永 5년(1268)부터 正安 3년(1301)에 걸쳐서 ‘文永·弘安의 役’ 관련 기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文永 8년(1271) 고려의 三別抄가 보낸 외교문서를 둘러싼 기사가 주목된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교정 《史料大成》 23吉記·吉續記(内外書籍 1935).
- ② 增補史料大成간행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30吉記·吉續記(臨川書店 1965).

《吉記》

1. 내용

헤이안·가마쿠라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쓰네히사(藤原經房, 1143~1200, 吉田家, 極官權大納言)의 일기. 仁安 원년(1166)부터 建久 4년(1193)에 이르는 일기이지만, 현존하는 기사는 仁安 원년(1166)부터 建久 2년(1191)까지이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쓰네히사의 손자 資經의 抄寫本 계통을 이은 사본 외에 많은 사본이 있다. 내용은 朝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治承 5년(1181)의 ‘新羅’ 침공 소문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교정 《史料大成》 22·23吉記(内外書籍, 1935년).
- ②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29吉記 30吉記·吉續記(臨川書店, 1965년).
- ③ 高橋秀樹 편찬 《吉記》 本文編 1~3(日本史料叢刊 3-5, 和泉書院 2002~).

- ①·②의 底本은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소장 舊紅葉山文庫本이며, ③은 각종 사본 중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되는 각 부분을 골라 定本으로 하였다.

《教王護國寺文書》

1. 내용

전10책. 佛事·法會에 관한 사항과 사원 경계를 지탱했던 많은 莊園文書を 수록하였다. 제2책(南北朝時代·室町時代 전기)에는 永和 4년(1378) 고려 사절이 일본에 올 때 東寺領 矢野莊에 <高麗人上洛人夫>가 부과되었음을 시사하는 고문서를 수록하였다.

2. 비교

赤松俊秀 편찬. 平樂寺書店 간행. 1960~1971년.

《京都帝國大學國史研究室藏史料集》

1. 내용

사료(圖版) 1~55와 함께 사료 해설을 수록하였다. 사료에는 毛利輝元祈願文, 正傳寺 宏覺禪師蒙古降服祈願開白文과 朝鮮國王李昞書翰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비교

- ① 《京都帝國大學國史研究室藏史料集》(京都帝國大學文學部國史研究室 편찬·간행 1928).
② 《京都帝國大學國史研究室藏史料集》(京都帝國大學文學部國史研究室編, 한정 제2판, 星野書店 1933).
③ 《京都帝國大學國史研究室藏史料集》(京都帝國大學文學部國史研究室編, 한정 제3판, 星野書店 1935).

《玉葉》

1. 내용

헤이안·가마쿠라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가네자네(藤原兼實, 1149~1207, 九條家, 極官攝政·關白·太政大臣)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長寛 2년(1164)부터 建仁 3년(1203)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다수의 사본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宮内廳書陵部가 소장한 九條家本이 상태가 좋다. 公家·武家 쌍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전하고 있으며, 平氏政權~鎌倉 초기에 걸친 정치·문화사의 기본사료이다. 文治 2년(1186)에 對馬守 후지와라노 쓰네미쓰(藤原經光)가 망명지인 고려에서 귀국한 사실을 시사하는 기사가 있다.

2. 비고

- ① 山田安榮 외 校訂 《玉葉》(東京活版株式會社 1906).
 - ② 國書刊行會 편찬·간행 《玉葉》(國書刊行會 1906~07) 3책.
 - ③ 栗田寛校閱·黑板勝美 校正 《玉葉·九條兼實公記》(哲學書院 1908) 2책.
 - ④ 國書刊行會 편찬 《玉葉》(名著刊行會 1971) 3책. ②의 復刻版.
 - ⑤ 宮内廳書陵部 편찬·간행 《九條家本玉葉》(1994~) 11책.
- ②·⑤·⑥은 九條家本(鎌倉期の 淸書本), ③·④의 底本은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 舊紅葉山文庫本이다.

《愚管記》(後深心院關白記)

1. 내용

南北朝期の 公卿 후지와라노 미치쓰구(藤原道嗣, 1332~1387, 近衛家, 極官關白)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永和 원년(1352)부터 永德 3년(1383)에 이른다. 貞治 6년(1367)부터 永和 2년(1376)까지 고려사절(金龍·羅興儒)을 둘러싼 조정 내부의 논의 경과가 기록되어 있다.

2. 비교

- ① 坪井九馬三·日下寛 校訂 《愚管記》(文科大學史料叢書, 吉川半七 1906, 和裝本, 影印本) 전12책.
- ② 竹內理三 편찬 《續史料大成》 제1~4책·愚管記(臨川書店 1967) 전4책, ①의 復刻版.
- ③ 竹內理三 편찬 《增補續史料大成》 제1~4책·愚管記(臨川書店 1978) 전4책.
- ④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後深心院關白記(1999~) 既刊 3책.

《鷄林拾葉》

1. 내용

塙保己一 편찬. 文政 2년(1819) 간행. 전8권. 고대·중세의 고문서·고기록·역사서 등에서 한반도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기록을 뽑아낸 것이며, 天正 18년(1590)의 朝鮮通信使來日까지를 수록하였다. 지금은 이용가치가 낮지만 다른 刊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료도 보인다.

2. 비교

- ① 塙保己一 편찬 《鷄林拾葉》 전3책(甫喜山景雄 1883, 和裝本).

《元寇史料集》

1. 내용

元寇에 관한 사료를 複製版으로 간행한 사료집이다. 軸裝本(一)·(二)의 2권. 번역문과 해설을 게재한 《元寇史料集解説》 1책을 첨부하였다. (一)에는 正傳寺가 소장한 <宏覺禪師祈願開白文> 2통과 石清水八幡宮文書 <八幡宮崎宮御神寶記> 紙背文書を 수록하였다. 후자는 建治 2년(1276)에 고려를 공격하려고 했던 異國征伐에 관한 사료이다. (二)에는 京都大學이 소장한 <壬生官務家日記抄>를 수록하였다. 이것은 弘安 4년(1281) 小

槻顯衡의 일기이며, 弘安의役に 관한 귀중한 동시대 사료이다.

2. 비고

國民精神文化研究所 편찬·간행. 1935년.

《建內記》

1. 내용

무로마치시대의 公卿 마데노코지 도키후사(万里小路時房, 1394~1457, 極官內大臣)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應永 21년(1414)부터 康正 원년(1455)에 이른다. 도키후사 자신이 南都傳奏를 역임했기 때문에 무로마치막부의 동정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무로마치 전기~중기에 걸친 정치사, 사회경제사에 있어서 기본 사료의 하나이다. 永享 12년(1440) 및 嘉吉 3년(1443)의 朝鮮使節來日, 文安 4년(1447)의 日本國王使 파견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2. 비고

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建內記(岩波書店 1963~1986) 전10책.

《皇代曆》

1. 내용

年代記의 일종. 神代부터 後土御門까지 각 천황(記事는 文明 9년(1477)까지)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文永 4년(1267)부터 弘安 4년(1281)에 걸쳐서 몽고 습래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였다. 刊本에는 《歷代皇紀》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지만, 이것은 도쿠가와 미쓰구니(徳川光圀)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2. 비교

- ① <校本歷代皇紀>(近藤瓶城 《改定史籍集覽》(近藤活版所 1901) 제1책 제1).
- ② <校本歷代皇紀>(近藤瓶城 《改定史籍集覽》(臨川書店 1997, 復刻版 제1).

《後愚昧記》

1. 내용

南北朝 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긴타다(藤原公忠, 1324~1383, 三條家, 極官內大臣)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康安 원년(1361)부터 永德 3년(1383)에 이른다. 貞治 6년(1367)의 고려 사절(金龍)을 둘러싼 조정 내부의 논의 경과를 기록하고 있다.

2. 비교

- 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後愚昧記(岩波書店 1980~92) 전4책.

《五代帝王物語》

1. 내용

가마쿠라 후기를 다룬 역사서(편년체). 가나(仮名)로 기록. 編者 불명. 성립 시기는 13세기 말~14세기 초. 현존하는 기사는 承久 3년(1221)부터 文永 9년(1272)에 이른다. 내용은 公家社會의 관습에 관한 것이 많다.

2. 비교

- ① 《群書類從》 제2책(經濟雜誌社 1893, 再版 1898).
- ② 《群書類從》 제3책(續群書類從刊行會, 1933, 訂正3版 1960).
- ③ 弓削繁 《京都大學附屬圖書館藏 五代帝王物語》(和泉書院 1989).
- ④ 弓削繁 《六代勝事記・五代帝王物語》(三弥井書店 2000).

①·②의 底本은 村井古巖 소장본, ③은 近衛家本の 影印本, ④의 底本은 近衛家本이다.

《權記》

1. 내용

헤이안 시기의 公卿 후지와라노 유키나리(藤原行成, 972~1027, 極官權大納言)의 일기. 正曆 2년(991)부터 寬弘 8년(1011)까지의 기사가 잔존한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宮内廳書陵部이 소장한 伏見宮家本을 비롯하여 많은 寫本이 있다. 헤이안 중기의 정치·의식·사회·문화를 아는 데 귀중한 사료이다. 長德 3년(997)부터 長保 6년(寬弘 원년, 1004)에 걸쳐서 고려 표류민 등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2. 비고

- ①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續編35~36權記(内外書籍 1939).
- ②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4權記 / 5權記·水左記(臨川書店 1965년).
- ③ 渡邊直彦·厚谷和雄 校訂 《史料纂集》 57·82·106權記(續群書類從完成會 1978~96) 既刊 3책.

《左經記》

1. 내용

헤이안시대의 公卿 미나모토노 쓰네테리(源經賴, 966~1039, 極官參議, 左大弁 經歷 있음)의 기록. 長和 5년(1016)부터 長元 원년(1035)까지의 일기와 《類聚雜例》의 總稱.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다수의 사본이 있으며, 國立公文書館이 소장한 內閣文庫本 15책이 가장 구비되어 있다. 平忠常의 亂에 관한 기사 등 《小右記》와 함께 헤이안 시대의 정치·문화사를 아는데 유용한 사료이다. 寬仁 2년(1018)부터 동 4년(1020)에 걸쳐 고려와 관련된 기사가 있으며, 특히 寬仁 3년(1019) ‘刀伊의 入寇’ 때의 일본인 포로 송환과 관련된 기사가 주목된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 《史料通覽》(日本史籍保存會, 1915년).
- ②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제4책·左經記(内外書籍, 1936년).
- ③ 増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増補史料大成》 제6책·左經記(臨川書店, 1965년).

《薩戒記》

1. 내용

무로마치시기의 公卿 나카야마 사다치카(中山定親, 1401~1459, 極官權大納言)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應永 25년(1418)부터 嘉吉 3년(1443)에 이른다. 東京大學史料編纂所 소장본·京都大學부속도서관 소장본·宮内廳書陵部 소장본의 형태로 원본이 현존한다. 사다치카 자신이 有職故實(조정과 무가의 예식·법령 등에 관한 규율)에 밝았기 때문에 의례관계 기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永享 5년(1433)의 조선사절 來日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2. 비교

- ① 《大日本古記録》 薩戒記(岩波書店 2001~) 既刊 3책.

《實隆公記》

1. 내용

무로마치 戰國期の 公卿 산조니시 사네타카(三條西實隆, 1455~1536)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文明 6년(1474)부터 天文 5년(1536)에 이른다. 東京大學史料編纂所에 三條西家 舊藏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조정의 儀式과 동정, 應仁·文明의 亂으로 황폐해진 京都의 모습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무로마치 후기부터 戰國時代에 걸친 정치사·사회사·문화사를 알 수 있는 1급 사료이다. 延德 2년(1490)에 日本國王使가 조선에서 귀국한 일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

2. 비교

- ① 三條西公正 校訂 《實隆公記》(續群書類從刊行會 大洋社・國書出版 1931~1938) 既刊 6책(간행 중단).
- ② 高橋隆三 校訂 《實隆公記》(續群書類從刊行會 1961~2001, 제1~10책은 ①의 第2刷, 제11~20책은 第1刷) 전20책

《山槐記》

1. 내용

헤이안·가마쿠라 시기의 公卿 후지와라노 다다치카(藤原忠親, 1131~1195, 中山家, 極官內大臣)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仁平 원년(1152)부터 建久 3년(1192)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다수의 古寫本이 있다. 헤이안 말기부터 가마쿠라 초기에 걸친 정치적 동란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永曆 원년(1160)에 고려가 일본 상인을 구속했던 일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通覽》(日本史籍保存會 1916~1917) 3책.
- ②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19-21 山槐記(內外書籍 1934~1935).
- ③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26-28 山槐記(臨川書店 1965).

《小右記》

1. 내용

헤이안 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사네스케(藤原實資, 957~1046, 極官右大臣)의 일기. 원래는 貞元 2년(977) 무렵부터 長元 원년(1040)까지의 일기였지만 현재는 天元 5년(982)부

터 長元 5년(1032)까지의 부분이 사본으로 전한다. 누락된 부분도 많지만, 《小記目錄》(《小右記》分類目錄, 전20권, 현존 18권)으로 어느 정도는 보충할 수 있다. 풍부한 내용을 가진 古記錄이며, 해당 시기의 정치·사회·문화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일본-고려의 외교와 관련된 기록도 많으며, 특히 寬仁 3년(1019)의 ‘刀伊의 入寇’와 관련된 기사가 잘 알려져 있다.

2. 비고

- ① 笹川種郎 편찬 《史料通覽》 小右記(日本史籍保存會 1915) 전2책(未完).
- ②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小右記(内外書籍 1935~36) 전3책.
- ③ 増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増補史料大成》 別卷·小右記(臨川書店 1965) 전3책.
- ④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錄》 小右記(岩波書店 1959~1986) 전11책.

《蔗軒日錄》

1. 내용

무로마치 중기의 禪僧 季弘大叔(1421~1487)의 일기. 和泉堺 海會寺 주지였던 文明 16년(1484)부터 동 18년(1486)에 걸친 기록.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前田育德會 尊經閣文庫가 소장한 사본이 있다. 내용은 季弘이 병약했기 때문에 의료에 관한 기록이 많다. 또한 觀音信仰과 神社參詣에 관한 기록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文明 18년(1486) 오오우치 마사히로(大內政弘)의 使僧 鐵牛西堂의 조선 도항에 관한 기사가 있다.

2. 비고

- 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錄》 蔗軒日錄(岩波書店 1953) 전1책.

《深心院關白記》

1. 내용

가마쿠라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모토히라(藤原基平, 1246~1268, 号深心院殿, 極官關

白, 近衛家)의 일기. 기사는 建長 7년(1255)부터 文永 5년에 이른다. 내용은 모토히라의公私에 걸친 동정을 기록한 것이다. 文永 5년의 몽고·고려가 보낸 외교문서를 둘러싼 조정·院의 대응에 관한 기사가 있다.

2. 비교

- ① 陽明文庫 편찬 《岡屋關白記·深心院關白記·後知足院關白記》(陽明叢書 6·記錄文書編 제2집, 思文閣出版 1984) 전1책.
- ②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錄》 深心院關白記(岩波書店 1996) 전1책.

《水左記》

1. 내용

헤이안시대의 公卿 미나모토노 도시후사(源俊房, 1035~1121, 極官左大臣)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康平 5년(1062)부터 天仁 원년(1108)에 이른다. 宮內廳書陵部·前田育德會尊經閣文庫에 자필 원본 일부가 현존한다. 내용은 前九年의 役に 관한 기사 및 承曆 4년(1080) 고려의 의사 파견 요청과 관련된 조정 내부의 논의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당해 기사는 자필 원본이 있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 《史料通覽》 제5책·水左記·帥記(日本史籍保存會 1914).
- ②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제5책·水左記·帥記(内外書籍 1936).
- ③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제8책·水左記·帥記(臨川書店 1965).

《善隣國寶記》

1. 내용

고대·중세의 대외관계를 다룬 역사서·왕복 외교문서집. 즈이케이 슈호(瑞溪周鳳,

1391~1473) 편저. 文明 2년(1470) 성립. 상권은 垂仁天皇 88년(59)부터 明德 3년(1392)까지의 日中關係史를 서술한 것, 중·하권은 應永 5년(1398)부터 文明 18년(1486)에 이르는 日明·日朝 왕복 외교문서집이다(瑞溪周鳳 沒後の 補筆 있음). 日明關係를 연구하는데 기본 사료이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明曆 3년(1657)의 京都 出雲寺 松栢堂刊 木版本(流布本) 외에 數種의 寫本이 있다.

2. 비교

- ① 《改訂史籍集覽》 제21책·新加通記類 제4책(近藤活版所 1901).
- ② 中島竦 校訂 《新訂善隣國寶記》(文求堂 1927).
- ③ 《善隣國寶記》(國書刊行會 1975 影印本).
- ④ 田中健夫 편찬 《善隣國寶記·新訂續善隣國寶記》(集英社 1995).

《善隣國寶後記》

1. 내용

중세·근세의 日朝 왕복 외교문서집. 松隱玄棟 편찬. 正德 원년(1771) 성립. 天正 18년(1590)부터 天和 2년(1682)에 이르는 日朝往復外交文書を 수록하였다. 《善隣國寶後記》라는 題名은 ①~③에 수록할 때 改題한 것이며, 원래의 題名은 《續善隣國寶記》이다.

2. 비교

- ① 《續群書類從》 제37책(續群書類從完成會 1972).

《善隣國寶別記》

1. 내용

중세·근세의 왕복 외교문서집. 편저자 및 성립연대 미상. 文明 4년(1472)부터 明曆 원년(1655)까지의 외교문서집이지만, 외교문서보다도 詩文·筆語를 중점적으로 수록하였다.

2. 비고

- ① 《續群書類從》 제33책(下)《續群書類從完成會 1928, 2版).
- ② 《續群書類從》 제30책(上)《續群書類從完成會 1932, 3版).
- ③ 《續群書類從》 제30책(上)《續群書類從完成會 1957, 訂正3版).

《續史愚抄》

1. 내용

朝廷의 事蹟을 모아서 정리한 편년체 역사서. 야나기하라 노리미쓰(柳原紀光) 편찬. 寛政 10년(1798) 성립. 수록연대는 正元 원년(1259)부터 安永 8년(1779)에 이른다. 草稿本·初稿本·中清書本·清書本 및 최종 清書本(未完)이 있다. 기재 내용은 天皇의 동정과 朝儀에서부터 재해 등 광범위하다. 각 기사는 간략하기는 하지만 典據를 밝히고 있으며 신뢰성이 높다. 嘉吉 3년(1443)의 朝鮮通信使 來日과 관련된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2. 비고

- ① 《續國史大系》 제1~3책·續史愚抄(經濟雜誌社 1902).
- ② 《新訂增補國史大系》 제13~15책·續史愚抄(國史大系刊行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30~1931).

《續善隣國寶記》

1. 내용

중세·근세의 왕복 외교문서집. 松隱玄棟 편찬. 正德 원년(1711) 성립. 文明 5년(1473)부터 万治 3년(1660)에 이르는 명·조선·류큐·동남아시아와의 왕복 외교문서집을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近藤瓶城 편찬 《改訂史籍集覽》 제21책·新加通記類 제4책(近藤活版所 1901).
- ② 角田文衛·五來重 편찬 《新訂增補史籍集覽》 제27책(臨川書店 1967).
- ③ 田中健夫 편찬 《善隣國寶記·新訂續善隣國寶記》(集英社 1995).

《續善隣國寶外記》

1. 내용

중세·근세의 왕복 외교문서집. 편저자·성립연대 미상. 文明 5년(1473)부터 延寶 3년(1675)에 걸친 명·조선·류큐·동남아시아와의 왕복 외교문서를 수록하였다. 《續善隣國寶記》와 親本이 같지만 수록된 문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神宮文庫本·宮內廳書陵部本·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本이 있다.

2. 비교

- ① 近藤瓶城 편찬 《改訂史籍集覽》 제21책(近藤活版 1901).
- ② 角田文衛·五來重 편찬 《新訂增補史籍集覽》 제27책(臨川書店 1967).

《帥記》

1. 내용

헤이안시대의 公卿 미나모토노 쓰네노부(源經信, 1016~1097, 極官大納言兼大宰權帥)의 일기. 治曆 원년(1065)부터 寬治 2년(1088)까지의 기사가 남아 있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다수의 寫本이 있다. 《水左記》와 對比함으로써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承曆 4년(1080)부터 永保 원년(1081)에 걸쳐서 고려의 의사 파견 요청에 관한 논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 《史料通覽》 제11책(日本史籍保存會 1916).
- ②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續編5 水左記·帥記(内外書籍 1936).
- ③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臨川書店 1965) 제5책 權記·帥記.

《大永享緣之比御狀并書狀之跡付》

1. 내용

16세기의 對馬 宗氏가 주변의 大名과 國人에게 발급했던 문서의 寫本. 享祿 원년(1528)의 宗盛賢書狀에서부터 16세기 후반 宗義調書狀까지 324통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宗氏와 주변의 大名·國人들이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지만, 조선관계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료에 이어지는 동일 종류의 사료로서 <諸家引着>(西村圭子, <對馬宗氏의 《諸家引着》 覺書>, 《日本女子大學文學部紀要》 34, 1984)가 있다.

2. 비교

田中健夫 《對外關係와 文化交流》(思文閣出版 1982).

《大乘院寺社雜事記》

1. 내용

무로마치·戰國期の 興福寺 大乘院門跡의 일기. 제17대 尋尊(1430~1508) 및 제28대 政覺·제30대 經尋의 日記를 총칭한 것. 尋尊日記의 현존하는 기사는 康正 2년(1456)부터 永正 5년(1508)에 이른다.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가 소장한 원본이 있다. 大乘院 관계 기사가 많고, 해당 시기의 나라(奈良)의 정세를 아는데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또한 무로마치막부의 동정에 관해서도 상세한 기술이 보이며, 《蔭涼軒日錄》와 함께 해당 시기의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 1급 사료이다. 寬正 4년(1463) 조선에서 <觀音現相記>가 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으며, 조선 世祖 즉위 후의 불교적奇瑞 현상의 일환으로서 주목된다.

2. 비교

- ① 辻善之助 편찬 《大乘院寺社雜事記》(三教書院 1931~1936) 전12책.
- ② 辻善之助 편찬 《大乘院寺社雜事記》(角川書店 1964) 전12책, ①의 複製版.
- ③ 竹内理三 편찬 《增補續史料大成》 제26~37책·大乘院寺社雜事記(臨川書店 1978, 2001년에 普及版), ①의 複製版.

《太平記》

1. 내용

南北朝시대의 동란을 다룬 軍記物. 작자는 小島法師 또는 惠鎮·玄惠이라고 한다. 曆應 연간(1338~1341)까지 原作이 성립하였고, 永和 연간(1375~1378)까지 현존 형태로 편집되었다. 寫本·古活字本(慶長 15년(1610) 간행)·整版本이 있으며, 무로마치시대의 古寫本으로는 今川家本(《參考太平記》 所引)·寶徳本·前田育徳會 尊經閣文庫가 소장한 梵舜本이 있고, 祖型을 전하는 寫本으로는 穂久邇文庫가 소장한 神田本, 尊經閣文庫가 소장한 玄玖本·南都本·西源院本이 있다. ‘高麗人來朝事’로서 貞治 6년(1367) 고려사절의 來日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고, 征東行中書省의 咨文을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國書刊行會 편집 간행·黒川眞道 校訂 《太平記 神田本》(1907) 전1책.
- ② 國民圖書株式會社 편찬 《校註日本文學大系》 제17~18책(國民圖書 1925~1928) 전2책.
- ③ 鷲尾順敬 校訂 《太平記 西源院本》(刀江書院 1936) 전1책.
- ④ 後藤丹治 校注 《太平記》(日本古典文學大系 34~36, 岩波書店 1960~1962) 전3책.
- ⑤ 《太平記 梵舜本》(古典文庫 1965~1967, 複製本) 전9책.
- ⑥ 《太平記 神田本》(古典研究會叢書, 古典研究會·汲古書院 1972, 影印本) 전2책.
- ⑦ 前田育徳會 尊經閣文庫 편찬·간행 《太平記 玄玖本》(勉誠社 1973~1975, 影印本) 전5책.
- ⑧ 岡見正雄 校注 《太平記》(角川書店 1975~1982) 전2책.

- ⑨ 高橋貞一 校訂 《新校太平記》(思文閣 1976) 전2책.
⑩ 山下宏明 校注 《太平記》(新潮日本古典集成, 新潮社 1977~1988) 전5책.
⑪ 長谷川端 校注·譯 《太平記》(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54~57, 小學館 1994~1998) 전4책.
①의 底本은 神田本, ②·⑧의 底本은 元和片仮名本, ③의 底本은 西源院本, ④의 底本은 古活字本, ⑤는 梵舜本の 複製本, ⑥은 神田本の 影印本, ⑦은 玄玖本の 影印本, ⑨의 底本은 ①《太平記 神田本》중에서 증보된 부분을 消去한 것, ⑩의 底本은 慶長 8년(1603) 古活字本, ⑪의 底本은 水府明德會彰考館이 소장한 天正本이다.

《太宰府市史》 古代資料編·中世資料編

1. 내용

고대·중세의 太宰府와 太宰府 天滿宮 및 太宰府 市域에 관한 年表·年表집. 각 年表의 解説문 외에 年表 읽는 法(讀み下し)·주석·해설을 添加했다. 太宰府는 古代國가의 外交를 担当했는데, 太宰府에 거점을 두었던 중세의 少貳(武藤)도 外交·무역과 關係가 깊었으므로 對外關係 年表를 많이 수록하였다. 對高麗 外交와 蒙古 습래, 對朝鮮 外交에 關係한 年表도 수록하였다.

2. 비교

太宰府市史編集委員會 편집. 太宰府市 간행. 古代資料編은 2003년, 中世資料編은 2002년 간행.

《大宰府·太宰府天滿宮史料》

1. 내용

고대~중세의 大宰府 및 太宰府天滿宮(安樂寺)과 關係된 年表·年表집. 수록 범위는 536년부터 慶長 4년(1599)에 이른다. 網文을 열거하고, 關係 年表를 망라적으로 배열한 점에서 《大日本史料》와 동일한 체제를 취한다. 고대·중세의 九州 地域사 및 對外關係사

연구에서 필수적인 사료집이다.

2. 비고

- ①九州文化綜合研究所 大宰府調査文獻班 편찬·간행 《大宰府·太宰府天滿宮史料》(1954~1958, 上世編 10책·中世編 8책·續中世編 8책).
- ②竹內理三 편찬 《大宰府·太宰府天滿宮史料》(太宰府天滿宮 간행, 1964~2006, 本編 17책, 補遺 1책).
- ②는 제12권부터 川添昭二가 편찬에 참가하였다.

《中國·朝鮮の史籍における日本史料集成》

1. 내용

中國·한반도의 正史·實錄 등에서 日本 및 류큐에 관한 사료를 추출한 사료집. ①의 《正史之部》는 25史 및 《清史》에서 일본·류큐 관계 사료를 추출하였다.

②《明實錄之部》, ③《清實錄之部》는 明清史 연구의 기본사료인 《明實錄》, 《清實錄》에서 일본·류큐 관계 사료를 추출하였다.

④《三國高麗之部》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에서 조선과 倭·일본 및 류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를 추출하였다.

⑤《李朝實錄之部》는 《朝鮮王朝實錄》(李朝實錄)부터 日本·류큐 관계사료가 추출되어 있다. 모두 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에 중요하고 유용한 사료집이다.

卷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正史之部》(一)~(二) 2책 1976~1979년 간행.
- ② 《明實錄之部》(一)~(三) 3책 1975년 간행.
- ③ 《清實錄之部》(一)~(二) 2책 1976년 간행.
- ④ 《三國高麗之部》 1책 1978년
- ⑤ 《李朝實錄之部》(一)~(十二) 1976~2007년 간행.

‘일본·류큐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 관한 기사 및 조선과 일본·류큐의 교류에 관한 기사, 일본에 대한 조선의 政事·軍事·경제상의 施策과 施設에 관한 기사 등’이 採錄

되어 있다(凡例). 기사에 약간의 누락이 있지만, 중근세 일조관계사 연구에 있어서 기초 사료라고도 할 수 있는 사료집이다. 《海東諸國紀》와 일본측 사료를 대조함으로써 이 사료집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李朝實錄之部》 전12권에서 각 권의 연대를 표시한다.

- (一) 至元 18년(1281)~世宗 18년(1436) 3월
- (二) 世宗 18년(1436) 4월~世祖 5년(1459) 12월
- (三) 世祖 6년(1460) 정월~成宗 10년(1479) 5월
- (四) 成宗 10년(1479) 6월~成宗 25년(1494) 11월
- (五) 燕山君 零年(1494) 12월~中宗 12년(1517) 4월
- (六) 中宗 12년(1517)5월~中宗 37년(1542) 3월
- (七) 中宗 37년(1542) 4월~明宗 22년(1567) 5월
- (八) 宣祖 零年(1567) 12월~宣祖 25년(1592) 12월
- (九) 宣祖 26년(1593) 정월~7월
- (十) 宣祖 26년(1593) 8월~宣祖 27년(1594) 6월
- (十一) 宣祖 27년(1594) 7월~宣祖 28년(1595) 7월
- (十二) 宣祖 28년(1595) 8월~宣祖 29년(1596) 12월

2. 비교

日本史料集成編纂會 편찬. 國書刊行會 간행. 1975~2007년.

日麗·日朝關係史料로 한정하자면, 이하의 田村洋幸씨가 편찬한 史料集 4책이 본 사료집에 선행한다.

- ①田村洋幸 편찬 《麗日編年史料集》(韓國史料研究所 1967).
- ②同編 《海寇資料集》(峯書房 1967).
- ③同編 《太祖·定宗·太宗實錄日朝關係編年史料》(三和書房 1967).
- ④同編 《世宗實錄日朝經濟史料》(恒星社厚生閣 1968).

《朝鮮王朝實錄》에서 류큐 관계 사료를 추출하고, 譯注를 추가하는 작업은 嘉手納宗徳씨와 和田久徳씨 등이 맡아주었는데, 근년에 池谷望子·內田晶子·高瀬恭子 編·譯 《朝鮮王朝實錄琉球史料集成》(榕樹書林 2005)이 간행되었다.

《中右記》

1. 내용

헤이안 시기의 公卿 후지와라노 무네타다(藤原宗忠, 1062~1141, 中御門家, 極官右大臣)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寬治 원년(1087)부터 保延 4년(1138)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近衛家·九條家·柳原家·伏見宮家本 등 가마쿠라 시기의 古寫本을 비롯하여 많은 사본이 있다. 무네타다가 명망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점도 있어서 有職古實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寬治 6년(1092)부터 天仁 원년(1108)에 이르는 고려 관계 기사가 있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 《史料通覽》(日本史籍保存會 1915~16) 7책.
 - ②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8~14 中右記(内外書籍 1934~1935) 7책.
 - ③ 宮内省圖書寮 편찬 《中右記》(宮内省圖書寮 善本叢刊 2, 美術書院 1945) 卷軸 1권, 해설 있음.
 - ④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9~15 中右記(臨川書店 1965) 7책.
 - ⑤ 天理圖書館 善本叢書編集委員會 편찬 《中右記》(天理圖書館 善本叢書 和書之部 57, 1984).
 - ⑥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中右記(岩波書店 1993~).
- ①·②·④의 底本은 村上勘兵衛 獻本에 近衛家本·二條家本을 補寫한 것, ③은 宮内廳 書陵部 所藏本(柳原家本을 圖書寮에 기증), ⑤는 天理圖書館 所藏本, ⑥의 底本은 近衛家本·九條家本·伏見宮家本·柳原家本 등의 諸本이다.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1. 내용

16세기 對馬 사료. ① <宗左衛門大夫覺書>와 ② <印冠之跡付> 2종류의 사료로 구

성되어 있다. 전자는 對馬 豊崎郡 大浦의 大浦左衛門大夫가 永正 7년(1510) 삼포왜란 때 부터 동 9년에 壬申約條이 성립하기까지의 전말을 기록한 覺書. 삼포왜란의 추이와 난 후의 관계 수복 교섭의 실태를 알 수 있다. 후자는 元龜 3년(1572)부터 天正 14년(1586) 까지 對馬 宗氏의 朝鮮通交에 관한 기록. 對馬가 독점하고 있던 조선무역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사료이며, 16세기 말의 중요한 日朝關係史料이다.

2. 비고

- ① 田中健夫 校訂 《九州史料叢書三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九州史料刊行會 1955).
- ② 田中健夫 《對外關係와 文化交流》(思文閣出版 1982).

《朝野群載》

1. 내용

헤이안 후기의 詩文·文書集. 三善爲康 편찬. 白河院政期(11세기 후반) 무렵의 詩文·文書を 중심으로 약 600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永久 4년(1116)에 성립되었지만 동년 이후의 詩文과 文書도 증보되어 있다. 헤이안 후기의 행정과 문서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전30권 중에서 21권이 현존하고 있으며, 권20의 異國條에 일본과 고려 간의 외교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2. 비고

- ① 近藤瓶城 편찬 《改訂史籍集覽》 제18책·校本朝野群載(近藤活版所 1901).
- ② 黑板勝美·國史大系編修會 편찬 《新訂增補國史大系》 제29책(上)·朝野群載(吉川弘文館 1964).

①의 底本은 伴信友校本, ②의 底本은 猪熊信雄씨 所藏本 및 神宮文庫가 소장한 舊宮崎文庫本이다.

《帝王編年記》

1. 내용

神代부터 南北朝期까지를 다룬 年代記. 編者는 僧永祐라고 한다. 14세기 후반에 성립. 神代부터 後光嚴天皇 재위기(1352~1371) 또는 後円融天皇 재위기(1371~1382)에 이르는 年代記이지만, 현존하는 기사는 後伏見天皇 재위기(1299~1301)까지이다. 선행하는 역사서를 기초로 편찬된 것인데, 본서에서만 알 수 있는 기사도 있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仁治 원년(1240)부터 弘安 2년(1279)에 걸쳐서 일본 조정의 對高麗 외교와 몽고 습래와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고

① 《新訂增補國史大系》 제12책·扶桑略紀·帝王編年紀(國史大系간행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32).

《貞信公記》(貞信公記抄)

1. 내용

헤이안 시기의 公卿 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 880~949, 諡号는 貞信, 極官은 攝政·關白·太政大臣)의 일기. 현재 延喜 7년(907)부터 天曆 2년(948)까지의 부분이 抄本으로 전한다. 내용은 朝儀와 政務에 관한 것이 많으며, 당시의 政情을 아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天慶 2년(939)부터 동 3년(940)에 걸쳐 고려가 보낸 외교문서의 처리를 둘러싼 기사가 보인다.

2. 비고

- ① 《續續群書類從》 제5권·記錄部(國書刊行會 1909).
- ②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貞信公記(岩波書店 1956) 전1책.
- ③ 天理圖書館 善本叢書編集委員會 편찬 《貞信公御記抄·九條殿御記》(天理圖書館 善

本叢書 和書之部 42, 1980) 전1책.

①의 底本은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本, ②의 底本은 天理圖書館이 소장한 九條家本·京都大學附屬圖書館이 소장한 平松本, ③은 天理圖書館이 소장한 九條家本の 影印本이다.

《豊玉町の古文書(中世文書)》

1. 내용

對馬市 豊玉町에 소재하는 중세 문서를 수록하였다. 長岡家文書·仁位家文書·梅野家文書·平山家文書 등 22家の 家文書を 모았다. 日朝關係史料를 포함한다. 寺社の 棟札銘·墓碑銘·梵鐘銘 외에 觀音寺 소장 <觀音菩薩坐像>(고려시대) 納入結緣文·東泉寺 소장 <大方廣佛華嚴經>(元版) 奧書を 첨부하였다.

2. 비고

豊玉町教育委員會 편찬·간행. 1995년.

《長崎縣史》 史料編 第一

1. 내용

근세 對馬藩에서 편찬된 古文書集인 <宗家御判物寫>을 수록하였다. 九州大學 九州文化史研究所 소장 寫本을 底本으로 하여 함께 30책·2529통의 古문서를 모았다. 對馬의 대표적인 중세문서 사료집이며, 다수의 중세 日朝關係 사료를 포함하고 있다.

2. 비고

長崎縣史編纂委員會 편찬. 吉川弘文館 간행. 1963년.

《長門二ノ宮忌宮神社文書》

1. 내용

長門 忌宮神社(山口縣 下關市 長府) 관계 사료집. <忌宮古文書> 속에 永和 4년(1378)에 오우치 요시히로(大內義弘)가 倭寇 토벌군을 고려에 파견했음을 보여주는 고문서가 있다.

2. 비교

田村哲夫 편찬. 忌宮神社 간행. 1977년.

《日本紀略》

1. 내용

神代부터 後一條朝(1017~1036)까지를 다룬 편년체 역사서 34권. 편저자 및 성립연대 미상. <六國史> 및 《新國史》, 《外記日記》의 抄出로 구성되어 있는데, <六國史>의 缺落·삭제 부분을 보충하는 기사도 있다. 특히 《日本後紀》의 原形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延喜 6년(906)부터 長元 4년(1034)에 걸쳐서 고려 건국 전후의 신라·발해·고려관계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國史大系》 제5책·日本紀略(經濟雜誌社 1897).
- ② 《新訂增補國史大系》 제10책·日本紀略, 제11책·日本紀略·百練抄(國史大系간행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29).

《後鑑》

1. 내용

무로마치막부의 事蹟을 모은 편년체 역사서. 編者は 에도막부의 儒臣 나루시마 료조

(成島良讓) 등. 嘉永 6년(1853) 성립. 수록연대는 元弘 원년(1331)부터 慶長 2년(1597)에 이른다. 원본은 大正 12년(1923)의 關東大震災 때 소실되었다. 내용은 將軍의 事蹟에서부터 管領·四職·奉行 등의 동향과 규슈의 정세, 명·조선·류큐와의 대외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嘉吉 3년(1443)의 朝鮮通信使 來日과 永正 10년(1513)의 <高麗船勘合> 등과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고

- ① 《續國史大系》 제6~8책·後鑑(經濟雜誌社 1902~1904).
- ② 《新訂增補國史大系》 제34~37책·後鑑(國史大系刊行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32~1934).

《八幡愚童訓》

1. 내용

八幡神의 神德을 찬양한 역사서·教義書. 저자는 石清水 八幡宮의 社僧. 가마쿠라시대(14세기 초기)에 성립. 이 책에는 두 계통의 寫本이 있는데, 한 종류는 延慶 원년(1308)부터 文保 2년(1318) 이전에 성립되었고, <神功皇后傳説>, <文永·弘安의 役> 등 八幡神에 얽힌 전설·역사를 저술한 것으로서 文永·弘安의 役 때 元·高麗軍의 동향을 적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에는 다시 두 계통이 있는데, 甲에는 文永의 役에 관한 기술이 적고, 乙에는 그 구체적인 기술이 있다. 두 번째 종류는 正安 연간(1299~1302) 무렵에 성립되었으며, 八幡神과 阿彌陀佛의 神佛習습을 이야기한 教義書이다.

2. 비고

- ① 《群書類從》 제1책(經濟雜誌社 1893, 再版 1898).
- ② 《續群書類從》 제2책(上)(續群書類從完成會 1902, 訂正3版 1957).
- ③ 《群書類從》 제3책(續群書類從完成會 1933, 訂正3版 1960).
- ④ 《日本思想大系》 제20책(岩波書店 1975).

- ⑤ 大久保正 편찬 《國文學未翻刻資料集》(櫻楓社 1981).

《晴豊記》

1. 내용

戰國期~江戸初期의 公卿 가주지 하레토요(勸修寺晴豊, 1544~1601, 極官准大臣)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天正 6년(1578)부터 文祿 3년(1594)에 이른다. 京都大學文學部博物館·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가 소장한 原本(勸修寺家舊藏)이 있다. 일기는 매일 빼놓지 않고 적은 것은 아니며, 1~2일분 밖에 적지 않은 달도 있다. 내용이 반드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레토요(晴豊)의 신분적 성격으로 인하여 朝廷과 信長·秀吉 관계 기사에 불만찬 것이 많다.

2. 비교

- ① 竹内理三 편찬 《續史料大成》 제9책·晴右記·晴豊記(臨川書店 1967).
 ② 竹内理三 편찬 《增補續史料大成》 제9책·晴右記·晴豊記(臨川書店 1978).

《百練抄》

1. 내용

헤이안·가마쿠라 시기를 다룬 편년체 역사서. 편저자 미상. 가메야마(龜山)천황 재위기(1259~1274)에 성립되었다고 한다. 귀족의 기록류를 토대로 편찬된 것이지만, 이 책에서만 알 수 있는 기사도 있다. 현존하는 기사는 安和 원년(968)부터 正元 원년(1259)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天祿 3년(972)부터 仁治 원년(1240)에 걸쳐서 對高麗 외교와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國史大系》 제14책·百練抄·愚管抄·元亨釋書(經濟雜誌社 1901).

② 《新訂増補國史大系》 제11책·日本紀略·百練抄(國史大系刊行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29).

①의 底本은 塙保己一校本, ②의 底本은 神宮文庫本이다.

《平戶市史》 歴史史料編 I

1. 내용

중세 히라토(平戶)와 관계된 고문서를 수록하였다. 松浦文書·伊万里文書·石志文書·籠手田文書·<松浦文書類> 등을 모았다. 중세 松浦党에 관한 사료집이며, 16세기 후반의 平戶 松浦씨와 對馬 宗氏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와 후기왜구 관계 문서, 文祿·慶長の 役 관계 문서 등이 있다.

2. 비교

平戶市史編纂委員會 편찬. 平戶市 간행. 2001년.

《廣島縣史》 古代中世資料編 III

1. 내용

嚴島神社 관계 문서를 수록하였다. 大願寺文書 중에 大内義隆書契案寫(1536년), <尊海渡海日記>·禮曹參判書契(1539년), 大藏經目錄口書寫(尊海, 1545년) 등 조선 관계 사료가 있다. <尊海渡海日記>는 大願寺 승려 尊海가 天文 8년(1539)에 대장경 求請을 목적으로 조선으로 건너갔던 때의 일기이며, 16세기 중기의 日朝關係 사료로서 귀중하다.

2. 비교

廣島縣 편찬·간행. 1978년.

《伏敵編》

1. 내용

제1책은 文應 원년(1266)부터 嘉吉 3년(1443)에 이르는 대외관계 사료집이며, 몽고침략 관계 사료가 중심이지만, 다수의 日韓關係 사료(고려·조선)을 수록하고 있다. 제2책의 <靖方溯源>은 神代부터 文應 원년까지의 대외관계 사료집이며, 해당 기간의 日麗關係 사료 외에 <竹崎季長繪詞>(蒙古襲來繪詞)도 수록되어 있다.

2. 비고

重野安繹 감수·山田安榮 편찬. 吉川半七 간행. 1891년(訂正再版 1892년).

《武家年代記》

1. 내용

헤이안 말기부터 戰國期까지를 다룬 年代記. 편자 미상. 花園天皇期(1308~1311)에 원형이 성립되었고 후세에 가필된 것. 현존하는 기사는 治承 4년(1180)부터 明應 8년(1499)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柳原家本(1797년 寫本)이 유일한 寫本이다. 公武 쌍방에 걸쳐서 기술된 것으로 주목된다. 文永 3년(1266)부터 建治 4년(1278)에 걸쳐서 몽고침공과 관련된 기사가 있으며, 裏書에는 嘉吉 3년(1443)의 朝鮮通信使 來日에 대하여 간략한 기사가 있다.

2. 비고

- ① 《續國史大系》 제5~6책·吾妻鏡(經濟雜誌社 1902) 부록.
- ② 《增補續史料大成》 제51책·鎌倉年代記·武家年代記·鎌倉大日記(臨川書店 1979).

《扶桑略記》

1. 내용

神代부터 헤이안시대까지를 다룬 편년체 역사서. 편자는 比叡山 승려 皇円이라고 한다. 현존하는 기사는 神代부터 嘉保 원년(1094)에 이른다. 선행하는 역사서·불교서를 토대로 편찬된 것으로서 이 책에서만 알 수 있는 기록도 있으며, 사료적 가치가 높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國立歷史民俗博物館이 소장한 廣橋家本·天理圖書館이 소장한 金勝院本·眞福寺本·小川廣巳 所藏本(모두 가마쿠라시대의 古寫本)을 비롯하여 다수의 寫本이 있다. 寛平 6년(894)부터 永承 3년(1048)에 걸쳐서 고려 건국 전후의 신라·발해 관계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史籍集覽》 校本扶桑略記(近藤瓶城 1884).
- ② 《改訂史籍集覽》 제1책·校本扶桑略記(近藤活版所 1900).
- ③ 《國史大系》 제6책·日本逸史·扶桑略記(經濟雜誌社 1897).
- ④ 《新註皇學叢書》 제6책(廣文庫刊行會 1927).
- ⑤ 《新訂增補國史大系》 제12책·扶桑略紀·帝王編年紀(國史大系간행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32).
- ⑥ 天理圖書館 善本叢書 和書之部 編集委員會 편찬 《古代史籍續集》(天理圖書館 善本叢書 和書之部 13, 天理大學出版部 1975).

《平安遺文》

1. 내용

헤이안시대(고대·중세 전기)의 고문서·금석문·題跋을 망라적으로 수록한 편년사료집이며(예외적으로 제외된 사료도 있다), 日麗關係 사료도 수록하였다. 수록 범위는 天應 원년(781)부터 文治 원년(1185)에 이른다. 고문서편 11책·금석문편 1책·題跋編 1책·색인 편 2책.

2. 비교

竹内理三 편찬. 東京堂出版 간행. 1949~1968년(新訂版은 1974~1981년).

《平戸記》

1. 내용

가마쿠라시대의 公卿 다이랴노 쓰네타카(平經高, 1180~1255, 極官參議)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安貞 원년(1227)부터 寬元 4년(1246)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내용은 公武 관계부터 토지·소송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法制史的 의의도 크다. 또한 仁治 3년(1242)의 기사가 남아 있는데, 이 해는 《吾妻鏡》이 缺落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료의 가치는 높다. 延應 2년(1240)의 고려가 보낸 외교문서(進奉船 문제)를 둘러싼 조정 내부의 논의 과정이 기록되었고, 泰和 6년(1206)의 高麗國金州防禦使牒寫도 수록되어 있다.

2. 비교

- ①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24 平戸記(内外書籍 1935).
- ② 増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増補史料大成》 32 平戸記 33 平戸記·妙槐記(臨川書店 1965).

《碧山日錄》

1. 내용

무로마치시대의 東福寺 승려太極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長祿 3년(1459)부터 應仁 2년(1468)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前田育徳會尊經閣文庫가 소장한 古寫本이 있다. 應仁·文明의 난 전후의 사회 정세와 寺院經濟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寬正 원년(1460)부터 동 3년(1462)에 걸쳐서 조선에 化緣을 원하는 禪僧에 대한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改訂史籍集覽》 제25책(近藤出版部 1902).
- ② 《新訂增補史籍集覽》 제26책(臨川書店 1967).
- ③ 竹内理三 편찬 《增補續史料大成》 제20책·碧山日錄(1982).

《本朝世紀》

1. 내용

헤이안시대를 다룬 역사서. 藤原通憲 편찬. 鳥羽法皇이 通憲에게 <六國史> 後繼版(宇多~近衛天皇)의 편찬을 명한 것이며, 현존하는 기사는 承平 5년(935)부터 仁平 3년(1153)에 이른다. 外記局의 公日記인 《外記日記》를 기본 사료로 하지만 손을 댄 부분도 많다.

2. 비교

- ① 《群書類從》 제3책(經濟雜誌社 1893, 再版 1898).
 - ② 《群書類從》 제3책(續群書類從刊行會 1933, 訂正3版 1960).
 - ③ 《國史大系》 제8책(經濟雜誌社 1898).
 - ④ 《新訂增補國史大系》 제9책(國史大系刊行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33, 再版 1964).
- ①·②의 底本은 尊經閣文庫本 계통을 이은 抄本이며, ③의 底本은 伴信友校本·柳原本 및 諸本, ④의 底本은 伏見宮家本·東京大學 소장본이다.

《本朝續文粹》

1. 내용

헤이안 후기의 漢詩文集. 편자 미상. 전13권. 고이치조(後一條) 천황 때부터 스토쿠(崇徳) 천황 保延 6년(1140)까지의 작품 322편을 수록했다. 성립은 永治 원년(1141)~久壽 2년(1155)으로 되어 있다. 文永 9년(1272)에 호조 사네토키(北條實時)가 相州御本으로 校了한 寫本(金澤文庫本, 複製 있음)이 內閣文庫에 남아 있다. 그밖에도 많은 寫本이 남아 있

지만 대부분은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내용은 《本朝文粹》와 비교할 때 문장의 격조에 있어서 약간 뒤지지만, 헤이안 후기의 문학 및 사상을 아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2. 비교

- ① 《正續本朝文粹 全》(國書刊行會 1918, 1944 復刊).
 - ② 《校註日本文學大系》 제24권(國民圖書株式會社 1927, 제2판 1928, 제3판 1930).
 - ③ 《新訂增補國史大系》 제29권(下)(國史大系刊行會·吉川弘文館·日用書房 1938, 제2판 1941, 완성기념판 1965).
- ①·③의 定本은 金澤文庫本, ②의 定本은 明治 29년(1896) 6월의 木活字本이다.

《松浦党關係史料集》

1. 내용

長和 5년(1016) 이후의 肥前 松浦党과 관련된 편년사료집. 현재 4권 간행. 松浦 지방은 이른바 ‘초기왜구’와 전기왜구의 근거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려관계 사료가 비교적 많다. 제4권은 《朝鮮王朝實錄》에서 松浦党 관계 사료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2. 비교

瀬野精一郎 편찬. 續群書類從完成會 간행. 1996~2009년. 제4권부터 村井章介가 編者에 가담하였고, 八木書店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滿濟准后日記》

1. 내용

무로마치 시기의 醍醐寺 승려 三寶院 滿濟(1378~1435)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應永 18년(1411)부터 永享 7년(1435)에 이른다. 國立國會圖書館 및 醍醐寺 三寶院이 소장한 원본이 있다. 장군에게 近侍하는 護持僧으로서 幕政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사

료는 滿濟 자신이 직접 견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무로마치 전기의 정치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본 사료이다. 正長 원년(1428) 조선사절의 來日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2. 비교

- ① 京都帝國大學文科大學 편찬 《滿濟准后日記》(六條活版製造所 1918~1920) 전3책.
- ② 續群書類從完成會 편찬·간행 《續群書類從》 補遺2(1958~1959) 전2책.
- ①의 底本은 京都大學文學部 소장본, ②의 底本은 醍醐寺 소장원본이다.

《民經記》

1. 내용

가마쿠라 시기의 公卿 후지와라노 쓰네미쓰(藤原經光, 1212~1274, 勘解由小路家·廣橋家, 極官民部卿)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嘉祿 2년(1226)부터 文永 7년(1270)에 이른다.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소장 자필 원본 48권이 있고, 그밖에도 다수의 寫本이 있다. 쓰네미쓰가 五位藏人으로서 재직하고 있던 寬喜 3년(1231)·貞永 원년(1232)·天福 원년(1233)의 3년분 기사가 상세하며, 藏人으로서 그의 활동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嘉祿 2년(1226)부터 安貞 원년(1227)에 걸쳐서 ‘초기왜구’와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近藤瓶城 편찬 《改訂史籍集覽》 제24책(近藤出版部 1902).
- ②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民經記》 전11책, 既刊 10책(岩波書店 1975~).
- ①의 底本은 東京大學 소장본이며, <經光卿記>라는 題名으로 수록하였다. ②의 底本은 東洋文庫 소장 원본 및 諸本이다.

《宗像神社文書》 第1卷

1. 내용

本編 1책·影印本 1책. 福岡縣 宗像市の 宗像大社가 소장하는 중세 문서 중에서 <八卷

文書>라는 斷簡文書 함께 230점을 모았다. 享德 3년(1457)의 宗像氏正書契案을 수록하였다.

2. 비교

宗像大社文書編纂刊行委員會 편찬. 宗像大社復興期成會 간행. 1992년.

《明月記》

1. 내용

헤이안시대의 公卿 후지와라노 사다이에(藤原定家, 1162~1241, 冷泉家)의 일기. 원래는 治承 연간(1177~1179)부터 仁治 연간(1240~1242)까지의 기사를 수록했지만, 지금은 治承 4년(1180)부터 嘉禎 원년(1235)까지의 부분이 남아 있다. 冷泉家時雨亭文庫 소장 원본(1192~1233)이 있고, 사본도 많이 있다. 定家の 거의 전 생애에 걸친 기록이며, 그 자신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임과 동시에 해당 시기의 궁정과 公家 사회의 실상을 전해주는 사료로서도 주목된다. 嘉祿 2년(1226)부터 安貞 원년(1227)에 걸쳐서 ‘초기왜구’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였다.

2. 비교

- ① 國書刊行會 편찬·간행 《明月記》 (1911~1912, 復刻版 1970) 전3책.
- ② 辻彦三郎 校訂 《史料纂集》 고기록편18 明月記(續群書類從完成會 1971) 既刊 1책.
- ③ 冷泉家時雨亭文庫 편찬 《明月記》(冷泉家時雨亭叢書 56~60, 朝日新聞社 1993~2003) 전5책.
- ④ 尾上陽介 편찬 《明月記·徳大寺家本》(ゆまに書房 2004~2006) 전41책(8권).

①의 底本은 東京大學史料編纂所 謄寫本, ②의 底本은 冷泉家時雨亭文庫 소장 원본 및 諸本, ③은 原本의 影印本, ④는 史料編纂所 소장 徳大寺家本の 二色刷版이다.

《師守記》

1. 내용

南北朝시대의 중급 귀족 나카하라 모로모리(中原師守, 極官大外記)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曆應 2년(1339)부터 應安 7년(1374)에 이른다.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원본 외에 많은 사본이 있다. 北朝 시대의 朝儀와 公事に 관하여 많은 기록을 남겼다. 또한 그 자신이 大炊頭였기 때문에 大炊寮領 경영에 관해서도 풍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貞治 6년(1367) 고려사절(金龍)이 來日할 때, 조정 내부에서의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大外記의 직무로서 헤이안·가마쿠라시대의 외교문서·기록류를 다수 검출하고, 이것을 일기 속에 書寫하였다.

2. 비고

- ① 藤井貞文·小林花子 校訂 《史料纂集》 古記録編 2・5・9・15・21・25・37・40・44・49・63 師守記(續群書類從完成會 1968~1982) 전11책.

《康富記》

1. 내용

무로마치시대의 明法家 나카하라 야스토미(中原康富, 1400~1457, 極官權大外記)의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應永 24년(1417)부터 康正 원년(1455)에 이른다.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원본이 있다. 해당 시기의 公家 사회의 실태와 무로마치막부의 동정에 관하여 상세한 기록이 있다. 15세기 전반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에 있어서 중요 사료의 하나이다. 嘉吉 3년(1443)의 朝鮮通信使 來日과 寶德 원년(1449)의 日本國王使 파견에 관한 상세한 기사를 모았다.

2. 비고

- ① 笹川種郎 편찬·矢野太郎 校訂 《史料大成》 29~31 康富記32 康富記·親長卿記別記(内外書籍 1936~1942).

- ② 增補史料大成刊行會 편찬 《增補史料大成》 37~39 康富記, 40 康富記·親長卿記別記(臨川書店 1965).

《山口縣史》 史料編 中世 1~4

1. 내용

중세 山口縣에 관한 사료집. 제1권은 記錄史料類를 수록했고, 제2~4권은 개별 家文書와 畫幅贊·文學資料를 수록하였다. 지리적으로 대륙에 가깝고, 또한 大名 大內氏가 대외 관계에 깊이 관여한 적도 있으며, 몽고습래 고려·조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도 많이 수록하고 있다.

2. 비고

山口縣 편찬·간행. 1996~2008년.

《隣交徵書》

1. 내용

중국 魏朝부터 清朝에 걸쳐서 詩文과 일본관계 기록을 抄錄한 서적. 편자는 후젠(豊前)의 유학자 이토 마쓰(伊藤松). 天保 9년(1838)~동 10년(1839) 간행. 명·청 시대의 승려와 유학자의 詩文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日中關係 사료가 중심이지만 日韓關係 사료(고려·조선·文祿 慶長の 役)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2. 비고

《隣交徵書》(國書刊行會 1975, 影印本).

《歷代鎮西志》

1. 내용

神代부터 正保 4년(1647)까지 북부 규슈의 정치·군사를 정리한 편년체 역사서. 犬塚盛純 편찬. 元祿 연간(1688~1703)에 성립.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日韓關係(고려·조선·文祿 慶長の 役)에 관하여 언급한 기사가 있다.

2. 비교

高野和任 편찬 《歷代鎮西志》(靑潮社 1992~1995, 影印本) 전3책.

《歷代鎮西要略》

1. 내용

《歷代鎮西志》의 요약판. 수록연대는 神代부터 文祿 2년(1593)까지이다. 편자·성립연대 미상. 水府明德會彰考館 소장 원본이 있으며, 이것을 底本으로 한 東京大學 史料編纂所 소장 사본이 있다. 규슈 북서부의 전란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배열. 文治 연간(1185~1190) 이후는 연호마다 정리하였고, 문서 등도 풍부하게 삽입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현존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귀중한 사료이다.

2. 비교

- ① 《史籍集覽》 歷代鎮西要略(和裝本, 1883) 전11책.
- ② 芥川龍男 증보, 교정 《歷代鎮西要略》(文獻出版 1976) 전2책.

《歷代寶案》

1. 내용

류큐 왕국의 외교문서집. 一集·二集·三集·咨集·別集으로 나누어지며, 仁宗 원년(1424)

부터 同治 6년(1867)에 걸쳐서 류큐가 明清·조선·동남아시아 제국으로 보냈던 외교문서의 초안을 수록하였다. 古琉球 시대의 外交文書案을 수록한 것은 一集이다. 康熙 36년(1697)에 天后宮이 소장한 一集 원본을 기초로 再修本 2부를 작성했으며, 王府와 天后宮에 收藏되었다. 琉球處分 후 王府本은 內務省으로 이관되었고, 大正 12년(1923)의 關東大震災 때 소실되었다. 天后宮本은 沖繩縣立圖書館으로 이관되었고, 昭和 20년(1945)의 오키나와 전투 때 소실되었다. 소실 전에 만든 再修本の 影印本·寫本가 몇 종류 있다.

2. 비교

- ① 那覇市企畫部文化振興課 편찬 《那覇市史》 자료편 제1권·歷代寶案 第1集抄.
- ② 沖繩縣立圖書館史料編集室 편찬 《歷代寶案》校訂本 제1책~제13책(沖繩縣教育委員會 1992~1996).

①의 底本은 東恩納寬淳 소장 影印本·台灣大學本, ②는 鎌倉芳太郎 소장 影印本の 複製本(諸本과 校合)이다.

《鹿苑日錄》

1. 내용

京都 相國寺 鹿苑院의 역대 院主의 公日記. 기사는 長享 원년(1487)부터 慶安 4년(1651)에 이른다. 鹿苑院 주지는 五山 禪宗界를 관장하는 僧錄司를 겸직하고, 五山 禪僧이 무로마치막부의 외교실무를 담당할 적도 있어서 무로마치막부의 대조선 외교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기록했으며, 文祿·慶長の 役과 관련된 기사도 있다. 《蔭涼軒日錄》과 함께 무로마치시대 후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이다.

2. 비교

- ① 辻善之助 편찬 《鹿苑日錄》(大洋社 1934~1937) 전6책.
- ② 辻善之助 편찬 《鹿苑日錄》(續群書類從完成會 1961~1962) 본편 6책·색인 1책, ①의 再版.

Ⅱ. 文祿·慶長の 役

《家忠日記》

1. 내용

도쿠가와(德川)씨의 가신 마쓰다이라 이에타다(松平家忠, 1555~1600)의 일기. 기사는 天正 5년(1577)부터 文祿 3년(1594)에 이른다. 文祿의 役 발발 전후의 간략한 기사를 모았다.

2. 비고

- ① 竹内理三 편찬 《續史料大成》 19·20 家忠日記(臨川書店 1967).
- ② 竹内理三 편찬 《增補續史料大成》 19 家忠日記(臨川書店 1979).

《大和田重清日記》

1. 내용

사타케(佐竹)씨의 被官 오와다 시게키요(大和田重清, ?~1619)의 일기. 文祿 2년(1593) 4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내용은 사타케씨의 조선출병 준비, 講和 明使의 來日 등이 보인다. 또한 8월 18일부터 윤9월 6일까지의 일기(名護屋 출발~水戸 도착)는 당해 시기의 교통 사정과 상업의 실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흥미가 깊다.

2. 비고

- ① 小葉田淳 <大和田近江重清日記>(《日本史研究》 44~46·48~49·52, 1959~1961).
- ② 高根澤町史編纂委員會 편찬 《高根澤町史》 제1권·사료편 I·原始古代·中世(高根澤町 1995).

《加賀藩史料》 第1編

1. 내용

金澤藩의 편년사료집. 제1~15편, 藩末編(上)·(下)권, 編外備考의 18책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은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출생년인 天文 7년(1538)부터 慶長 10년(1605)까지이다. 文祿 원년(1592) 정월부터 慶長 4년(1599) 정월에 걸쳐서 조선출병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2. 비고

侯爵前田家編輯部 편찬. 石黒文吉 간행. 1929년.

《鹿兒島縣史料 舊記雜錄後編》 2·3

1. 내용

시마즈(島津) 가문의 문서를 중심으로 薩摩藩 관계 사료를 편년 집성한 사료집. 原名은 《舊記雜錄》, 《薩藩舊記》는 별칭. 막부 말기 薩摩藩의 사학자이며 記録奉行이 되었던 이지치 쓰에요시(伊地知季安)는 文政(1818~1830) 무렵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마즈 가문을 비롯한 藩內 여러 가문의 문서와 기록류 따위를 書寫·수집·정리하는 일에 노력했는데, 그의 아들 쓰에미치(季通)도 弘化(1844~1848) 무렵부터 여기에 다시 많은 書寫 사료를 추가하고 편년 순으로 집성, 방대한 사료집으로 정리하였다. 朝鮮出兵 관계 사료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2. 비고

鹿兒島縣維新史編纂所 편찬. 鹿兒島縣 간행. 1982·1983년.

《義演准后日記》

1. 내용

醍醐寺 座主 義演(1558~1626)의 일기. 기사는 慶長 원년(1596)부터 寬永 3년(1626)에 이른다. 文祿 4년(1595)의 明使 來日과 ‘慶長の 役’에 관련된 간략한 기사를 모았다.

2. 비고

副島種經·弥永貞三·鈴木茂男·酒井信彦 校訂 《史料纂集》 고기록 48·65·71·145 義演准后日記(續群書類從刊行會, 1976~2006) 전4책.

《北野社家日記》

1. 내용

北野天滿宮社家 松梅院의 역대 일기. 현존하는 기사는 寶德 원년(1449)부터 元和 5년(1619)에 이른다. 天正 18년(1590)의 朝鮮通信使와 관련된 간략한 기사를 모았다.

2. 비고

竹内秀雄 校訂 《史料纂集》 고기록 23·24·27·31·33·36·127 北野社家日記(續群書類從完成會 1972~2001).

《九州御動座記》

1. 내용

天正 15년(1587), 히데요시의 시마즈정벌 때 사쓰마까지의 道程, 전투 경과, 전후 공작 등을 기록한 사료. 작자는 히데요시의 御伽衆 大村由己라는 설이 있지만 이론만 있다. 조선 관계 기술로서 규슈 평정 뒤에 對馬의 宗氏를 통하여 朝鮮國王의 來朝를 촉구하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에 코끼리를 원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고

九州史料刊行會 편찬 《九州史料叢書 41 近世初頭九州紀行記集》(九州史料刊行會 1967).

《九州戰國誌 -戶次軍談-》

1. 내용

본서는 元祿 16년(1703)에 간행된 《戶次軍談》의 覆刻이다. 저자 불명. 내용은 베쓰키 아키쓰라(戶次鑑連, 후일 다치바나(立花)로 개명)·무네시게(宗茂) 2대에 걸쳐서 베쓰키(戶次)씨를 중심으로, 아키쓰라의 유년 시대인 大永 연간(1521~1528)부터 히데요시의 조선출병 때까지 규슈 전 지역에 걸친 여러 호족들의 治亂興亡을 서술한 戰國史이다. 조선 관계 기사는 上·中·下 3책 중 하권에 있다.

2. 비고

彦城散人 校訂 《九州戰國誌—戶次軍談—》 하권 (歷史圖書社 1978).

《久留島文書》

1. 내용

海賊衆(水軍) 구루시마 무라카미[來島村上, 天正 13년(1585)에 성을 ‘來島’로, 元和 2년(1616)에 이름을 ‘구루시마(久留島)’로 개명했다]에게 전하는 문서. 豊臣秀吉 朱印狀 등 天正 연간부터 근세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書狀類 46통 등으로 구성되었다. 文祿의 役 때 來島 형제[德井半右衛門尉 通年(通之)·村上助兵衛尉 通總]에게 부대를 巨濟島로 진입시키라는 秀吉의 朱印狀을 볼 수 있다.

2. 비고

野口喜久雄 <[史料紹介] 久留島文書>(《歴史學・地理學年報》 제8호, 九州大學教養部 1984).

《黑田家文書》 第一卷

1. 내용

옛 福岡藩主 구로다(黑田) 가문에 전하는 黑田家 자료(福岡市博物館所藏) 중에서 <御感書> 12권 및 세키가하라 전투(關ヶ原合戰)까지의 家文書와 증세 <筑前國早良郡背振山東門寺古證文>(結城文書)을 수록한 것이다. 번역문 외에 注解과 大意를 적었다. 《影印本》에는 문서 전체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豊臣秀吉·秀次와 徳川家康 등이 조선에 주둔 중인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앞으로 보낸 문서 등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2. 비고

福岡市博物館 편찬·간행. 1999년.

《高麗日記》

1. 내용

히젠(肥前)의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의 가신인 다지리 아키타네(田尻鑑種)의 임진왜란 從軍日記. 아키타네는 天正 20년(1592) 3월 21일 肥前國 佐賀를 출발, 壹岐·對馬를 경유하여 4월 27일 釜山으로 건너갔다. 5월 13일 조선의 수도(한양)에 입성하고 咸鏡道까지 진군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후퇴, 2월 20일 慶尙道 薺浦에 도착했을 무렵에서 일기는 끝난다. 다지리 아키타네는 조선에 주둔 중이던 文祿 2년(1593) 4월 29에 사망하였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복수의 사본이 전래되고 있다.

2. 비교

- ① 北島万次 편찬 《朝鮮日日記・高麗日日記》(日記・記錄에 의한 日本歴史叢書 근세편 4, 1982).
 - ② 柳川市史編集委員會 편찬 《柳川市史 사료편Ⅲ 蒲池氏・田尻氏史料》(柳川市 2006).
- ①의 底本은 鍋島家本, ②의 底本은 <田尻家譜>이다.

《國史叢書 故郷物語(黑田家) 全・大友公御家覺書 全・從道鑒五代記(島津家) 全》

1. 내용

<大友公御家覺書>는 규슈의 호족 오토모(大友)씨의 전성기 때 각종 유래를 적은 것이다. 작자는 미상이지만, 元和 연간(1615~1624)까지의 事蹟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토모 요시무네(大友義統)의 遺臣들이 主家에 전하는 由來의 一端을 覺書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으로 건너갔던 오토모 세력의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오토모 요시무네 改易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교

黒川眞道 편찬. 國史研究會 간행. 1916년.

《駒井日記》

1. 내용

아즈치 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의 무장 고마이 시게카쓰(駒井重勝, 生沒年不詳)의 일기. 文祿 2년(1593)~동 4년(1595)에 걸친 기사가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시게카쓰는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 밑에서 재정관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히데쓰구를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을 상세하게 적었고, 公文書의 복사를 수록하였다. 도요토미 정권과 관련

된 중요한 사료이며, 文祿·慶長の 役 관계 기록도 수록하였다.

2. 비고

- ① 《改定史籍集覽》 25, 1902년.
- ② 駒井重勝 著, 藤田恒春 編校訂 《増補駒井日記》(文獻出版 1992).

《佐賀縣近世史料》 第1編 第1卷, 第2卷

1. 내용

[第1卷]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年譜의 성립연대는 일정하지 않지만, 享保(1716~1736) 단계까지는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年譜는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치적을 기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와 동시에 同家が 龍造寺家로부터 藩主의 지위를 이양받은 유래와 그 계승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年譜에는 각종 사본이 있는데 본 사료집은 延享 4년(1747)의 《直茂公譜》를 底本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사료가 편찬사료이기는 하지만 히데요시의 朱印狀과 直茂 書狀의 사본 등을 수록하고 있다.

《直茂公譜考補》는 天保 10년(1839) 봄, 11대 藩主 나베시마 나오마사(鍋島直正)가 同藩의 御記録·諸家傳記를 기초로 《直茂公譜》의 異同을 考補하도록 명하고, 동 12년 5월에 완성하였다. 《直茂公譜考補》에도 여러 사본이 존재하는데, 이 사료집은 天保 15년(弘化 원년=1844)에 修補가 완성된 사본이 底本이다. 관계 사료의 각권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直茂公譜第六, 朝鮮御陣中 諸勢朝鮮渡海 附, 朝鮮王洛去 諸勢朝鮮 洛入
- ② 直茂公譜第七, 朝鮮御陣中
- ③ 直茂公譜第八, 朝鮮御陣中
- ④ 直茂公譜第九, 朝鮮御陣中
- ⑤ 直茂公譜考補 第六卷 <太閤殿下朝鮮攻之起> 외에 3점 수록.
- ⑥ 直茂公譜考補 第七卷 <咸鏡道御發向> 외에 8점 수록.
- ⑦ 直茂公譜考補 第八卷 <咸興府御越年> 외에 11점 수록.

⑧ 直茂公譜考補 第九卷 <直茂公自朝鮮中御歸朝> 외에 13점 수록.

[第2卷]

《鍋島勝茂公御年譜》의 편찬은 享保 연간(1716~1736)에 고가와 도시카타(小川俊方, 舍人)가 편찬한 《御年譜ヲ始, 舊記録目錄并ニ諸産物》과 병행하여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藩主의 年譜가 그 治績을 記録·顯彰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편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直茂公譜》가 龍造寺-鍋島의 정권교체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는 底流를 읽을 수 있음에 비하여, 《勝茂公譜》는 《直茂公譜》와 가급적이면 내용의 중복을 피하면서 편집하였다.

《勝茂公譜考補》는 《直茂公譜考補》의 완성을 기다려서 그 체제에 따라 《勝茂公譜》를 増補 내지 考補함으로써 성립하였다.

- ① <勝茂公御年譜一>은 가쓰시게(勝茂)가 天正 20년(1592) 13세 때 나고야(名護屋)에 머물면서 아버지 나오시게(直茂)가 1만 2천의 군사를 이끌고 도해했던 때부터 文祿 5년(慶長 1, 1596) 17세가 된 히데요시에게 고려 도해를 신청하여 승낙을 받고 출정, 慶長 3년(1598) 12월 귀국하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 ② <勝茂公譜考補第一卷>은 文祿 5년(慶長 1, 1596) 10월 20일 가쓰시게가 아버지 나오시게보다 먼저 이마리(伊万里)를 出船한 무렵부터 시작하여, 慶長 3년(1598) 12월 귀국, 후시미(伏見)의 히데요리(秀頼)를 扨調하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多久差出> 등을 인용하였다.

2. 비고

佐賀縣立圖書館 편찬·간행. 1993·1994년.

《佐賀縣史料集成》 古文書編 第7卷, 第8卷

1. 내용

[第7卷]

- ①<田尻家文書>의 다지리(田尻)씨는 天正 17년(1589), 이마리(伊万里) 서북쪽 山代에 1천 6백여 석의 영지를 받았고, 이후 그곳으로 옮겨 살았다.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류조지(龍造寺)씨를 대신하여 國務를 보기에 이르러서 그 휘하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조선으로 건너간 田尻又三郎 家和의 書狀과, 家和가 죽은 후 家督을 상속한 春種 앞으로 直茂·直茂夫人 陽泰院이 조선의 戰況을 전하는 書狀, 秀吉朱印狀이 수록되어 있다.

- ② <鶴田家文書>의 쓰루다(鶴田)씨는 원래 松浦郡 大河野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던 松浦黨의 한 支流이다. 嫡家인 因幡守勝은 天正 연간(1573~1592)에 일찍부터 武雄의 高藤(後藤)씨를 따라서 武雄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역대 後藤家(뒷날 鍋島家)의 老職이 되었다. 본 사료는 쓰루다 嫡流家の 문서이다. 高藤 이에노부(後藤家信)가 조선으로 건너간 것을 기록한 문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

[第8卷]

<龍造寺文書>는 류조지 다카노부(龍造寺隆信)의 동생 다쿠 나가노부(多久長信)를 시조로 하는 나베시마씨의 國老 多久家の 文書群이다. 대개는 佐賀藩政期の 문서인데, 文祿 5년(1596)의 것으로 추정되는 龍造寺六郎次郎(多久安順, 長信의 아들)宛 鍋島清茂(勝茂) 書狀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조선으로 건너간 六郎次郎(安順)을 위로하는 것이다.

2. 비고

佐賀縣史編纂委員會 편찬. 간행은 佐賀縣立圖書館. 1963·1964년.

《佐竹文書》

1. 내용

아키타(秋田) 藩主 사타케(佐竹) 가문의 文書群(중세 常陸時代 및 秋田 移封 후의 사료를 포함한다). ‘文祿의 役’ 관계 사료를 모았다.

2. 비고

- ① 秋田縣立秋田圖書館 편찬 《佐竹文書》(雄松堂出版 1970, 마이크로필름版).

秋田縣立秋田圖書館 편찬 《마이크로필름版 佐竹文書解説目錄》(1970), 秋田縣立秋田圖書館 편찬 《秋田縣立秋田圖書館藏佐竹文庫目錄》(1955) 참조.

《三藐院記》

1. 내용

戰國期~江戶 초기의 公卿 고노에 노부타다(近衛信尹, 1565~1606, 極官關白)의 일기. 기사는 文祿 1년(1592)부터 慶長 11년(1606)에 이른다. 文祿 원년에 노부타다는 左大臣을 그만두고 조선 渡海를 희망했으므로 고요제이(後陽成)천황의 질책을 받고 사쓰마(薩摩)로 유배되었다. 그런 까닭에 시마즈(島津)씨 가신의 조선출진과 관련된 기사 등을 모았고, 別記의 <豊臣秀次任内大臣次第>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정복 야욕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2. 비고

近衛通隆·名和修·橋本政宣 교정 《史料纂集》 45 三藐院記(續群書類從完成會 1975).

《舜舊記》

1. 내용

曹洞禪僧 梵舜(?~1653)의 일기. 기사는 天正 11년(1583)부터 寬永 9년(1632)에 이른다. ‘文祿의 役’ 발발과 文祿 4년(1595)의 明使 來日과 관련된 간략한 기사를 모았다.

2. 비고

鎌田純一 校訂 《史料纂集》 12·32·51·59·64·98·105·120 舜舊記(續群書類從完成會 1970~1999).

《相國寺藏西笑和尚文案》

1. 내용

도요토미(豊臣)·도쿠가와(徳川) 정권의 외교승 西笑 承兌(1548~1607)의 자필 文案(통

칭 <西笑和尚文案>, 1597~1607), 有節瑞保·鶴峰宗松의 자필 일기 <文祿中日記> 및 相國寺 本坊 소장문서 중에서 承兌의 생존 당시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承兌이 외교승이었으므로 ‘文祿·慶長の 役’ 관계 사료가 많다.

2. 비고

伊藤眞昭·上田純一·原田正俊·秋宗康子 편찬. 思文閣出版 간행. 2007년.

《新訂 黒田家譜》 第1卷

1. 내용

《黒田家譜》는 寛文 11년(1671) 10월 5일, 福岡藩의 3대 藩主 구로다 미쓰유키(黒田光之)가 유학자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이름은 久兵衛, 諱는 篤信, 호는 益軒 또는 損軒)에게 명하여 편집하도록 한 福岡藩 黒田家の 공식기록이다. 이런 까닭에 文祿·慶長の 役에 관해서도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를 비롯한 구로다군의 전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 ① <黒田家譜 卷之六 朝鮮陣(上)>은 天正 19년(1591), 히데요시가 唐入을 선언하고 朝鮮 도해를 명한 무렵부터 文祿 2년(1593) 오토모 요시무네(大友義統)가 明나라의 대부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퇴각하여 改易당한 무렵에서 끝난다.
- ② <黒田家譜 卷之六 朝鮮陣(中)>은 文祿 2년 1월 16일, 明나라 대장 李如松이 10만의 병력을 인솔하고 내려왔던 碧蹄館 전투 때부터 文祿 3년(1594)의 和議로 일본의 여러 장수가 귀국, 慶長 원년(1596) 8월 明의 사자 渡日, 그가 가져온 璽書를 보고 히데요시가 분노하며 재차 도해를 명하여 諸將이 渡海를 준비하던 무렵에서 끝난다.
- ③ <黒田家譜 卷之六 朝鮮陣(下)·豊臣太閤御薨逝>는 慶長 2년(1597) 2월 太閤 히데요시가 구로다 나가마사를 비롯하여 諸將에게 명했던 軍令에서부터 시작하며, 慶長 3년(1598) 8월 18일 太閤 薨去, 일본의 諸將 귀국, 明軍 귀국으로 끝난다.

2. 비고

川添昭二·福岡고문서를 읽는 모임 교정 《新訂 黒田家譜》 제1권(文獻出版 1983).

《續群書類從》 第20輯(下) 合戰部

1. 내용

《續群書類從》은 에도시대 후기에 하나와 호기이치(塙保己一)가 간행한 《群書類從》의 뒤를 이어서 寬政 7년(1795)~동 8년(1796) 무렵부터 기획되었으며, 호기이치의 사후에도 편찬 작업이 진행되어 明治 16년(1883)에 약 850권이 宮內省에 납본되었다.

- ① 권제590(上) <朝鮮記乾>의 《朝鮮記》는 분고(豊後)의 우스키(臼杵) 성주 오타 가즈요시(太田一吉)의 家臣인 大河内茂左衛門尉 히데모토(秀元)의 종군기록이다. 奧書에는 직접 전쟁터로 가서 친구의 이야기를 거짓 없이 기록했다고 적었다. 乾卷은 慶長 2년(1597) 3월 18일, 고바야가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가 총대장이 되어 조선에 재차 파병할 무렵부터 시작하며, 동년 12월 22일 明軍의 蔚山 공격으로 끝난다.
- ② 권제590(下) <朝鮮記坤>은 동년 12월 23일 蔚山 공방전에서부터 시작하며, 慶長 3년(1598) 3월 13일 일본측의 축성공사가 있었고, 이 때문에 秀詮(秀秋)와 함께 여러 장수가 귀국했으며, 동년 4월 4일 오사카(大坂)에 도착, 같은 달 5일 후시미(伏見)의 히데요시를 만난 기사로 끝난다.
- ③ 권제591 <島津家高麗軍秘錄>은 島津家の 가신 淵邊晝右衛門 元眞이 <高麗入>에 관하여 기록한 覺書이다. 성립은 万治 3년(1660) 5월. 후치베(淵邊)가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를 따라서 조선으로 건너갔던 때는 15세였다. 慶長 2년 시마즈 요시히로의 조선 渡海부터 시작해서, 慶長 4년(1599) 2월 요시히로의 귀국까지 기록하고 있다.
- ④ 권제591 <吉野甚五左衛門覺書>는 히젠(肥前)의 히라도(平戸) 성주 마쓰우라 호인(松浦法印, 鎮信) 휘하 吉野甚五左衛門의 覺書이다. 奧書에 “船中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萬幸萬幸, 釜山浦에서, 文祿 2년 7월 4일”이라고 적혀 있다. 天正 20년(1592) 3월 12일 이키(壹岐)섬에 조선으로 건너가는 兵船이 모이고, 對馬를 거쳐 釜山浦에 着船. 동년 4월 13일 釜山城 공격을 개시하는 무렵부터 기록하고 있다. 文祿 2년(1593) 4월에 講和의 표시로 인질을 보내 온 대목에서 끝난다. 松浦法印·小西行長の 동향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⑤ 권제591 <本山豊前守安政父子戰功覺書>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섬기고, 조

선에서 가토 기요마사군의 선봉에 섰던 本山 豊前守 야스마사(安政, 처음 이름은 桑原平八郎, 히데요시의 의견에 따라 加藤清兵衛로 개명)와 그의 아들 本山 河内守 (大助, 아버지 사후 豊前守)의 戰功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本山 豊前 의 가신 桑原弥左衛門이 기록한 覺書이다. 모토야마 야스마사(本山安政)는 나중에 가토 기요마사를 떠나 가모 히데유키(蒲生秀行)를 섬겼고, 니혼마쓰(二本松)의 城代가 되었다. 進上한 날짜는 6월 28일 뿐이며, 본서의 성립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文祿·慶長の 役에서 가토 기요마사와 本山 부자의 동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 ⑥ 권제593(上) <脇坂記卷上>의 《脇坂記》은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한 戰記이다. 《脇坂家記》, 《脇坂家傳記》라고도 한다. 奥書에는 <寛永 19년(1642) 칠월 초하루>라고 적혀 있다. 저자는 불명이지만 脇坂家에서 작성한 것은 확실하다. 脇坂家の 계보이며, 야스하루가 경험했던 전투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목적은 야스하루의 戰功을 顯彰하는데 있지만, 기술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으며, 豊臣秀吉朱印狀 등이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文祿·慶長の 役에 관해서는 文祿 원년(1592)부터의 기술이 있고, 야스하루가 九鬼大隅守(嘉隆), 加藤左馬助(嘉明)과 함께 船手の 大將으로서 출진했던 부분부터 기록되어 있다.
- ⑦ 권제593(下) <脇坂記卷下>는 文祿 2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야스하루가 慶長 3년 6월 22일자로 3천석 加増의 感狀(豊臣秀吉朱印狀)을 받는 대목에서 끝난다.
- ⑧ 권제597 <關岡家始末>의 《關岡家始末》은 무로마치시대 중엽 이가노쿠니(伊賀國) 남부에서 세력을 펴고 있던 세키오카(關岡)씨의 내력과 그의 軍功에 대하여 軍記物語 풍으로 기술한 것. 말미에 元和 8년(1622) 9월 7일의 識語가 있으며, 세키오카씨의 후예인 요시자네(義實)의 아들 浮遊가 기타바타케(北畠)씨의 가신 도리오(鳥尾, 鳥尾屋) 石見守가 기록해 둔 가보를 재료로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文祿·慶長の 役에 관해서는 요시자네가 가토 기요마사군 소속으로 전공을 세우고 히데요시로부터 칼과 야마시로쿠니(山城國)의 枇杷庄 및 이세노쿠니(伊勢國)의 荒木地를 하사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교

續群書類從完成會 간행. 1923년.

《續群書類從》 第23輯(上) 合戰部

1. 내용

- ① 卷第646 下 <長曾我部元親記下>는 土佐의 戰國大名 長宗我部元親의 傳記. 《元親記》라고 약칭된다. 元親의 家臣 高島孫右衛門正重(重漸)의 著. 上·中·下 三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寬永 8년(1631) 5월 19일, 元親의 33주기를 맞이하여 영전에 바친 著作. 文祿·慶長の 役に 대해서는 下卷인 <高麗陣之事>, <高麗赤國陣之事>에 기술이 있다.
- ② 卷第647 <高橋記>는 <高橋紹運記>, <紹運記>, <九州兵亂記> 등의 호칭도 있다. 저자는 柳川立花家の 家臣 伊藤源右衛門入道一簑. 기술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또 소수이지만 고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성립은 慶安 4년(1651) 8월. 文祿·慶長の 役に 관해서는 <紹運公御緣邊之事>에 紹運의 實子로 戶次家に 들어간 統虎(立花宗茂)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기술이 있다.
- ③ 卷第650 <黑田長政記>는 黑田長政 13세의 初陣부터 세키가하라 전투(關ヶ原合戰)에서 東軍에 가세하여 승리한 것까지의 半生을 기록한 것이다. 작자·성립 연차는 不明. 文祿·慶長の 役に 대해서는 그 기술의 반을 차지한다.
- ④ 卷第652 <清正記卷一·二·三>은 肥前 熊本城主 加藤清正에 관한 傳記. 편저자는 古橋左衛門又玄. 全3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립기는 에도시대 초기 正保·慶安년간(1644~1652)으로 추정된다. 文祿·慶長の 役 中の 행동은 下川兵太夫·木村又藏이 쓴 것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다.
- ⑤ 卷第653 <加藤家傳清正公行狀>은 奇·正2卷으로 되어 있고, 작자·성립 시기는 不明. 清正 앞으로 보낸 秀吉 朱印狀 등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文祿·慶長の 役に 관한 기술은 奇卷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正卷에는 조선에 출진했을 때의 陣立과 軍律, 旗指物의 그림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교

續群書類從完成會 간행. 1924년.

《太閤記》

1. 내용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事蹟을 적은 기록. 오제 호안(小瀬甫庵) 著, 寛永 2년(1625) 自序, 22권. 권13~16은 文祿 원년(1592)에 시작하는 조선출병과 그 전말을 서술. 내용은 오무라 유코(大村由己)의 《天正記》 등을 소재로 문서·기록 따위를 엮어서 구성했는데, 제 13의 朝鮮陣에 관한 문서 등은 명백한 위조문서이다. 특히 에도막부의 눈을 의식해서 무리한 구성을 취한 것이 특징적이다. 史實을 改變하고, 특히 慶長の 役의 戰記에 관해서는 생략이 많으며, 明과의 교섭에 뜻을 둔 히데요시를 묘사했다. 조선에서의 철수는 기록하지 않았다.

- ① 권13은 <高麗陣起之事>부터 <三奉行都表に引き還す事>까지, ② 권14는 <將軍(秀吉)名護屋に於いて癸巳御越年之事>부터 <うるさんの事>까지, ③ 권15는 <賀藤(加藤)主計頭清正都表に至りて勢を入る事>부터 <朝鮮陣七年之事>까지이다. ④ 권16에서는 <遊撃將軍日本再渡之事>에서 明의 사절이 오사카에 온 사실을 기록하였다.

2. 비교

小瀬甫庵 著, 檜谷昭彦・江本裕 校注 《太閤記》(岩波書店 1996).

《大かうさまくんきのうち》

1. 내용

아즈치모모야마시대의 武士인 오타 규이치(太田牛一, 1527~1613)가 저술한 軍記物語. 내용은 高陽成(後陽成)천황의 德을 찬양하는 기사와 히데요시의 출세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關白 히데쓰구(秀次)의 할복, 三好實休・松永久秀・齋藤道三 부자의 몰락, 조선출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마지막에는 히데요시가 慶長 3년(1598) 다이고(醍醐)에서 꽃놀이를 하는 기사로 끝난다. 史實에 접근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2. 비교

慶長 연간(1596~1614)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自筆本(慶應義塾大學付屬研究所斯道文庫編)이 汲古書院에서 影印版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天正事錄>(《續群書類從》 雜部) 및 <太田牛一筆記>(東京大學附屬圖書館 소장)은 본 사료의 抄寫本을 다시 加筆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상 일치한다.

《大閣秀吉朝鮮征討記本》

1. 내용

근세 對馬藩의 외교승 規伯 玄方이 藩主 소 요시자네(宗義眞)에게 헌상했던 卷物 5本 중의 1本. 朝鮮國王(宣祖) 書契·日本國王(豊臣秀吉) 書契와 文祿·慶長の 役 관계 사료를 모았다. 한국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2. 비교

田代和生·李薰 감수 《朝鮮通信使記錄》 別冊(下)(對馬宗家文書 마이크로필름版第Ⅰ期, ゆまに書房 2000).

《大日本古文書 家わけ第二 淺野家文書》

1. 내용

내용상으로는 다른 大名家 문서와 비교하여 秀次朱印狀이 많으며, 또한 <淺野幸長高麗陣蔚山表覺書> 등 慶長 2년(1597) 12월부터 慶長 3년(1598) 정월에 걸친 蔚山城 전투에 관한 상세한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본서에는 文祿 2년(1593) 8월 6일자 淺野長政·増田長盛·石田三成·大谷吉隆(吉繼)宛 豊臣秀吉朱印狀寫를 비롯한 文祿 2년~慶長 2년의 秀吉朱印狀 13통, 文祿 원년(1592) 12월 7일자 淺野幸長 앞으로 보낸 豊臣秀次 朱印狀을 비롯한 秀次 朱印狀 7통, 기타 淺野長

政·幸長 書狀 등 15통, 합계 35통을 수록하고 있다.

2. 비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간행. 1906년(復刻版 1968).

《大日本古文書 家わけ第三 伊達家文書之二》

1. 내용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가 생모 保春院과 留守居 家臣 앞으로 보낸 조선의 戰況을 전하는 문서 등 伊達 집안에서 주고받은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秀吉 朱印狀은 없다.

天正 19년(1591)부터 慶長 3년(1598)의 伊達政宗 書狀 10점, (文祿 2년=1593) 卯月 28일자 伊達政宗 앞으로 보낸 加藤清正 書狀 외에 政宗宛書狀 5점, (文祿 2년) 5월 18일자 伊良子信濃 앞으로 보낸 最上義光 書狀寫, (文祿 2년) 5월 26일자 伊達政宗 앞으로 보낸 豊臣秀次 朱印狀 등 합계 17점이 있다.

2. 비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간행. 1908~1914년(復刻版 1969).

《大日本古文書 家わけ第五 相良家文書之二》

1. 내용

수록된 문서 중에는 秀吉 朱印狀이 적으며, 豊臣家 奉行人과 규슈의 각 大名 및 그의 家臣들이 사가라 요리후사(相良頼房, 長每)에게 보낸 문서가 많다. 天正 19년(1591)부터 慶長 2년(1597)에 걸쳐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비롯하여 많은 인물이 사가라 요시후사에게 보낸 書狀 합계 83점을 수록하였다. 또한 文祿 5년(1596) 3월 6일자 相良頼藏(左馬助) 앞으로 보낸 小西末郷 書狀과 慶長 2년 2월 21일자 相良頼房 앞으로 보낸 豊臣秀吉 朱印狀 외에 6점의 秀吉 朱印狀을 포함하여 합계 90

점을 수록하였다.

2. 비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간행. 1917~1918년(復刻版 1970).

《大日本古文書 家わけ第八 毛利家文書之三》

1. 내용

히데요시가 발급한 문서가 많다.他家 문서와는 달리 山陽道에 領國을 가진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에게 渡海 遞送 태세를 명한 문서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天正 19년(1591)부터 慶長 2년(1597)에 걸친 毛利輝元 秀吉 朱印狀 44점, (天正 20년=1592) 정월 5일자 豊臣秀吉 掟書 및 豊臣秀吉 禁制 7점, 天正 20년 3월 13일자 高麗渡海陣立書 등을 수록함과 아울러서 天正 20년부터 文祿 2년에 걸친 小早川隆景·毛利輝元 앞으로 보낸 豊臣秀次 朱印狀 9점을 포함하여 합계 73점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2. 비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간행. 1920~1924년(復刻版 1970).

《大日本古文書 家わけ第十一 小早川家文書之一·二》

1. 내용

고바야가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는 文祿의 役に 참가하고 文祿 4년(1595) 히데아키(秀秋)에게 家督을 물려주고 은퇴했기 때문에 慶長의 役に 관한 사료는 거의 없으며, 文祿의 役 관계 사료가 다수를 차지한다.

제1권에는 (天正 20년=1592) 정월 24일자 小早川隆景 앞으로 보낸 豊臣秀吉 朱印狀을 비롯한 秀吉 朱印狀 46점, 足利義昭 書狀 2점, 豊臣秀次 朱印狀 6점, (文祿 2년=1593) 5월 19일자 小早川隆景 앞으로 보낸 長東正家 書狀을 비롯한 奉行人 등의 書狀 13점, 합

계 65점을 수록하였다.

제2권에는 秀吉 朱印狀 1점, 豊臣氏奉行人連署奉書 1점 등 함께 4점을 수록하였다.

2. 비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간행. 1927년(復刻版 1971).

《大日本古文書 家わけ第十二 上杉家文書之二》

1. 내용

(天正 20년=1592) 12월 7일자 上杉景勝 앞으로 보낸 豊臣秀次 朱印狀 등 文祿의 役に 관한 문서 4점과 함께 慶長の 役に 관한 문서로서 (慶長 3년=1598) 9월 29일자 上杉景勝 앞으로 보낸 増田長盛 書狀을 수록하였다.

2. 비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간행. 1931~1963년(復刻版 1971~1973).

《大日本古文書 家わけ第十 島津家文書卷之一·二·三》

1. 내용

제1권은 天正 19년(1591)부터 文祿 2년(1593)까지의 島津義久 앞으로 보낸 秀吉 朱印狀과 天正 20년(1592)부터 慶長 3년(1598)까지의 島津義弘 앞으로 보낸 秀吉 朱印狀 등 함께 50점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제2권은 近衛前久 書狀, 秀吉 朱印狀, 豊臣氏 奉行人 등의 書狀·連署狀 등 함께 49점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제3권은 島津家 이외에게 보낸 秀吉 朱印狀 초안, (文祿 3년=1594의 것일 가능성이 높음) 9월 17일자 小西行長 앞으로 보낸 鍋島直茂 書狀 등 함께 17점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2. 비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간행. 1942~1966년.

《高根澤町史》史料編 1

1. 내용

栃木縣 高根澤町の 町史. 이 책은 원시·고대·중세의 사료를 수록했는데, 그 중에 <大和田重清日記>가 수록되어 있다. 大和田重清은 佐竹씨의 가신이며, 동 일기에는 文祿의役に 종군했을 때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2. 비고

高根澤町史編纂委員會 편찬. 高根澤町 간행. 1995년.

《高山公實錄〈藤堂高虎傳〉》上卷

1. 내용

《高山公實錄》은 高山院寒松 道堅, 즉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의 事蹟을 편찬·수록한 實錄. 성립은 寬文 4년(1664), 大神惟直의 편찬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다.

권4는 文祿 원년(1592), 도도 다카토라가 도요토미 히데야스(豊臣秀保)의 軍代로서 수하 2천을 거느리고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가토 시게카쓰(加藤茂勝, 嘉明) 등 여러 장수들과 함께 水軍 대장이 된 記事부터 시작하며, 慶長 2년(1597) 7월 7일, 다카토라는 재차 조선으로 건너가서 수군 총독이 되어 軍功을 세우며, 7월 10일자 高虎 앞으로 보낸 秀吉朱印狀을 받는 기사로 끝난다.

권5는 慶長 2년 7월 15일, 조선 수군의 병선 수천 척이 釜山과 唐島(巨濟島) 사이를 왕래하며 일본군의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도도 다카토라는 夜船을 출격시켜 조선 수군의 병선을 불태워 버린 일(巨濟島海戰)부터 시작하여, 동년 8월 15일 야습으로 明軍이 지키는 南原城을 공략하고, 히데요시로부터 感狀을 받았다는 기사로 끝난다.

권6은 忠靑道(靑國) 침공부터 시작하여 慶長 3년(1598) 5월 다카토라가 조선에서 귀국, 동년 7월 22일 후시미(伏見)에서 히데요시를 拜謁하고 1만석을 加増받아 도합 8만석이 되는 기사로 끝난다.

권7은 慶長 3년 8월 18일, 히데요시가 후시미에서 죽고, 조선에 주둔 중인 장수들은 철수하기로 했는데, 10월에 명의 大軍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다카토라가 하카타(博多)로 간 사실,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가 明軍을 격파하고 諸將이 귀국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교

清文堂史料叢書 제98. 上野市古文獻刊行會 편찬. 清文堂出版 간행. 1998년.

《多聞院日記》

1. 내용

나라(奈良) 興福寺의 승려 多聞院 英俊(1518~1596) 등의 일기. 일부 타인의 기술도 포함된다. 현존하는 기사는 文明 10년(1478)부터 元和 4년(1618)에 이른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興福寺 소장본을 비롯하여 몇 종의 사본이 있다. 중세부터 근세에 걸친 사회 변혁기의 사료로서 귀중하다. 히데요시의 대륙 정복 계획, 朝鮮通信使의 來日, ‘文祿의 役’과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아울러서 傳聞이기는 하지만 朝鮮陣의 동정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 비교

- ① 辻善之助 편찬 《多聞院日記》(三教書院 1935~1939) 전5책.
- ② 辻善之助 편찬 《多聞院日記》(角川書店 1967) 本編 5책·別卷 1책.
- ③ 竹內理三 편찬 《增補續史料大成》 제38~제42책·多聞院日記(臨川書店 1978) 전5책.

《朝鮮陣留記》

1. 내용

吉見元賴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간 下瀨賴直의 기록. 慶尙道에서 모리(毛利)軍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고

中野等 《朝鮮出兵期에 있어서 諸大名의 動向 및 그 領國에 관한 基礎的 研究》(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2004)에 翻刻되어 있다. 또한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이 <下瀨賴直朝鮮渡海日記>라는 제목으로 防長史談會編 《防長史學》 특집호(其の二)(1934)에 翻刻되어 있다.

《朝鮮日日記》

1. 내용

慶長の 役에서 분고노쿠니(豊後國) 우스키(臼杵)의 다이묘 오타 가즈요시(太田一吉)의 医僧으로 종군했던 우스키 安養寺의 승려 慶念의 종군일기. 慶長 2년(1597) 24일 出船하여 이듬해 3년 2월 2일 귀국에 이른다. 조선 각지에서의 이동과 전투 양상을 기록했는데, 특히 蔚山城 축성과 농성에 관한 기술이 상세하다.

2. 비고

- ① 北島万次 편찬 《朝鮮日日記・高麗日日記》(日記・記録による日本歴史叢書 近世編4, そして 1982).
- ② 朝鮮日日記研究會 편찬 《朝鮮日日記を読む－眞宗僧が見た秀吉の朝鮮侵略－》이 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法藏館 2000).

《言經卿記》

1. 내용

公家 아마시나 도키쓰네(山科言經)의 일기. 기사는 天正 4년(1576)부터 慶長 6년(1601)에 이른다. 天正 18년(1590)의 朝鮮通信使 來日 및 文祿의 役과 관련된 간략한 기사가 실려 있다.

2. 비고

- ① 東京大學史料編纂所 편찬 《大日本古記録》 言經卿記(岩波書店 1959~1991) 전11책.

《德川家康文書研究》 中卷

1. 내용

에도막부의 창설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발급한 문서를 섭렵하고 편년으로 배열했으며, 문서 1점마다 상세하게 해설을 붙인 사료집이다. 上·中·下之一·下之二 외에 拾遺集을 포함하여 全5冊. 조선출병 관계 사료는 中卷의 文祿 원년(1592)부터 慶長 4년(1599)에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편년 순으로 中村一氏 앞으로 보낸 書狀 1점, 松井康之 앞으로 보낸 書狀 1점 등 함께 21점을 수록하였다. 이에야스가 단독으로 발급한 것은 이에야스가 친밀하게 지내던 諸大名과 그 家臣들에게 보낸 것이며, 大老連署狀은 히데요시 사후의 전후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2. 비고

- 中村孝也 저. 日本學術振興會 간행. 1959년.

《中川家文書》

1. 내용

분고노쿠니(豊後國) 岡城主 中川家の 家文書. 이 사료집은 神戸大學文學部 日本史研究

室이 소장한 中川家文書 전체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天正 19년=1591) 3월 13일자 木下勝俊·木下俊房·中川秀政 앞으로 보낸 豊臣秀吉 朱印狀 등의 秀吉 朱印狀 16점을 비롯하여 합계 21점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2. 비고

神戸大學文學部日本史研究室 편찬. 臨川書店 간행. 1987년.

《南部家文書》

1. 내용

난부(南部)씨는 가마쿠라시대 이래의 武士이며, 天正 18년(1590) 노부나오(信直) 때 히데요시로부터 무쓰노쿠니(陸奥國) 南部內 7郡의 領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근세 다이묘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그의 家文書이다.

난부 노부나오(南部信直)가 히데요시의 조선출병이 시작된 사실을 노부나오의 딸 치요코(千代子)에게 전하는 南部信直 書狀 등 4점을 수록했지만 히데요시의 朱印狀은 없다.

2. 비고

鷲尾順敬 편찬. 吉野朝史蹟調査會 간행. 1939년.

《日本戲曲全集》 第二卷 並木正三集

1. 내용

近松徳三作 <けいせい廓源氏>는 享和 2년(1802) 정월, 大坂中の 연극 初演. 마사바 히사키치(眞柴久吉, 羽柴秀吉)가 조선국 정벌을 결심하고, 가토(加藤)·고니시(小西)를 비롯한 諸將에게 大軍을 주고 공격을 명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2. 비고

渥美清太郎 편찬. 春陽堂 간행. 1929년.

《日本戰史 朝鮮役》

1. 내용

《日本戰史》는 參謀本部에서 편찬한 戰史研究書. 戰國時代의 주요한 전투를 뽑아서 明治 말년부터 大正 연간(1912~26)에 걸쳐 13권이 간행되었다. 전쟁 전의 형세, 작전, 전후의 동정 및 결과의 순서로 기록했으며, 補傳으로서 出典의 일부를 원문사료로 게재하였다.

① 《日本戰史朝鮮役》은 제1편 <起因 및 戰役 전의 形勢>, 제2편 <前役>, 제3편 <講和>, 제4편 <後役>, 제5편 <結果>의 순서로 구성했으며, ② 《日本戰史朝鮮役 附記》는 제1 <兵制, 兵器 및 築城>, 제2 <給養, 兵站 및 衛生>, 제3 <運輸, 通信 및 船舶>, 제4 <軍紀 및 風紀>, 제5 <民政 및 賑恤>의 구성이다. 아울러서 ③ 《日本戰史朝鮮役 文書》, ④《朝鮮役補傳》가 부기되어 있다.

2. 비고

參謀本部 편찬. 村田書店 간행. 1978년(初版은 1924년).

《日向記》

1. 내용

이토(伊東)씨의 시조부터 寬永 13년(1636)에 이르는 동안의 伊東씨 역대실록.

권1 <工藤伊東開基之事>부터 권13 <祐慶主逝去祐久主家督ノ事>에 이르기까지 184項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序 및 後叙에 따르면, 永祿 초년 오치아이 가네토모(落合兼朝)가 집성한 것을 토대로 天正 18년(1590) 落合伊賀 入道가 再補하였고, 다시 海老原爲誠·田丸信成 등이 後補修飾을 추가했다고 한다.

朝鮮出兵에 관해서는 권11 <高麗御渡海並働事>, <高麗陣中領地ノ高ヲ舉ル事 附河崎駿河守御目見ノ事>에 기술되어 있다. 다수의 秀吉 朱印狀을 수록했으며, 이를 기초로 기술하고 있다.

2. 비고

- ① 日向郷土史料集刊行會 편찬 <<日向郷土史料集 제2권>>(日向郷土史料集刊行會 1962).
- ② 宮崎縣 편찬 <<宮崎縣史叢書 3 日向記>>(宮崎縣 1999).

《프로이스 日本史》 2 豊臣秀吉篇 II

1. 내용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의 來日에서부터 文祿 원년(1592) 무렵까지 40여년 동안의 일본 예수회 布敎史이다. 16세기 후반에 약 30년간 일본에 머물렀으며,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위정자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가졌던 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가 집필한 1급 사료이다.

- ① 제34장은 關白 히데요시가 明 정복의 야심을 품었던 내력, 아울러서 조카(도요토미 히데쓰구)를 후계자로 삼고 자신은 關白의 顯職을 물러나서 그 호칭을 조카에게 준 것.
- ② 제35장은 明 정복사업에서 일본 諸侯의 고난 및 히데요시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우선 明과 인접한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결의한 내력.
- ③ 제36장은 조선국의 描寫 및 아고스티노(小西行長)가 그의 함대를 이끌고 선발대로 나선 내력.
- ④ 제37장은 조선을 향하여 출발한 아고스티노(行長)가 몇몇 성을 공격하고, 크게 분투하며 軍勢로써 그들을 굴복시킨 것. 아울러 그곳에서 그가 획득한 명예에 대하여.
- ⑤ 제38장은 아고스티노(行長)가 조선의 ‘수도’ 입성에 앞서서 일어난 일.
- ⑥ 제39장은 老關白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건너가는 일을 回避한 내력, 그리고 일본측의 전투력이 쇠미하고 약화되어 간 내력.
- ⑦ 제40장은 明軍과 조우한 아고스티노(行長)가 野戰을 치르며 승리한 일에 대하여.

- ⑧ 제41장은 明軍과 일본군의 전투 및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 ⑨ 제42장은 行長의 家臣들이 아고스티노(行長)에게 平安(平壤)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일 및 그에 얽힌 다른 사건에 대하여.
- ⑩ 제43장은 일본군이 조선의 ‘수도’를 포기한 일, 아울러서 아고스티노(行長)가 和平協定을 논의하기 위하여 2명의 明使를 동반하고 나고야로 간 내력.
- ⑪ 제44장은 老關白 히데요시가 明의 使節에게 준 회답 및 그 후 아고스티노(行長)가 조선군에게서 얻은 행운의 승리. 그리고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 ⑫ 제45장은 文祿 2년(1593), 히데요시가 명한 몇 가지 일에 대하여.

2. 비고

松田毅一·川崎桃太 번역, 中央公論社 간행, 1977년. 후일 中公文庫에 수록되었다.

《豊太閤征韓秘録》 第1集

1. 내용

- ① <朝鮮征伐記> 제1~제4는 文祿의役に 관한 기록이며,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의 문하생 호리 세이(堀正意, 杏庵)이 万治 2년(1659)에 정리한 것.
天正 18년(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복속을 강요한 일, 文祿의役에서 漢城 함락, 小西行長의 平壤 점령, 明 제독 李如松의 平壤 공격과 小西行長의 패퇴, 加藤清正의 咸鏡道 침입, 日明 강화교섭 등의 기술이 있다.
- ② <吉野日記>는 별명이 ‘高麗もろこしの草子’이며, 마쓰우라 시게노부(松浦鎮信)의 가신 吉野甚五左衛門의 일기이다. 文祿 2년(1593)에 성립.
- ③ <南大門合戰記>는 작자는 구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의 가신 天野源左衛門. 立花家を 섬기면서 조선으로 건너갔고, 나중에는 志摩守의 영주 데라자와 히로타카(寺澤廣高)를 섬기며 8천석을 받았다. 다치마나 무네토라(立花宗虎, 宗茂) 휘하에 속해 있던 아마노(天野)가 文祿 2년 정월의 碧蹄館 전투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 ④ <征西日記>는 외교승 天荊가 文祿의役 때 小西行長·宗義智 부대에 종군했던 당시의 일기. 기사는 文祿 원년(1592) 3월 12일부터 동년 8월 10일에 이른다.
天荊은 博多 聖福寺의 승려 景轍 玄蘇 등과 함께 조선 외교승으로서의 경험을 갖

고 있으며, 그의 문필 기술로써 중군했고, 조선 민중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榜文을 쓰거나 조선군과 군사상 협상을 할 때 교섭문을 쓰기도 했다.

2. 비교

松本愛重 纂輯. 成歡社 간행. 1984년.

《綿考輯錄》 第1卷 藤孝公·第2卷 忠興公(上)

1. 내용

《綿考輯錄》은 《細川家記》로 부르기도 하는 히고(肥後)의 구마모도(熊本) 藩主 호소카와(細川)씨의 家史. 전73권. 小野武次郎 景湛 편찬, 天明 2년(1782)에 淸書하였다.

제2권은 文祿 원년(1592) 봄, 히데요시의 ‘朝鮮征伐’ 軍令에서부터 시작하며, 주로 文祿의 役의 事蹟이 기록되어 있다. 忠興宛秀吉朱印狀 사본, 細川家の 家老 松井佐渡守宛 家康書狀寫 등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또한 <宮本家記>, <家忠日記>, <松井家記>, <征伐記>, <淸正記>, <沼田家記> 등과 校습이 이루어져 있다.

2. 비교

石田晴男·今谷明·土田將雄 편찬. 汲古書院 간행. 1988년.

《八代歴史와 文化 17 小西行長 -Don Agostinho-》

1. 내용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발급했던 문서 중에서 현재 소재 및 내용이 확인된 자료를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 東京大學史料編纂所가 소장한 <島津家文書>, 慶應義塾大學圖書館이 소장한 <相良家文書>, 長崎縣立對馬歴史民俗資料館이 소장한 사료, 《大日本古文書》에 수록된 <吉川家文書>·<相良家文書>·<淺野家文書> 등에서 관계 문서를 수록하였다. 모두 90점이며, 일부 畫像도 게재하였다. 宗氏와 유키나가의 대조선 교섭과

조선침략에서 유키나가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료군이다.

2. 비고

八代市立博物館 未來の森ミュージアム 편찬·간행. 2007년.

《歷代古案》

1. 내용

에치고(越後)의 우에스기(上杉)씨 및 그 家臣家의 고문서를 筆錄한 것. 米澤市立圖書館 소장 10책본. 에치고의 戰國·아즈치모모야마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이다. 우에스기 가게카쓰(上杉景勝)의 가신 이즈미사와 히사히데(泉澤久秀)가 伊勢의 御使 藏田左京亮에게 보낸 書狀 중에서 가게카쓰의 熊川城 축성공사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2. 비고

《史料纂集》 古文書編 25, 26, 29, 33, 34. 羽下德彦·阿部洋輔·金子達 校訂. 續群書類 從完成會 간행.

Ⅲ. 近世

《明石藩朝鮮國信使折件記錄 (明石市史資料 第二集)》

1. 내용

明石藩(越前家 松平氏)이 正德·享保·寬延·明和年度の 朝鮮通信使를 영접할 때의 기록 및 관련 자료가 상하권으로 나누어 翻刻되어 있다.

상권에는 正德 원년(1711)의 기록으로 <朝鮮人御馳走日記>(5책), <朝鮮人來聘二付町中御觸之寫>, <淀川船中京都大佛御菓子被下覺>, <朝鮮信使行列>이 있고, 享保 4년(1719)의 기록으로는 <朝鮮人明石表通船御用日記>(3책), <朝鮮人明石表通船之節引船留帳>, 寬延 원년(1748)의 기록으로는 <朝鮮人明石表通船御用日記>(4책)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信使行列>은 通信使의 대열을 문자로 圖示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通信使의 통행 및 접대에 임할 때의 준비사항에 관한 기록이다.

하권에는 明和 원년(1764)의 기록으로 <朝鮮人御用帳面>, 天和 2년(1682)의 기록으로는 <朝鮮人來朝記>, <朝鮮人來朝二付公義御書出覺>, <朝鮮人來聘付大磯御馳走覺>, <朝鮮人來朝之控>, 付編으로 <江漢筆談>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모두 通信使의 통행 및 접대에 관한 준비사항을 기록한 것이지만, 通信使의 書狀과 漢詩 등도 수록되어 있다. <江漢筆談>은 正德 원년의 通信使 來聘 때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通信使와 東本願寺에서 대면했을 때의 기록이다.

2. 비고

明石市教育委員會 간행. 1981년.

《雨森芳洲關係資料調查報告書》

1. 내용

① 圖版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書簡과 宗家文庫史料 등의 寫眞版이다.

② 宗家文庫史料(翻刻)는 雨森芳洲, 雨森鵬海, 雨森涓庵, 松浦桂川, 雨森蘭洲, 雨森何有, 雨森桂山, 雨森龍山(二橋), 雨森舳洲, 松浦霞沼, 松浦龍岡, 陶山訥庵 등 조선과의 교섭, 朝鮮使節 來聘에 관계된 인물에 대하여 각각 宗家文庫의 記錄類·日記類에서 관련 기사를 뽑아 기록하였다.

2. 비고

滋賀縣教育委員會 편찬. 高月町立觀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 간행. 1994년.

《新居町史》 史料編 3

1. 내용

朝鮮通信使가 지나갔던 東海道の 今切の渡·新居宿의 通信使 동행에 관한 사료 ①~⑦을 수록하였다.

①<享保四年朝鮮人來往新居宿寄船村々帳>, ②<延享四年來辰朝鮮人來朝時の賄代官, 官人宿修覆>, ③<延享四年來辰朝鮮人來朝の村繼廻狀>, ④<延享五年來朝二付差上書付並御舳書覺>, ⑤<延享五年朝鮮人來朝時の御用人馬, 御手代様方兩年分扣>, ⑥<寛延元年延享中朝鮮人來朝時の船路築出しの件>, ⑦<寶曆十二年來未年朝鮮人來朝二付諸事控帳>.

2. 비고

新居町教育委員會 편찬. 靜岡縣浜名郡新居町 간행. 1972년.

《新井白石全集》

1. 내용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전집. 전7권. 제1·2권에는 <藩翰譜> 및 <藩翰譜續編>이, 제3권에는 수필 <折りたたく柴の記>와 역사서 <古史通>, <讀史余論>, 地誌 <南島志>, <蝦夷志> 등을 수록했다. 외교관계 略史인 <五事略>에는 조선·중국을 비롯하여

異國과 주고받은 書式에 대한 기술이 있다. 제5권에는 <白石先生遺文>, <白石先生手簡> 등의 書簡·遺文集과 <白石詩草>와 같은 詩文集이 수록되어 있다. 제4권에는 조선관계 저작을 정리해서 수록했으므로 이하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東雅>, <東音譜>, <同文通考>는 일본·중국의 언어, 발음, 단어의 유래 등에 대하여 해설한 책이다. <朝鮮聘禮事>, <朝鮮信使進見儀注>, <朝鮮信使賜饗儀注>, <朝鮮信使辭見儀注>는 正德 通信使를 맞이할 때의 취급 기록이다. 信使의 좌석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 것 등을 포함한다. <奉命教諭朝鮮使客>는 正德 信使에게 지시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朝鮮國信書之式之事>는 외교문서와 <國王>, <大君> 호칭에 관한 하쿠세키의 견해를 서술한 것이다.

<朝鮮信使議>, <朝鮮聘使後議>에 수록된 新井白石書狀은 日朝 간의 외교의례와 對馬에서의 易地聘禮策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朝聘應接記及抄譯>은 申叔舟의 《海東諸國紀》 중에서 일본 사신이 조선에서 응접을 받는 기사만을 뽑아서 고찰한 것이다.

<朝鮮冠服之事>는 通信使의 公服, 常服, 禮服 등 의례에 적합한 복장을 소개하였다. <國書復号記事>에는 對馬藩主의 書狀과 朝鮮國書 등이 編年順으로 수록되어 있다. <以酌庵事議草>는 禪僧이 외교문서의 기초를 주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연혁을 설명하면서 고찰한 것이다. <坐間筆語>은 通信使를 위하여 행했던 樂奏에 관한 기록. <江關筆談>은 하쿠세키 자신이 通信使가 숙박하고 있던 本願寺를 방문하여 주고받았던 문답을 기록한 것이며, 필기는 趙泰億이 하였다. <白雉帖>은 將軍이 通信使에게 증여한 병풍의 畫贊이다.

<西洋紀聞>, <采覽異言>은 하쿠세키가 로마인 선교사 시도치를 심문했을 때의 기록을 기초로 집필한 地理書이다.

2. 비고

今泉定介 편집·교정. 吉川半七 간행. 1905~1907년.

《異本隣語大方·交隣須知》

1. 내용

조선어와 일본어를 對譯한 文例集 <隣語大方>과 단어집인 <交隣須知>의 異本 몇

종류를 影印 출판한 것.

- ① 京都大學 소장 苗代川寫本 <隣語大方>은 일본에서 對馬의 譯官들이 조선어 학습에 사용했던 책의 계통을 이은 에도시대의 사본으로, 사쓰마(薩摩)의 苗代川에게 전해진 것이다(현재는 京都大學 소장).
- ② 京都大學 소장 苗代川寫本 <講話>도 마찬가지로 사쓰마의 苗代川에게 전하는 사본이며, 일본인을 위하여 에도시대 말기에 작성된 조선어 학습서이다.
- ③ 明治 15년 外務省 所藏版 <隣語大方>은 明治 15년(1882)에 外務省이 活字 翻刻한 <隣語大方>이다.
- ④ 明治 16년 外務省藏板 <交隣須知>와 ⑤明治 16년판 寶迫繁勝 刪正 <交隣須知>는 明治 16년(1883), ⑥明治 37년판 前間恭作 교정 <交隣須知>는 明治 37년(1904)에 版行된 <交隣須知>이다.

2. 비교

京都大學國語學國文學研究室 편찬. 京都大學國文學會 간행. 1967년.

《岩國藩(吉川家)正徳度朝鮮通信使歸帆記》

1. 내용

正徳度 朝鮮通信使(復路)의 응접에 관한 岩國藩 吉川家の 기록이다. 通信使가 에도를 출발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 岩國藩 쪽에서 응접 준비를 시작한다. 이 응접 준비를 할 때의 질의서와 지시, 通信使 통행에 관한 예고, 파견된 役人들의 照會書 등의 일괄서류가 수록되어 있다.

2. 비교

上關町古文書解讀會 편찬. 上關町教育委員會 간행. 1997년.

동일한 通信使의 往路에 관한 사료로서 上關町古文書解讀會가 편찬한 《吉川藩正徳度朝鮮通信使來聘記》(上)(下) (上關町教育委員會, 1997년)가 있다.

《牛窓町史》 資料編 1 美術·工藝·建築

1. 내용

이 책에는 <朝鮮人渡海船之圖>(개인 소장, 이하 별도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함), 狩野榮川の <釜山富士>, <槎路勝區圖畫集>(韓國國立中央博物館 소장), <朝鮮通信使上關來航圖>(山口縣 上關町 超專寺 소장), <朝鮮人來朝覺備前御馳走船行烈圖>, <尼崎藩の通信使迎接船圖>(尼崎市 櫻井神社 소장), <朝鮮通信使國書先導船屏風>, <朝鮮通信使御樓船圖屏風>, <朝鮮通信使上判事第一船圖>, <朝鮮通信使船松平隱岐守御馳走船圖>, <朝鮮通信使上上官第三船圖>, <朝鮮通信使川御座船圖屏風>, <朝鮮通信使上上官船圖>(宇和島 伊達文化保存會 소장), 英一蝶筆의 <馬上揮毫圖> 등 그밖에 조선인을 묘사한 印籠과 扇面 등의 기물을 수록하고 있다. 모두 컬러 圖版이며, 적절히 확대한 사진도 수록하였다.

2. 비고

牛窓町史編纂委員會 편찬. 牛窓町 간행. 1996년.

《影印本 異國日記》

1. 내용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 히데타다(秀忠) - 이에미츠(家光) 3대를 섬겼고, 막부의 외교문서 초안에 관여했던 南禪寺 주지金地院 崇傳의 손을 거쳤던 일괄사료를 影印本으로 출판한 것. 朱印船 무역을 포함하며, 근세 전기의 대외교섭에 관한 일급사료로 알려져 있다.

- ① <異國日記>(上)에는 元和 3년(1617)에 조선의 三官使가 귀국할 때 崇傳에게 준 물건, 같은 해 朝鮮通信使가 일본국왕 앞으로 보낸 書簡과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返書, 寬永 원년(1624)의 朝鮮通信使와 관련된 각종 사료, 寬永 4년(1627)의 ‘朝鮮에 韃靼 침입’의 풍문에 관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 ② <異國日記>(下)에는 ‘韓使贈答日錄’으로서 慶長 때의 通信使 관계 사료와, 朝鮮國

禮曹로부터 柳川一件 해결에 관한 書狀을 수록했다. <日朝東覽>에는 조선으로 보내는 문서에 사용하는 文言과 書札禮에 관한 注記, 寬永 원년의 조선국왕과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왕복문서, 三使가 金地院 崇傳에게 보내는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元和, 寬永, 明曆 때의 通信使 관계 文書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朝鮮國 禮曹 앞으로 보낸 문서(正保 2년=1645, 조선에서 호송한 漂着 中國船 중에 기독교도를 발견했다는 보고)도 볼 수 있다.

- ③ <異國渡海御朱印帳>, ④<異國近年御書草案>, ⑤<異國御朱印帳>은 朱印狀을 발급지역 별로 정리한 것이며, 말미에 <朝鮮日本より御音信物>이 포함되어 있다.
- ⑥ <異國日記御記錄雜記>는 正德 3년(1713)에 아라이 하쿠세키가 寺社奉行을 통하여 金地院에게 <異國日記>를 필사·제출시킨 경위를 기록한 것이다.
- ⑦ <參考圖版>을 附記하였다.

2. 비고

異國日記刊行會 편찬 《影印本 異國日記－金地院崇傳外交文書集成－》(東京美術, 1988년). 底本은 金地院 所藏本.

《影印本 津島日記》

1. 내용

주자학자이며 漢詩人인 구사마 하이센(草場佩川)이 對馬에 체류할 때 적은 일기의 影印本. 기사는 文化 8년(1811) 5월부터 7월까지에 이른다. 기술 내용은 對馬에 관한 것, 朝鮮通信使 및 조선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상·중·하 3권 3책이다.

上卷에서 對馬에 관한 것으로 <對馬島全圖>, <府中圖>, <府中湊圖>를 비롯한 그림 및 <對馬島總說>로서 地誌에 대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中卷에서 조선 관계에 대한 것으로는 朝鮮通信使 행렬을 그림으로 표시한 <上使行列之略>, <副上使行列之略>과 馬上人物 및 樂隊, 正使를 태운 가마 등을 묘사한 <信使鹵簿圖>, 朝鮮國王이 보내는 書簡, 國書 증답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다.

下卷에는 國書의 書札禮를 보여주는 그림과 國書를 담은 상자 그림, <客館圖>(通信使의 숙소), <服飾圖>, <食器圖>, <韓船仰面圖>, <朝鮮佛像> 등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또 後部에는 <平助國公碑碣>로서 永祿 10년(1567)에 以酹庵 승려가 기록한 宗助 國에 관한 碑文을 수록하였다.

2. 비교

草場佩川 著. 秀村選三他 편찬. 西日本文化協會 간행. 1978년.

活字 翻刻된 것이 <草場佩川日記>라는 書名으로 간행되었다(별항 참조).

《江戸藩邸毎日記 對馬宗家文書 第Ⅱ期》

1. 내용

對馬宗家文書 시리즈 제Ⅱ기로서 東京大學史料編纂所가 소장한 江戸藩邸毎日記 490 책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것이다. <江戸藩邸毎日記>란 對馬藩의 江戸藩邸에서 기록한 日記이다. 寛永 5년(1628)부터 慶應 3년(1867)까지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別冊에는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한 문서의 목록과 함께 慶應義塾圖書館本 <對馬宗家文書·雜集目錄>과 관련 論考가 수록되어 있다.

2. 비교

田代和生 감수. ゆまに書房 간행. 2001~2003년.

《愛媛縣史》 資料編 近世 (下)

1. 내용

寛永 20년 7월 7일 <朝鮮使節馳走役>은 <加藤家年譜(上)>에 있는 朝鮮使節馳走役 拜命에 관한 것이다. <馳走役·朝鮮使節接待拜命>은 <藤蔓延年譜>에 있는 延寶 3년(1675)~文化 5년(1808)까지의 參向 公家衆 御馳走役과 朝鮮使節의 接待役 拜命에 관한 기록이다. <朝鮮使節接待諸經費>(浦上家文書)는 延享 5년(1748)의 朝鮮使節 접대에 들 어간 비용 보고서이다.

2. 비고

愛媛縣史編纂委員會 편찬. 愛媛縣 간행. 1988년.

《大磯町史》 2 資料編 近世 (2)

1. 내용

朝鮮通信使 접대에 관한 사료를 모았다. ①(享保 5년=1720) 3월 <朝鮮通信使通行につき馬入船入用金の書上>, ②延享 5년(1748) 6월 <朝鮮通信使通行につき大磯宿助郷組合村々の人馬負擔書上>, ③寶曆 14년(1764) 정월 <朝鮮通信使通行につき御用出役人の大磯宿旅館宿割書>, ④寶曆 14년 정월 <朝鮮通信使通行につき御用日記>의 합계 4점을 수록하였다.

2. 비고

大磯町 편찬. 大磯町 간행. 1999년.

《岡山縣史》 第二十四卷 岡山藩文書

1. 내용

享保 4년(1719)의 通信使 관계 사료를 수록하였다. 岡山藩 池田家文庫(岡山大學付屬圖書館 소장)의 일괄사료 <來朝歸帆共朝鮮人御用留帳> 10~16이며, 岡山藩이 通信使 응접을 어느 정도 맡았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通信使에 대한 書簡類, 宿札, 幕府와 주고받은 왕복문서(通達과 稟議), 對馬藩과 주고받은 왕복문서, 岡山藩 役인에 대한 通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고

岡山縣史編纂委員會 편찬. 岡山縣 간행. 1982년.

《折りたく柴の記》

1. 내용

이 책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자서전이다. 享保 원년(1716) 起筆. 자신의 성장 과정부터 시대 정세, 막부의 정책, 문예 등 다양한 내용에 걸쳐서 기록하였다. 상·중·하 3책이다. 이 중에서 中卷에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하쿠세키의 견해의 ‘大要’가 언급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朝鮮通交의 역사와 ‘大君’, ‘國王’ 칭호에 대한 각종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고

新井白石 著 《折りたく柴の記》(岩波書店 1999).

《外交志稿》

1. 내용

明治 17년(1884) 外務省에서 간행한 대외교섭사. 본문과 연표 2책. 편찬 동기는 明治 10년(1877) 가을, 외무성 기록국장 渡邊洪基가 外交事蹟의 專書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당시의 外務卿 寺島宗則·外務大輔 鮫島尙信에게 건의한 것이 단초이며, 동년 12월부터 외무성 御用掛 北澤正誠(전 修史局 3등修撰) 등이 작업에 들어갔고, 약 3년에 걸쳐서 《日本書紀》 이하의 國書, 중국·조선 등의 外國史籍 200여점을 섭렵, 國初부터 幕末의 和親條約을 체결하던 무렵까지의 外交史實을 편년체로 기술하고 14년에 원고를 마쳤으며, 여기에 《外交志略》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 3년간 改稿를 거듭했는데, 여전히 만전을 期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書名에서 <志略>을 <志稿>로 고치고 일단 간행하기로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交聘·戰爭·版圖沿革·漂流·歸化移住·學術宗教·贈酬·貿易의 8편으로 나누고, 이들 각편을 朝鮮·漢土·肅慎渤海·西南諸國·歐羅巴諸國 및 亞米利加的 나라별로 編述하였다.

그리고 <卷十一 版圖沿革篇 第一 朝鮮>은 고대에 관한 기술뿐이다.

[本文編] 1책

- ① 卷一 交聘篇 第一 朝鮮
- ② 卷六 戰爭篇 第一 朝鮮
- ③ 卷十二 漂流篇 第一 朝鮮
- ④ 卷十七 歸化移住篇 第一 朝鮮
- ⑤ 第二十一 學術宗教篇 第一 朝鮮
- ⑥ 第二十五 贈酬篇 第一 朝鮮
- ⑦ 卷三十 貿易篇 第一 朝鮮

[年表編] 1책

- ① 卷三十七 年表 第四
- ② 卷三十八 年表 第五

2. 비고

外務省 記録局 편찬. 外務省 간행. 1884년. 이 책은 本文編 1책·年表編 1책의 합冊이다. 國立國會圖書館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華夷變態》

1. 내용

《華夷變態》라는书名은 명이 망하고 淸이 명을 대신해서 중국을 통치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林春齋 <華夷變態序>). 中國船과 네덜란드船이 보고하는 風說書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對馬와 薩摩에서 올리는 注進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동아시아 정보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조선관계 사료를 摘錄한다.

권1 에는 ‘兵亂傳聞二通’으로 ‘朝鮮東萊之人’이 對馬에서 이야기한 記事를 싣고 있다. 이 기사에는 명의 잔당인 吳三桂와 淸의 공방전 양상을 전하고 있다. 권2에는 ‘吳三桂逆心企之次第’, 권3에는 ‘朝鮮傳說二通’, ‘對馬注進’, ‘朝鮮國之風說’, ‘朝鮮譯官覺書’, 권4에는 ‘朝鮮風說’, ‘唐亂に付朝鮮にての風說’, ‘朝鮮譯官答對馬州家臣書’, 권7에는 ‘宗對馬守

朝鮮注進三通’, ‘宗對馬守よりの注進’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가 조선을 경유하여 전해진 明清 교대에 관한 풍문이다.

下冊에는 《華夷變態》의 續編인 <崎港商說> 3권, 島原市立圖書館 松平文庫의 《華夷變態》 제37권, 補遺, 付録이 수록되어 있다. 補遺에는 內閣文庫本 《華夷變態》에서 볼 수 없는 기사를 松平家 소장본에서 摘錄하였다. 또 付録에는 <島原本唐人風說書>, 山口縣 文書館이 소장한 唐人漂着史料 4점을 기재하였다.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上冊 권1~권14(正保 원년~貞享 5년)
- ② 中冊 권15~권23(貞享 5年~元祿 9년)
- ③ 下冊 권24~권35(元祿 10年~享保 2년),
<崎港商說> 권1~권3(享保 2년~동 7년),
松平家本 <華夷變態> 권37(享保 7년~享保 9년), 補遺, 付録

2. 비교

榎一雄 편찬 《華夷變態》(東方書店 1981 增補再版, 初版은 1958).

1958년의 初版에는 上記 <島原本唐人風說書>와 山口縣 文書館이 소장한 唐人漂着史料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神奈川縣史》 資料編 9 近世 (6) 交通·産業

1. 내용

延享 4년(1747) 8월 <朝鮮人來朝の節船橋架設につき書上>은 朝鮮使節 통행을 위하여 酒匂川 船橋 御用을 下命받은 谷ヶ村가 船橋架設 御用の 면제를 小田原藩廳에 신청한 내용이다.

2. 비교

神奈川縣企畫調査部縣史編集室 편찬. 財團法人神奈川縣弘濟會 간행. 1974년.

《歌舞伎脚本集》 上

1. 내용

3種의 歌舞伎 각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並木正三 作 <韓人漢文手管始>는 明和 원년(1762), 鈴木傳藏의 ‘崔天宗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된 것. 寬政 원년(1789) 7월 17일에 大坂에서 상연이 개시되었다. 崔天宗은 ‘唐人組みの仲仕頭, 西天の宗九郎’, 鈴木傳藏은 ‘今木傳七’로 극중에 등장한다.

2. 비고

日本古典文學大系 53. 浦山政雄・松崎仁 편찬. 岩波書店 간행. 1960년.

《龜井南冥・昭陽全集》 第一卷

1. 내용

福岡藩의 유학자 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와 그의 아들 쇼요(昭陽) 全集. 제1권에 수록된 <泱泱餘響>은 가메이 난메이가 寶曆 13년(1763)에 朝鮮通信使와 筑前の 相島에서 대면했을 때 唱和・筆談을 기록한 것이다. 난메이와 詩文을 응수했던 사람은 書記官 南玉, 成大中, 元重舉, 金仁謙 등 모두 4명이다.

2. 비고

龜井南冥・昭陽全集刊行會 편찬. 葦書房 간행. 1978년.

底本은 京都大學 소장본(影印)이며, 규슈대학 소장본과 慶應義塾大學 소장본으로 異同을 표시했다.

《吉川藩正徳度朝鮮通信使來聘記》

1. 내용

正徳 때의 朝鮮通信使(往路) 응접과 관련된 岩國藩 吉川家の 기록이다. 信使 來聘 정보가 전해지면 통신사를 맞이할 때 어떤 예절로 응접해야 하는지, 또는 식사 준비, 통신사에게 주는 선물 따위에 관하여 다른 藩과 막부에 질의서를 올리는 등 岩國藩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서에는 이처럼 잡다한 사항에 대한 질의서와 아울러서 통신사에 대한 贈答 詩, 上關에 파견된 役人들의 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비고

上關町古文書解讀會 편찬. 上關町教育委員會 간행. 1997년.

같은 통신사의 復路에 관한 기록으로서 上關町古文書解讀會 편찬 《岩國藩(吉川家)正徳度朝鮮通信使歸帆記》(上關町教育委員會 1997)가 있다.

《岐阜縣史》 史料編 近世 7

1. 내용

- ① 嘉永 5년 12월 <墨俣宿御通行増方願書>는 嘉永 5년(1852), 美濃路의 墨俣宿에서 清須宿까지 本陣·脇本陣이 최근에 특히 감소한 諸家の 通行 회복을 희망하며 道中 奉行에게 탄원한 내용이다. 그 중 한 문장에 “尤美濃路之儀は御上洛御通筋, 御茶壺·紀州樣御通行, 其外朝鮮人·琉球人參向歸國共, 定式之道筋, 全東海道續ニて御用相勤來申候”라고 되어 있다.
- ② 享保 3년 5월 <朝鮮人來朝格式申上書>는 이듬해인 享保 4년(1719) 朝鮮 使節의 來訪을 앞두고 天和 연간의 시설·영접 격식에 관하여 下問이 있었으므로, 垂井村庄 屋·年寄가 天和·正徳의 격식을 上申하려고 작성한 문서의 초안이다.
- ③ 付録 第8圖는 將軍 도쿠가와 이에시게(徳川家重)의 寬延 원년(1748) 6월, 朝鮮信使 洪啓禧 일행 477명이 美濃路의 佐渡川(揖斐川)을 지날 때 건설했던 舟橋를 그린 것이다.

2. 비교

岐阜縣 편찬·간행. 1971년.

《近世日本における外國使節と社會變容 ②延享度『信使記録』を讀む》

1. 내용

이 책에는 慶應義塾大學圖書館이 소장한 <對馬宗家文書> 중에서 <延享五戊辰年信使記録 御參向御註進控 共二三册地>의 활자 翻刻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료는 延享度 通信使가 對馬를 출발하여 에도에 도착하기까지 對馬藩에서 幕府로 보낸 문서집이다.

2. 비교

鈴木文·玉井達也 편찬. 紙屋敦之研究室 간행. 2007년.

慶應義塾大學圖書館이 소장한 《對馬宗家文書》는 마이크로필름 田代和生 편찬 《朝鮮通信使記録 對馬宗家文書 第Ⅰ期》에 수록되어 있다.

《近世歴史資料集成》 第2期 第3卷 日本産業史資料3 農業及農産製造

1. 내용

수록되어 있는 <朝鮮人參耕作記>는 조선인삼을 재배할 때의 지침서. 조선인삼을 재배하는데 적합한 토지와 파종 방법, 해충, 조선산 인삼과 일본산 인삼의 비교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 본문의 말미에서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寶貨事略》을 인용하면서 조선인삼의 수입으로 인한 금은화폐의 국외 유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보인다. 저자는 田村元雄藍水이며, 본서는 明和 원년(1764) 간행된 小形版(初版은 1748)이다.

2. 비교

淺見惠・安田健 譯編. 科學書院. 1991년.

《草場珮川日記》

1. 내용

히젠노쿠니(肥前國) 다쿠(多久) 출신의 주자학자 구사바 하이센(草場珮川)의 일기를 활자 翻刻한 것. 고가 세이리(古賀精里)와의 교류와 매일의 독서 메모, 사본기록 등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上卷에는 文化 원년(1804)부터 文政 5년(1822)까지 18년간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弘道館에 입관한 다음부터 多久藩主를 모시기까지의 일상생활과, 對馬로 遊學하여 文化度の 朝鮮通信使와 회견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기는 책자마다 <入學日錄>, <日新私乘>, <附驥日記>, <津島日記>, <對禮余藻> 등의 題名을 달았다. 이 중에서 <附驥日記>, <津島日記>, <對禮余藻>는 文化 8년(1811) 구사바 하이센이 고가 세이리 일행을 따라서 對馬로 갔을 때의 기록이다. <附驥日記>, <津島日記>에는 對馬 및 조선의 풍토와 산물, 인물과 역사, 通信使와 회견하는 모습이, <對禮余藻>에는 通信使와 주고받은 漢詩가 정리되어 있다.

下卷에는 文政 5년부터 安政 4년(1857)까지 36년간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文政 5년부터 天保 중엽까지의 기사는 多久家에 종사하던 시절의 기록이다. 天保期 이후의 기사는 佐賀藩의 藩校 弘道館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시절의 기록이다.

2. 비교

상하 2책. 三好不二雄 감수. 西日本文化協會 간행. 1978・1980년.

이 책에 翻刻되어 있는 <津島日記>의 그림은 생략되어 있다. 그림은 《影印本 津島日記》(별항 참조)에서 볼 수 있다.

《交隣須知》

1. 내용

韓語學習帳 <交隣須知>를 影印하고 解題 및 索引을 추가한 것이 이 책이다. 對馬藩의 譯官이 작성한 것을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손을 대서 성립한 것이라고 한다. 明治期에 이르기까지 改訂을 거듭하였고, 많은 異本이 남아 있다. 이 책에서 影印한 京都大學文學部 言語學研究室 소장본이며, 江戸期에 작성된 사본이다. 4권 4책이며, ‘天文’, ‘時節’, ‘晝夜’ 등 사항별로 분류되어 있다. 단어 밑에 한글 및 가타카나(片仮名)로 用例를 표시하였다.

2. 비고

京都大學國語學國文學研究室 편찬. 京都大學國文學會 간행. 1966년.

《湖西市史》 史料編 1, 史料編 3

1. 내용

- ① <朝鮮人來朝關係歎願書扣>(사료편 1의 24)는 寶曆 12년(1762)의 <乍恐書付を以奉願上候>라는 表題로 이노우에(井上) 가와치노카미(河內守) 영주의 領地 도오토우미노쿠니(遠江國) 敷地郡 8개촌의 惣代가 道中奉行 앞으로 보낸 청원서인데, 다가오는 조선인 來訪 때 矢來 근무와 人馬 차출을 면제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 ② <明和 원년 조선인삼에 관한 覺>(사료편 3의 34)은 明和 원년(1764) 申 11월부로 遠州 敷知郡 新所西方村 庄屋의 庄兵衛 외 3명이 菅沼幾右衛門·渡邊傳藏에게 보낸 문서인데, 新所西方村이 조선인 왕래 시 新居宿 人馬役, 船役, 각종 물품의 납입을 약속한 <覺>이다.

2. 비고

湖西市史編纂委員會 편찬. 靜岡縣湖西市 간행. 1979·1982년.

《越谷市史》 四·史料二, 續史料編(一)

1. 내용

- ① <十三 朝鮮人來朝之事>(四·史料二 수록)는 朝鮮使節에 대한 인마 제공 사료.
- ② <朝鮮人來朝歸國御入用國役金之事>(續史料編(一))은 明和 원년(1764) 朝鮮使節을 위한 國役金 사료.

2. 비고

越谷市役所 편찬·간행. 1972·1981년.

《古事類苑 外交部》

1. 내용

고대부터 幕末에 이르기까지 각국과의 교섭 사료를 항목별 편년 순으로 정리한 사료 집.

外交部 1~25까지 함께 25부로 구분되어 있다. 外交部 1은 <外交總載>(외交到 관한 총괄)이며, 2~11에는 조선, 12~15까지는 중국, 16~17에는 동남아시아, 18~24까지는 유럽, 25에는 아메리카 관계 외교사료가 翻刻되어 있다. 이하 에도시대의 日朝關係에 관한 사료에 대하여 해설한다.

外交部8(朝鮮1) : 朝鮮國号에 관한 사항, 무로마치시대의 아시카가씨(足利氏)가 조선과 통교한 기사, 文祿의 役·慶長の 役に 관한 기사.

外交部9(朝鮮2) : 文祿·慶長の 役 이후 도쿠가와씨(德川氏)에 의한 日朝關係 복구 기사, 通信使 관계 기록.

外交部10(朝鮮3) : 소씨(宗氏)에 의한 조선과의 통교 기사(室町~明治까지)

外交部11(朝鮮4) : <貿易> <和館> <以酌庵> <竹島交渉> <社寺募緣>(社寺修復費의 권장을 구하는 문서) <詩文贈答> <漂流> <雜載> 기사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2. 비교

- ① 神宮司廳 편찬 《古事類苑 外交部》(宇治山田 1903).
- ② 神宮司廳 편찬 《古事類苑 外交部》(古事類苑刊行會 1930).
- ③ 神宮司廳 편찬 《古事類苑27-28권 外交部》(普及版, 古事類苑刊行會 1933~1934).
- ④ 神宮司廳 편찬 《古事類苑22 外交部》(4版普及版, 吉川弘文館 1967).
- ⑤ 神宮司廳 편찬 《古事類苑26 外交部》(4版, 吉川弘文館 1969).

《近藤正齋全集》

1. 내용

근도 주조(近藤重藏, 호는 正齋.諱는 守重)의 저작을 모아 해설을 붙인 사료. 주조(重藏)는 松前蝦夷御用取扱으로 근무하면서 에조치(蝦夷地) 탐험에 종사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御書物奉行으로 근무했던 적도 있으며, 幕府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귀중한 서적을 이용하여 많은 저작을 남겼다.

제1권에는 <外蕃通書>(全27冊)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각국과의 외교문서에 주조가 고찰을 추가한 것이다. <外蕃通書> 제1책~제5책에는 <朝鮮國書>(年次는 慶長 12년~寶曆 14년), 제6책~제7책에는 <阿蘭陀國書>(慶長 14년~安永 8년), 제8책~제10책에는 <明國書>(慶長 15년~延寶 6년), 제11책~제14책에는 <安南國書>(慶長 6년~元祿 7년), 제15책~제17책에는 <暹羅國書>(慶長 11년~貞享 4년), 제18책~제19책에는 <柬埔寨國書>(慶長 8년~寬保 2년), 제20책에는 <占城國書> <太泥國書> <田彈國書>(慶長年間), 제21책~제23책에는 <呂宋國書>(慶長 6년~慶長 18년), 제24책~제25책에는 <阿媽港書>(慶長 14년~元和 7년), 제26책에는 <新伊西把你亞國書>(慶長 17년~寬永 원년), 제27책에는 <漢又利亞國書>(慶應 13년~元和 12년)가 수록되어 있다.

<朝鮮國書>에 수록된 문서에 관해서는 《異國日記》와 《通航一覽》(별항참조)에 수록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주조의 해설문 중에는 조선통신사의 시작에 대하여, 그리고 柳川一件(對馬藩에 의한 국서개찬 사건) 및 正徳年間(1711~1715)의 <國王> 칭호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보인다.

2. 비고

國書刊行會 편찬·간행. 1976년 復刻.

<外蕃通書>에 대하여는 《改訂史籍集覽》 제21책(近藤活版所 1901)에 活字翻刻이 있다.

《清水市史》 資料 近世1, 近世3

1. 내용

江尻本郷町 御三家의 하나로 불리던 재력가 佐藤家の 문서를 수록하였다. 佐藤家は 기름가게를 경영하는 한편, 에도 중기부터 百姓代, 組頭, 名主役으로 근무하던 집안이다. 正德 원년(1711)부터 天明 6년(1786)까지 朝鮮使節 통행에 이용된 富士川의 渡船·人足 제공에 관한 富士川 西岸 岩瀨村, 興津·江尻·清水 각 항구의 請負證文과 覺書이다.

- ① 近世1[27] 正德 원년 卯 7월 11일 <富士川船橋役船につき本郷町より岩瀨村請人へ<手形之事>> 등 함께 13점이 수록되어 있다.
- ② 近世3[69] 享保 4년(1719) 亥 5월 <朝鮮人來朝勤方御尋につき谷津村名主二名より山甚内へ<覺>>

2. 비고

清水市史編纂委員會 편찬. 간행은 吉川弘文館. 1966·1967년.

《下蒲刈町史》 資料編

1. 내용

제2장 제1절에 ‘朝鮮通信使と三之瀬’로서 朝鮮通信使의 使行錄에서 三之瀬 주변을 통행했을 때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慶長 12년(1607) 慶七松의 <海槎錄>부터 享保 4년(1719) 申維翰의 <海游錄>까지 20점의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2. 비고

下蒲刈町史編纂委員會・吳市史編纂委員會 편찬. 吳市役所 간행. 2004년.
底本은 모두 《海行總載》이다.

《下關市史》 資料編 1

1. 내용

明治 7년부터 山口縣이 편찬을 개시한 《豊浦藩舊記》 중에서 ① <朝鮮人漂着通路護送>은 제88책, ② <朝鮮國信使饗應記>는 제89책, ③ <朝鮮人漂着吉母浦・松谷浦應接書>는 제90책을 翻刻한 것.

- ①은 朝鮮人 漂着에 대응할 때의 요령 및 文書類의 양식을 포함한다. 아울러서 文政 13년(1830) 萩領에 朝鮮人이 漂着했을 때의 대응을 예로 들고 있다.
- ②는 寶曆期 通信使의 응대에 관한 사료이다.
- ③은 漂着 朝鮮人과 筆談에 의한 응접을 기록한 사료이다.

2. 비고

下關市史編修委員會 편찬. 下關市 간행. 1993년.

《清見寺所藏 朝鮮通信使遺物目錄》

1. 내용

慶長 12년(1607)과 寬永 원년(1624) 朝鮮通信使가 숙박했던 清見寺(靜岡市 清水區 興津 清見寺)에 남아 있는 書蹟・文物을 걸러복사하고 한국어 및 일본어로 번역을 붙인 것. 清見寺는 寬永期 이후에는 宿泊所로 이용되지 않았지만, 통신사의 휴게소로는 계속해서 이용되었다. 그 때문에 이 사찰에는 조선통신사의 문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책에는 詩箋 51점, 懸板・扁額 18점, 繪畫 1점, 병풍・掛幅 3점, 기타 日記・書狀 등 7점, 공예 1점이 수록되어 있다. 呂祐吉・慶暹・丁好寬(慶長度 通信使) 등의 詩文을 비롯하여 明曆度・正德

度·寬延度·明和度の 문물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이 책에는 <周邊寺院資料>로서 淸見寺 이외에 남아 있는 통신사 자료도 게재하고 있다.

2. 비교

朝鮮通信使文化事業會 간행. 2006년.

《全一道人の研究》

1. 내용

對馬藩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편집한 韓語學習帳 <全一道人>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①<全一道人の研究>는 아메노모리 호슈가 저술한 <全一道人>의 書誌, 情報源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설을 추가한 책이다. ②<全一道人釋文>은 <全一道人>의 釋文에 韓語譯을 추가한 책이다. ③<全一道人勸懲故事>는 아메노모리 호슈가 저술한 <全一道人>의 粉本(典據)인 汪延訥의 <全一道人勸懲故事>를 影印한 책이다. <全一道人勸懲故事>의 저자는 明代의 극작가 汪延訥이다. ④<全一道人>은 <全一道人>의 影印이다. 享保 14년(1729) 성립. <序> 및 <凡例>에는 韓語 學習法에 관한 호슈의 견해 등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본문에는 忠臣·孝子·節夫 등에 관하여 교훈적인 설화가 일본어로 표기되고, 그 옆에 한국어 발음이 가타카나(片仮名) 및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2. 비교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편찬. 京都大學國文學會 간행. 1964년.

底本은 雨森芳洲文庫(滋賀縣 伊香郡 高月町) 소장 자필 사본.

《增補 朝鮮信使來朝歸帆官錄》

1. 내용

石阪孝二郎씨가 昭和 44년(1969)에 편집·간행한 《朝鮮信使來朝歸帆官錄》의 增補版.

- ① 石阪孝二郎 편찬 《朝鮮信使來朝歸帆官錄》은 寶曆 12년(1762) 3월 9일~明和 2년(1765) 정월 20일까지의 兵庫津 기록이며, 寶曆度 朝鮮使節이 도착 및 귀국할 때의 送迎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사료는, 위로는 幕府에서 파견된 代官, 尼崎藩의 家老, 同藩 兵庫津町奉行에서부터 아래로는 名主, 町人에 이르기까지 접대준비를 위하여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 ② <寶曆物語> 권1~10은 寶曆度 信使 일행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 이야기 형식의 단행본이다.
- ③ 《寶曆度兵庫津朝鮮通信使關係史料 -岡本俊二文書에 보이는 增補史料-》는 현재 西宮市에 해당하는 瓦林組 大庄屋으로서 上瓦林村 庄屋를 겸하고 있는 岡本家에 전하는 고문서 중에서 朝鮮使節에 관한 것이다. 시기는 延享 5년(1748)부터 文化 8년(1811)의 사료이다.

2. 비교

石阪孝二郎 편찬. 明石書店 간행. 1992년.

- ① 의 原史料는 兵庫津 岡方惣會所가 소장한 <朝鮮人來朝歸帆官錄> 上, 中, 下 3책,
- ② 의 底本은 國立國會圖書館本 <寶曆物語>, ③은 <岡本俊二文書>의 朝鮮使節 관계 사료 중 일부이다.

《續雨森芳洲外交關係資料集》

1. 내용

對馬藩의 儒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에 관한 사료집의 續編이다.

- ① <裁判記錄四>(お茶の水圖書館 소장)에는 호슈가 裁判으로 釜山에 머물면서 對馬藩廳과 주고받은 왕복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
- ② <信使一件并集書>(雨森芳洲文庫 소장)는 朝鮮通信使에 관한 覺書. 전반부는 正徳年 通信使에 관한 기술이며, 후반부는 寶永 연간(1704~1710)의 年例送使와 朝鮮으로 보내는 書簡 및 이에 사용하는 단어에 관한 메모, 延享 5년(1748) 通信使에 관한 호슈의 의견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 ③ <芳洲了簡書>(대한민국 國史編纂委員會 소장)는 對馬藩의 재정 궁핍에 대하여 언

급한 자료. 藩의 재정이 궁핍한 이유 및 그 대책 등을 언급하였다.

- ④ <朝鮮詞稽古御免帳>(대한민국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은 享保 5년(1720), 호슈가 처음으로 시작한 朝鮮語通詞 양성 제도의 실패와 通詞들의 消長을 전하는 자료.
- ⑤ <交隣大昕錄>(雨森芳洲文庫 소장)은 日朝通交에 관한 覺書を 편집한 것. 日朝 외교문서 작성을 주관했던 以訶庵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漢字의 메모, 조선과 통교한 역사, 年例送使船 편에 딸려 보내는 書契와 別幅 등에 관한 메모, 延寶 8년(1680)에 작성된 <倭館壁書> 등이다.
- ⑥ <送使約條私記>(雨森芳洲文庫 소장)는 年例送使에 관한 覺書. 조선 측의 접대에 관한 기사, 접대료, 공연료, 진상물, 공무역품, 返禮物 등의 목록이 부기되어 있다.
- ⑦ <義眞公御家譜>(對馬嚴原町醴泉院 소장)는 宗氏 제21대 요시자네(義眞)의 일대기. 藩政·日朝關係·민속 등의 기사를 포함한다.
- ⑧ <和交覺書>(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소장)는 日朝通交에 관한 覺書.

2. 비고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資料集刊11-4, 雨森芳洲全書4.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日中文化交流の研究> 歴史班 편찬. 關西大學 간행. 1984년.

《續續日本繪卷大成》 傳記·緣起篇8 東照社緣起

1. 내용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일대기와 日光 東照社가 창건된 유래를 그림으로 기록한 것. 寬永 16~17년(1639~1640)에 성립했고, 전5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제4권 제4段에 ‘朝鮮人’ 항목이 있다. 詞書에는 조선통신사(寬永度)가 日光를 참배했을 때의 感慨가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서 후반부에는 正使 白麓(任統), 副使 東溟, 從事官 靑丘의 七言律詞가 실려 있다. 그림에는 가마를 탄 正使와 副使, 말을 탄 女官과 피리, 큰북을 가진 악대 일행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통신사 일행의 선두는 東照宮의 이치노도리이(一の鳥居)에 도달하기 직전이다.

2. 비교

小松茂美 편찬. 中央公論社 간행. 1994년.

컬러 一圖版, 釋文, 해설이 붙어 있다. 底本은 日光 東照宮 소장.

《大系朝鮮通信使 善隣과 友好的의 記錄》

1. 내용

조선통신사 관계 사료가 編年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8권. 각권에 논문, 통신사 관련 저작·논문목록이 부기되어 있다.

각권 모두 전반부에 繪卷 등의 회화 사료를, 후반부에 朝鮮通信使 使行錄(影印)을 수록하였다. 회화사료 중에서 유명한 것은 거의 망라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2권에 <朝鮮通信使行列繪卷>(런던대학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제3권에 <朝鮮通信使行列圖卷>(뉴욕시립박물관 스펜서 컬렉션 소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通信使 일행이 일본에 남긴 서액, 繪畫類도 翻刻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이하에서 본 시리즈에 수록되어 있는 使行錄의 影印本 중에서 朝鮮古書刊行會의 刊本 《海行摠載》에서 影印한 것 이외의 사료를 열거한다.

◎제1권 : 朝鮮禮曹 <海行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朴樸 <東槎日記>(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제3권 : 趙珩 <扶桑日記>(하버드대학교 燕京研究所Chinese-Japanese Library 소장)

◎제4권 : 趙泰億 <東槎錄>(別編 《謙齋集》 수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李邦彦 <東槎錄·內題 《東槎日記》>(소장은 同前), 金顯門 <東槎錄>(京都大學圖書館 文學部 소장).

◎제5권 : 洪致中 <東槎錄>(京都大學文學部 소장), 申維翰 <海游錄>(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소장), 金滄 <扶桑錄>(韓國 國立中央圖書館 소장).

◎제6권 : 曹蘭谷 <奉使日本時間見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洪景海 <隨槎日錄>(소장은 앞과 동일).

◎제7권 : 成大中 <日本錄>(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元重舉 <乘槎錄>(고려대학교 六堂文庫 소장), 金仁謙 <日東壯遊歌>(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제8권 : 金履喬 <辛未通信日錄>(金同圭씨 소장), 柳相弼 <東槎錄>(고려대학교 아

시아문제연구소 소장). 卷의 구성은 이하와 같다.

- ① 제1권 丁未·慶長度, 丁巳·元和度, 甲子·寬永度(1996년)
- ② 제2권 丙子·寬永度, 癸未·寬永度(1996년)
- ③ 제3권 乙未·明曆度, 壬戌·天和度(1995년)
- ④ 제4권 辛卯·正德度(1993년)
- ⑤ 제5권 己亥·享保度(1995년)
- ⑥ 제6권 戊辰·延享度(1994년)
- ⑦ 제7권 甲申·寶曆度(1994년)
- ⑧ 제8권 辛未·文化度(1993년)

2. 비교

辛基秀·中尾宏 편찬. 明石書店 간행. 1993~1996년.

《千葉縣史料》 近世篇 佐倉藩 紀氏雜錄

1. 내용

<天保校訂 紀氏雜錄>은 사쿠라번(佐倉藩)의 영주 홋타 마사스케(堀田正亮) 때 家譜·系譜의 편찬이 시작되었고, 明和 3년(1766) 藩主 마사나리(正順) 때 이 사업은 일단 완료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증보 교정 작업이 진행되어 天保 7년(1836)에 완성되었다.

① <紀氏雜錄一>은 延享 5년(寬延 원년, 1748) 朝鮮使節이 江戶城에 등성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였다.

② <紀氏雜錄三>은 天和 2년(1682) 에도에서 朝鮮使節의 동향, 朝鮮國王의 書簡 文言과 봉투 그림, 그리고 國王에게 보내는 返書 文言과 봉투 그림, 홋타 마사토시(堀田正俊)의 書簡 복사본이 기재되어 있다.

2. 비교

千葉縣企畫部廣報縣民課 편찬. 千葉縣 간행. 1984년.

《朝鮮人道見取繪圖》

1. 내용

東京國立博物館이 소장한 <五街道分間延繪圖>(전103권)을 복사한 시리즈 중에서 <五街道分間延繪圖>은 幕府의 命으로 道中奉行들이 작성했고, 文化 연간에 완성한 街道繪圖이다.

이 책에 수록된 것은 通信使가 이용했던 <朝鮮人(街道)>를 鳥瞰한 街道繪圖 <朝鮮人道見取繪圖>를 컬러 복사한 것이다. 그리고 朝鮮人道라는 것은 通信使가 本街道를 벗어나서 통행하는 오미(近江) 지방의 일부 도로를 가리킨다.

2. 비교

兒玉幸多 감수. 東京美術 간행. 1990년.

《朝鮮通交大紀》

1. 내용

對馬藩의 유학자 松浦允任(霞沼)이 편집한 日朝關係 사료집이며, 享保 10년(1725)의 序文이 붙어 있다. 撰述의 목적은 조선 측이 對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對馬가 朝鮮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對馬와 朝鮮 관계의 연혁을 幕府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기술하는데 있다.

권1부터 권8까지는 應安 원년(1368)부터 正德 6년(1716)까지의 고려·조선과 일본 간에 교환한 문서를 編年體로 정리하고, 松浦允任의 해설문과 和譯(大意)이 실려 있다. 권9 및 10에는 天正 18년(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방문했던 通信使 金誠一(鶴峰)의 기록 《海槎錄》이 수록되어 있다.

2. 비교

田中健夫·田代和生 校訂 《朝鮮通交大紀》(名著出版 1978).

底本은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본과 長崎縣 嚴原町 宗家文庫 소장본(모두 10冊本)이다. 전자는 全文을 翻刻하였고, 후자는 전자에서 볼 수 없는 부분만을 翻刻하였다.

《朝鮮通信使繪圖集成》

1. 내용

朝鮮通信使와 관련된 그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紀州의 德川家에서 소장하던 享保 4년(1719) <朝鮮國書捧呈行列圖卷>(個人像) 등의 通信使 繪卷와, 金明國筆 <壽老圖>(大和文華館 소장)처럼 통신사가 써서 남긴 畫幅이 다수 실려 있다. 그림 자료에 관해서는 이 책보다 나중에 편집된 辛基秀·中尾宏 편집 《大系朝鮮通信使 선린과 우호의 기록》(明石書店 1993~1996)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2. 비교

辛基秀 등 편찬. 講談社 간행. 1985년.

《朝鮮通信使記錄 對馬宗家文書 第Ⅰ期》

1. 내용

각지에 분산되어 보존하고 있는 對馬宗家文書を 마이크로필름화한 것이 <對馬宗家文書> 시리즈이다. 第Ⅰ期에는 조선통신사 관계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고 別冊을 첨부하였다. 別冊은 慶應義塾圖書館, 東京 國立博物館, 大韓民國 國史編纂委員會가 소장한 對馬宗家文書에서 통신사 기록을 골라 해설을 附記한 것이며, 마이크로필름 목록 및 관련 論考로 구성되어 있다.

別冊下에는 중세·근세 日朝交流 관계 사료로서 《大閣秀吉朝鮮征討起本》(大韓民國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家康公初命和陸次第并信使來朝事》(大韓民國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家康公命和陸朝鮮對馬送使約條相定次第并對馬私記》(東京國立博物館 소장), 《方長老上京日記》(東京 國立博物館 소장)가 翻刻 내지 影印되어 있다. 이들 사료는 근세 초기의 외교승 規伯 玄方이 藩主 소 요시자네(宗義眞)에게 헌상했던 것이며, 중세 對馬島에

있어서 日朝通交 무역의 실태, 양국 관계를 단절했던 文祿·慶長の 役, 그 후의 강화교섭 등 중세 말·근세 전기의 日朝關係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2. 비교

田代和生 편찬. ゆまに書房 간행. 1998~2000년.

《朝鮮物語》

1. 내용

하키번(萩藩)의 마쓰바라 신에몬(松原新右衛門) 저작. 享保 13년(1728) 序. 이 책은 對馬藩의 大通詞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며, 조선 사정에 정통했던 松原新右衛門이라는 인물이 저술한 책이다. 松原新右衛門은 正德 원년(1711) 및 享保 4년(1719)의 두 번에 걸쳐서 通信使를 수행하여 에도에 參府하였다.

조선의 언어·역사·지리·풍속과 정치 정세, 풍문, 산물, 對馬藩과 조선의 외교사무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그가 조선 체재 중에 얻은 和館의 모습, 조선인의 언어 등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비교

小林茂 《漂流・漂着から見た 環東ミナ海の國際交流》(平成8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1)) 研究成果報告書 1997)에 수록.

‘朝鮮物語’라는 제목의 서적은 大河内秀元 《朝鮮物語》, 木村理右衛門 《朝鮮物語》(별항 참조), 그리고 松原新右衛門 《朝鮮物語》(本書)의 3종이 확인되고 있다.

《朝鮮物語》

1. 내용

寬延 3년(1750)에 에도에서 출판된 서적. 작자는 東都(江戸) 芝濱松町 2丁目に 거주하

는 木村理右衛門. 서문을 쓴 것은 沖慶子이다. 木村理右衛門과 沖慶子도 이 책의 성질은 조선에 관한 계몽서라고 한다. 전5권 5책이며, 그 내용을 이하에서 卷次별로 소개한다.

- ① 권1에는 ‘朝鮮國由來の事’, ‘朝鮮より日本へ始めて來朝の事’, ‘三韓日本に屬する事’, ‘高麗國王健が事’, ‘大明國日本と和平によりて朝鮮より日本に和を乞事’라는 항목을 만들고, 朝鮮國의 유래와 日本과 交隣의 시작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 ② 권2에는 ‘朝鮮陣起の事’, ‘加藤小西朝鮮國先陣の事’, ‘大明國より援の兵來る事’, ‘沈惟敬和義を調ふる事’, ‘太閤再び朝鮮を攻給ふ事’, ‘秀吉公耳塚を築給ふ事’라는 항목을 만들고, 2회에 걸친 豊臣秀吉의 朝鮮出兵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③ 권3에는 ‘越前國船頭韃靼へ漂着の事’, ‘日本人だつたんに逗留の事’, ‘日本人朝鮮へ到着の事’, ‘倭人挑戰の郭中見物の事’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이들은 寛永 21년(1644) 에치젠(越前) 미쿠니(三國)의 船頭 竹内藤右衛門이 마쓰마에(松前)로 가던 도중 난과하여 韃靼에 漂着했고, 奉天, 北京, 그리고 朝鮮을 경유하여 귀국하기까지의 기록이다.
- ④ 권4에는 ‘日本人朝鮮に越年の事’, ‘看忠と朝鮮大明物語の事’, ‘倭人歸國の願并人參取様の事’, ‘日本人朝鮮發足の事’, ‘漂泊り日本へ歸岸再び故郷へ歸る事’이며, 계속해서 에치젠(越前) 미쿠니(三國)의 뱃사람들의 기록이 실려 있다.
- ⑤ 권5에는 ‘朝鮮國渡海の圖’, ‘朝鮮國八道の圖’, ‘朝鮮八道郡府州縣の事’, ‘朝鮮官職考’, ‘朝鮮の國語’, ‘朝鮮土産の事’이며, 조선 지도와 지리, 관직 및 언어에 관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2. 비교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 편찬 <<木村理右衛門著 朝鮮物語>>. 京都大學國文學會 간행. 1970년.

<<通航一覽>>

1. 내용

嘉永 6년(1853)에 大學頭 하야시 아키라(林樵)가 중심이 되어 외교관계 문서집으로 편찬한 사료. 이 책의 편찬 목적은 諸國과 ‘我邦來往の由’(諸國과의 교제 내력)을 알기 위함이라고 편자는 서술하고 있다(<凡例>). 그리고 수록 사료의 연대는 永祿 9년(1566)을

上限으로 하고, 下限은 <異國船打拂い書>이 내려진 文政 8년(1825)이다.

《通航一覽》 원본은 本編 322권, 附錄 23권, 繪圖 1帙, 凡例總目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編者가 세운 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琉球國部(卷之1~24), 朝鮮國部(卷之25~137), 長崎港異國通商總括部(卷之138~169), 異國渡海總括部(卷之170), 安南國部(卷之171~178), 南蠻部·南蠻總括部(卷之179~197), 唐國總括部·唐國(卷之198~238), 阿蘭陀國部(卷之239~251), 諳厄利亞國部(卷之252~262), 柬埔寨國部(卷之263~264), 暹羅國部(卷之265~269), 芟萊國, 淳泥國部(卷之270), 田彈國·巴旦國部(卷之271), 爪哇國部, 萬老高島部, 大人國部, 小人國部(卷之272), 魯西亞國部(卷之274~321), 北亞墨利加國部, 安悶島部, 異國部(卷之322), 海防部(附錄 卷之1~23)이다.

이들 국가의 배열에 관해서는 編者가 附記한 ‘凡例’가 참고 된다. 즉 序列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來航한 해에 따라 결정하는데, “琉球는 우리의 屬國이고, 朝鮮은 隣好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諸國의 앞에 위치하며, 長崎港異國通商總括의 部 및 異國渡海總括의 部는 이들 두 나라 외에 諸蕃來往의 總括이므로 그 다음이 된다(後略)”(‘凡例’)고 한다. 나라마다 기재 내용은 다르지만 대개 그 나라의 역사, 通航의 내력, 漂流·漂着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하에서 朝鮮國部の 내용을 抄出한다.

- ① 제1권에는 ‘修好始末’, ‘宗氏通信御用’ 등 통신사 관계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修好始末’의 첫머리는 檀君神話로 시작하는 조선의 역사가 부기되어 있다.
- ② 제2권에는 ‘信使來聘に付町触等’, ‘信使參向道中’, ‘信使着館并滯留中御扱’ 등 통신사의 접대에 관한 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 ③ 제3권에는 ‘信使駿城并江戸西城登營’, ‘聘禮濟出仕附獻上物, 御馳走人拝謁等’, ‘兩國書并儀物信使御暇等’, ‘筆談唱和等’, ‘貿易’, ‘變事注進并慰問’, ‘漂流’ 등 계속해서 통신사에 관한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變事注進并慰問’은 對馬 宗氏가 幕府에 올린 風說書이며, 예를 들면 明清 교대에 관한 풍문(吳三桂의 반란 등)이 수록되어 있다.
- ④ 제4권에는 ‘漂着’, ‘竹島’가 수록되어 있다. ‘漂着’에서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漂着한 예를 들고 있다. ‘竹島’ 항목에서는 ‘朝鮮通交大紀’와 ‘異本朝鮮物語’ 등을 인용하여 竹島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을 정리하고 있다.

본서는 사료의 質·量 모두 일급이며, 참으로 ‘通航’을 ‘一覽’하는 사료집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저술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본서는 어디까지나 막부가 파악할 수 있

는 범위에서의 사료집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對馬藩의 사료를 기초로 조선인의 일본 漂着과 일본인의 조선 漂着 사례를 수집한 池內敏의 연구에 의하면, 《通航一覽》에 수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또 《通航一覽》은 다양한 사료에서 관계 사료를 잘라 붙여서 작성한 사료집이기 때문에 일일이 原典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翻刻을 할 때 原本의 체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비고

圖書刊行會 간행. 1912~1913년. 復刻版은 淸文堂에서 1967년에 간행.

《通航一覽續輯》

1. 내용

《通航一覽》의 續編이며, 安政 3년(1856) 무렵에 成稿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관계 사료는 제1권에 翻刻되어 있다. 내용은 ‘宗氏通信御用’(對馬 宗氏의 通信使來聘 요청), ‘潛商刑罰’(天保 7년, 竹島에서 교역한 자에 대한 처벌 1건), ‘漂着并漂流’(조선에서 일본으로 漂着한 기사, 일본에서 조선으로 漂流한 기사) 등이다.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제1권 : 卷之1~4 琉球國部, 卷之5~6 朝鮮國部, 卷之7 南蠻總括部·同呂宋國部, 卷之8~32 唐國總括部
- ② 제2권 : 卷之33~46 唐國部, 卷之47~63 阿蘭陀國部
- ③ 제3권 : 卷之64~80 諸厄利亞國部, 卷之81 暹羅國部, 卷之82~83 巴旦國部, 卷之84~103 魯西亞國部
- ④ 제4권 : 卷之104~142 北亞墨利加部, 卷之143~145 佛朗西國部, 卷之146 弟那瑪爾加部, 卷之147~152 異國部
- ⑤ 제5권 : 附錄 卷之1~26 海防部

2. 비고

箭內健次 편찬. 淸文堂出版 간행. 1968~1973년.

底本은 內閣文庫 소장 草稿本이며, 東京大學史料編纂所가 소장한 淸書本(구 外務省 소장본), 東京國立博物館 소장본을 적절히 참조하였다.

《對馬叢書》

1. 내용

- ① 《對州編年略》은 對馬의 역사를 연표처럼 정리한 저작이며, 享保 16년(1731)에 완성되었다. 저자는 對馬의 人 藤定房. ‘凡例’에 따르면, 기사는 神武(神武)천황부터 나카미카도(中御門)천황 시대까지, 즉 開闢에서부터 18세기 전반까지이다. 집필에 임해서는 서적에서 인용하는 것 외에 민간의 傳承도 채택하고 있다. ‘凡例’에는 역대 對馬 태수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간결하지만 元治 연간에 倭寇가 조선을 습격했다는 기사와, 朝鮮通信使 來聘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② 《津島紀事》 上·中·下는 19세기 초엽에 완성된 對馬의 地誌이다. 文化 3년(1806), 通信使 來聘에 즈음하여 對馬를 방문했던 막부 관리 쓰치야 다테와케(土屋帶刀)의 命으로 對馬藩士이며 郡奉行인 히라이마 도잔(平山東山)이 저술한 것이 본서이다. 원본은 11권, 付錄 2권.

卷之1에는 ‘序’, ‘凡例’, ‘目錄’과 함께 ‘統體’로서 섬의 명칭과 면적, 石高, 역사 등이 게재되어 있다. 卷之2에는 ‘州治’로서 國府의 地理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卷之3부터 卷之10까지는 對馬 각 촌의 地理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神社와 사찰의 연혁이 포함되어 있다. 卷之11은 ‘土產考’로서 對馬의 특산물과 동식물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付錄 2卷에는 對馬에 있는 棟札과 梵鐘 등의 金石文을 실었다.

付錄 2卷 속에는 조선에서 기증한 梵鐘의 銘文과 銅印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器物은 현존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2. 비교

鈴木棠三 편찬. 東京堂出版 간행. 1972~1973년.

《對馬叢書》

1. 내용

- ① 《宗氏家譜略》은 초대 宗知宗부터 廢藩에 이르기까지의 系譜, 系圖, 事跡을 기록한 책이다. 각 인물의 花押과 印影의 복사 등도 수록되어 있다. 성립연대는 미상, 편자는 立花氏淸.
- ② 《對州藩覺書》에는 宗氏의 家紋, 判物類, 花押, 家臣의 緒役 재임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文政 연간(1818~1829)에 성립했으며, 田代官所의 下役인 佐藤恒右衛門이 편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田代覺書>도 역시 佐藤恒右衛門이 편찬했고, 文政 8년(1825)에 성립하였다. 對馬藩의 田代領을 통치할 때 필요한 조항을 한 책에 정리한 것이다.
- ③ 《十九公實錄》은 唐坊長秋가 찬술한 宗氏의 實記. 書名에는 ‘19代’로 되어 있지만, 현존하는 寫本으로는 초대 宗知宗부터 제10대 成織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다. 내용은 각 인물의 事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조선관계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宗氏家譜》는 宗氏 22代 요시자네(義眞)가 家臣에게 命하여 編修하도록 한 것이며, 집필은 스야마 도쓰안(陶山訥庵)이었다. 全3卷이며, 第1卷에는 초대 知宗부터 將盛까지 15명, 第2卷에는 晴康부터 義智까지 7명, 第3卷에는 義成으로 함께 23명의 事跡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출병 및 그 후의 화친교섭, 통신사에 관한 기술이 상세하다.
- ④ 《對馬人物志》는 藩主·家老·무사·승려·문인들의 인격, 事跡 등을 해설한 人名辭典이다.
- ⑤ 《對馬志士》는 막부 말기에 佐幕派(막부 지지파)의 중심인물인 勝井員周가 勤皇家 200여명을 참살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 ⑥ 《閑窓獨言》는 對馬의 의사 古藤文庵이 기록한 수필집. 성립은 明和期(1764~1771년)이며, 315話 정도가 수록되어 있다. 에도와 오사카에 관한 풍문과 對馬의 역사 등 기술내용이 광범위하다. 조선어 습득, 倭館 館主에 관한 기술 등도 포함되어 있다.
- ⑦ 《象胥紀聞》은 對馬의 象胥(通詞)가 수집한 조선의 國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 上·中·下 3卷이다. 上卷에는 조선의 역사, 朝廷에서의 儀式, 각 도시와 도로에

대하여, 中卷에서는 節句, 인물, 관제, 下卷에서는 호적과 武備, 형벌, 도량형, 의식주, 산물 및 조선에 관한 풍문을 수록하고 있다.

2. 비고

鈴木棠三 편찬. 村田書店. 1975~1979년.

《豊橋市史》 史料篇 5, 史料篇 6

1. 내용

- ① 史料篇5 <御橋御掛直シ・御修覆・御見分御用覺>은 吉田大橋가 완공된 당시(元龜 원년, 1570)부터 幕末에 이르는 동안의 수리, 修覆, 검사 등의 기록을 적어 둔 것이다. 해설에 따르면 寶曆 11년(1761) 무렵에 종래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했고, 이후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록하였다. 조선사절 관계기사로는 正德 원년(1711)에 “朝鮮人來朝ニ付” 교량 보수공사를 행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延享 4년(1747)의 기록에도 동일한 기사가 있다.
- ② 史料篇6 <御城主御代々御差出シ書狀控>은 元祿 10년(1697)부터 享保 14년(1729)까지 嵩山村의 差出, 上申書 및 廻狀, 지시서 등의 비망록(控)을 수록한 庄屋史料이다. 원본은 알 수 없으며, 享保 무렵의 사본이다. 朝鮮使節 관계 기사를 摘記하면, 寶永 3년(1706) 戌 3월 및 正德 2년(1712) 辰 11월의 <三州八名郡嵩山村御指出帳>에 “朝鮮人琉球人來朝之節, 吉田ヨリ被仰付次第人足出シ來リ候”, 享保 3년(1718) 戌 10월 <覺>에 “一, 天和貳年中朝鮮人御參向”·“一, 正徳元卯之年中朝鮮人御參向”라는 기록이 있다. 享保 4년(1719) 亥 8월 9일자 <覺>에는 朝鮮人이 來聘할 때 御立往 足輕의 上申書가 있으며, 享保 5년(1720) 子 2월 6일자 <覺>에는 正徳度 朝鮮使節이 통과할 때 役을 부담한 내용이 적혀 있다. 享保 6년(1721) 4월의 <覺>에는 朝鮮使節 來聘에 즈음하여 嵩山村의 부담금이 기록되어 있다.

2. 비고

豊橋市役所 간행. 1964·1965년.

②는 豊橋市 嵩山町 夏目憲二씨 소장.

《長崎縣史》 史料編 第二

1. 내용

長崎縣 관내 諸藩의 근세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對馬藩 관계 사료로는 <御壁書控>, <壁書控上>, <壁書控下>, <八郷御壁書控>이 수록되어 있다. ‘壁書’란 藩에서 하달한 법규·법령의 총칭이다. <御壁書控>에는 寛文 11년(1671)부터 延寶 7년(1679)까지, <壁書控上>에는 延寶 9년(1681)부터 元祿 4년(1691)까지, <壁書控下>에는 元祿 4년부터 동 11년(1698)까지, <八郷御壁書控>에는 寛文 10년(1670)부터 正徳 4년(1714)까지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싸움과 언쟁의 정지, 기독교 禁制 覺書, 他國 商賣에 관한 注意書 등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는 조선으로 渡航할 때의 禁制, 조선무역에 있어서의 禁制, 倭館의 화재에 관한 문제, 倭館 재류 일본인이 함부로 釜山浦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비고

長崎縣史編纂委員會 편찬. 長崎縣 간행. 1964년.

《日光市史》 史料編 中卷

1. 내용

朝鮮通信使가 日光 東照宮 및 大猷院에 參詣했을 때의 사료를 수록하였다. 사료1~사료30까지 함께 30점이 게재되어 있으며, 通信使의 신사참배 행위를 고찰하는데 유용하다.

史料1 <寛永日記> 등의 막부측 사료, 史料2 <金東溟海槎錄聞見雜錄> 등의 使行錄, 史料7 <東照社緣起>와 같은 그림, 史料11 <朝鮮國より東照宮へ奉納の鐘の銘>과 같은 金石文 등 다양한 성질의 사료를 翻刻하였다. 이 책에 게재된 사료에는 抄出한 것이 많다.

2. 비고

日光市史編纂委員會 편찬. 日光市 간행. 1986년.

《日本經濟叢書》 第十三卷·第十六卷·第二十六卷

1. 내용

[第13卷]

對馬藩士 스야마 도쓰안(陶山訥庵, 일명 鈍翁)의 저작집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조선과 관계된 사료를 들면, <口上覺書上卷>, <潛商之儀被仰上書>, <潛商議論>, <對韓雜記>, <竹島文談>이 있다.

<口上覺書上卷>은 正德 2년(1712) 奉行所에 제출한 口上書이다. 領民의 경작, 水利, 木庭作 등 내용이 잡다하지만, 그 중에는 慶長度 朝鮮通信使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도 보인다.

<潛商之儀被仰上書>은 享保 6년(1721)에 작성되었다. 조선에서 인삼을 밀수한 자의 처분에 대하여 藩에서 陶山訥庵에게 확인서가 왔으므로 그 答申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享保 6년의 <潛商議論>은 이 조선 밀수 사건의 처분에 대하여 雨森芳洲, 松浦霞沼, 陶山訥庵의 의견서를 정리한 것이다.

<對韓雜記>는 조선과 對馬 관계의 역사를 국내외의 각종 사료를 인용하면서 해설한 것이다. 조선과의 무역, 조선에서 수입하는 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對馬의 사정 등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다. 후반부에는 <別錄>이 첨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宗家の 역대 當主의 事跡과 조선의 역사, 지역 구분, 官位에 대한 기술이 있다.

<竹島文談>은 竹島에 대한 陶山訥庵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며, 賀島에 보낸 書狀 및 加島에서 온 返書가 附記되어 있다.

[第16卷]

<草茅危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이 정치·경제·사회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저술이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의 질문에 응하여 寬政 원년(1789)에 上모된 것이다. 卷之4에는 <朝鮮ノ事>가 수록되어 있으며, 朝鮮通信使의 실태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쿠잔은 通信使 응접으로 인하여 일본과 조선 모두 재정상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通信使의 간소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第26卷]

對馬·朝鮮에 관한 사료로서 <賀島兵介言上書>, <桂川答問書>가 수록되어 있다.

<賀島兵介言上書>는 對馬藩士 賀島兵介가 藩主에게 제출한 의견서이다. 당시의 藩內에 있어서 경제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藩主에 대하여 善政을 행하도록 요구한 上申書이다. 조선과 對馬의 통교, 무역 등의 실정이 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桂川答問書>도 마찬가지로 對馬藩士 松浦桂川가 기록한 것. 對馬藩의 정치·경제 문제를 16개조로 정리했으며, 제9조·14조·15조에는 조선 교역에 관한 桂川의 의견이 솔직하게 기술되어 있다.

2. 비고

瀧本誠一 편찬. 日本經濟叢書刊行會 간행. 1915년(제26권은 1916년).

《日本經濟叢書》 第4卷에도 陶山訥庵의 저작집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日本經濟大典》 제23권과 菅野和太郎이 편찬한 《中井竹山集》(《近世社會經濟學說大系》)에도 翻刻이 있다.

《日本庶民生活資料集成》 第二十七卷

1. 내용

① 老松堂日本行錄, ② 海東諸國紀, ③ 日本往還日記, ④ 看羊錄, ⑤ 海游錄, ⑥ 朝鮮來聘寶曆物語, ⑦ 使琉球雜錄, ⑧ 中山傳信錄, ⑨ 使琉球記, ⑩ 中尾次政隆翁日誌, ⑪ 李朝實錄抄, ⑫ 喜安日記를 수록하였다.

①에서 ⑥까지가 日朝關係 자료, ⑦부터 ⑫까지는 류큐에 관한 사료이다(⑪은 <李朝實錄>에서 류큐관계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⑤는 享保度の 通信使 來聘에 즈음하여 製述官으로 수행했던 申維翰의 기록이다(상세한 것은 別項 해설 참조).

⑥은 寶曆度 朝鮮通信使 기록을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通信使들의 歸路에 鈴木傳藏가 通信使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당시의 사정도 이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寶曆度 通信使 기록 외에 <韓人來朝の由來>, <朝鮮國方角, 言語, 倚伏, 土産の事>, <中華十五省の分>, <朝鮮國祭の記>도 수록되어 있다.

2. 비고

三一書房 간행. 1981년.

<朝鮮來聘寶曆物語>는 《增補朝鮮信使來朝歸帆官錄》(明石書店 1992)에도 수록되어 있다.

《濱松市史》 史料編二

1. 내용

朝鮮使節 通行時의 浜松·舞坂의 상황, 使節의 동향(崔天宗 살해사건) 등에 관한 사료. 濱松宿古來書留二二, 文化 8年(1811) 朝鮮人來聘之事, 都田村年代手鑑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비고

浜松市役所 간행. 1959년.

《廣島藩·朝鮮通信使來聘記》

1. 내용

① <寬永度朝鮮人來聘記> 1冊, ② <享保度朝鮮人來聘記> 1冊, ③ <延享度朝鮮人來聘記1~6> 6冊, ④ <延享寶曆度朝鮮人來聘記> 1冊, ⑤ <寶曆度朝鮮人來聘記1~3> 3冊, ⑥ <寶曆度朝鮮人來聘記> 3冊, ⑦ <古今聞書朝鮮人來朝記> 1冊의 寫眞版 및 翻刻에 解題를 단 것이 本書이다. 연대는 寬永~寶曆 年間(1624~1763)까지의 기록이다. 모두 吳市入船山記念館이 소장한 手島家文書 중에 포함된 것들이다.

①·②·⑦ 중에 ①·②는 通信使 전반, 특히 幕府의 通信使 응접에 관한 사료이며, ⑦은 正徳度の 기록이다.

나머지 ③~⑥은 히로시마번(廣島藩) 관계 기록이며, 寶曆度の 기록에 관해서는 家老格으로 通信使 접대를 담당했던 年寄 堀勘解由 또는 그의 家來가 覺書 형식으로 적은

일기를 포함하고 있다. 관련 사료에 대하여는 <解題>에 상세하다.

2. 비고

吳市入船山記念館 편찬. 吳市 간행. 1990년.

《福岡縣史》 近世史料編 福岡藩地方(1), 年代記(1)

1. 내용

- ① 福岡藩浦方(1) <朝鮮人來朝立水夫賃錢爲手當軒別壹文切錢帳>은 寬政 3년(1791) 정월에 筑前國 箱崎浦에서 작성한 것이며, 表題 그대로 朝鮮通信使의 통행에 대비하여 뱃사공의 임금을 적립한 장부이다.
- ② 年代記(1) <年代記>(桑野岳幸文書)는 桑野權右衛門 寬敬(1771~1831), 改名 孫四郎이 本木村 庄屋로 在役 중이던 文政 8년(1825)에 同村의 전직 大庄屋 中村傳五郎 督屋(1736~1801)이 晩年에 쓴 編書를 필사한 것이다. 이 책에는 寬延 원년(1748)의 朝鮮使節 來聘, 寶曆 13년(1763) 12월 동 使節의 아이노시마(藍島) 滯舟가 기록되어 있다.

2. 비고

西日本文化協會 편찬. 福岡縣 간행. 1998년.

《福岡藩朝鮮通信使記錄》

1. 내용

黒田家文書(福岡縣立圖書館 소장분)에서 朝鮮通信使 관계 기록이 翻刻되어 있다. 全13卷. 朝鮮通信使는 對馬·壹岐를 경유하여 福岡藩 領内の 아이노시마(相島)에 寄航했고, 그곳에서 아카마가세키(赤間關)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福岡藩은 아이노시마에서 通信使를 접대하는 임무와, 前後의 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책에는 天和 2년(1682) 제7회부터 文化 8년(1811)의 제10회에 이르기까지 藩이 작성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通信使에 대한 福岡藩의 접대 기록을 매우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제1권 <天和二年 朝鮮人來朝記錄 第四>, <正徳元辛卯年 朝鮮人來聘記 卷之二>
- ② 제2권 <天和二 朝鮮人來朝記錄 第一>, <天和二 朝鮮人歸國記錄 第四>, <天和二 官人來歸御浦方記錄>
- ③ 제3권 <天和二 朝鮮人來朝万調物本帳 上第一>, <天和二 朝鮮人來朝万調物諸役人江相渡帳 下第二>, <天和二 朝鮮人歸國万調物本帳 上第一>, <天和二 朝鮮人歸國万調物諸役人江相渡帳 下第二>
- ④ 제4권 <天和二 朝鮮人來朝記錄第二>, <天和二 官人歸國御船手方記錄>, <朝鮮人歸國記錄 第一>, <自正徳 元年辛卯年至同二年壬辰年 江戸向朝鮮人歸國記 卷三>
- ⑤ 제5권 <天和二 朝鮮人來歸所所飾方記錄 第二>, <天和二 官人來歸相鳴定番衆記錄>, <享保四 朝鮮人來聘記 八 問合之部>, <延享五 朝鮮人來聘記 八>
- ⑥ 제6권 <享保四巳亥年 朝鮮人來聘記 三>, <享保巳亥年 朝鮮人來聘記 四>, <享保四巳亥年 朝鮮人來聘記 七>, <享保四巳亥 朝鮮人歸國記>
- ⑦ 제7권 <寬延元戊辰年 朝鮮人來聘記 五>, <寬延元戊辰年 朝鮮人來聘記 六>, <寬延元戊辰年 朝鮮人來聘記 七>, <寬延元戊辰年 朝鮮人來聘記 九>, <正徳元辛卯年 朝鮮人歸國記 卷四>
- ⑧ 제8권 <寶曆十三癸未年 朝鮮人來聘記 五>, <寶曆十三癸未年 朝鮮人來聘記 六上>, <寶曆十三癸未年 朝鮮人來聘記 六下>
- ⑨ 제9권 <天和二年 朝鮮人歸國記錄 第二>, <天和二年 朝鮮人歸國記錄 第三>, <享保四巳亥年 朝鮮人來聘記 一>, <享保四巳亥年 朝鮮人來聘記 五>
- ⑩ 제10권 <享保四巳亥年 朝鮮人來聘記 二>, <享保四巳亥年 朝鮮人來聘記 六>, <寬延元戊辰年 朝鮮人來聘記 一>, <寬延元戊辰年 朝鮮人來聘記 二>
- ⑪ 제11권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 一>,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 二>,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 七>,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 八>,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 九>,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附錄>
- ⑫ 제12권 <享保四巳亥年 朝鮮人歸國記 二>, <寬延元年 朝鮮人來聘記 三>, <寬延元年 朝鮮人來聘記 四>, <官人來朝歸帆之部>

- ⑬ 제13권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 三>, <寶曆十三年 朝鮮人來聘記 四>, <寶曆十三年 朝鮮人歸國記 一>, <寶曆十三年 朝鮮人歸國記 一>, <寶曆十三年 朝鮮人歸國記 二上>, <寶曆十三年 朝鮮人歸國記 二下>, <寶曆十三年 朝鮮人歸國記 於大坂橫死人之一件>

2. 비고

福岡地方史研究會古文書を 읽는 모임 편찬. 福岡地方史研究會 간행. 1993~2000년.

《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

1. 내용

- ① <雨森芳洲外交關係資料集>에는 외교관계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附記된 <解説>을 참조하면서, 이하에 자료명 및 소장처, 자료의 개요를 표시한다.

<斛一件覺書>(雨森芳洲文庫 소장)

이 사료는 對馬藩이 조선에서 받는 歲賜米를 수령할 때 문제가 된 되(斛)의 단위에 관한 覺書이다. 본 사료에서는 되의 환산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섭 과정, 아울러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韓學生員任用帳>(檜垣元吉 소장)

享保 5년(1720)에 성립한 원본과 文化 14년(1817)의 사본을 合冊한 자료. 編者에 의하면, 원래는 宗家文庫에 소장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朝鮮語 通詞 양성제도의 성립 내막, 과정, 내용, 성과 및 호슈의 외교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風俗考>(雨森芳洲文庫 소장)

享保 5년 성립. 朝鮮王朝의 성립 역사와 연혁을 간단하게 기술한 것. 林大學頭(信篤)의 요청에 응하여 호슈가 기록한 것이다.

<享保辛丑年 雨森東五郎朝鮮佐役被差免候節差出候書付>(雨森芳洲文庫 소장)

호슈가 朝鮮方 佐役(조선 왕래에 관한 庶務를 주관하는 役)의 辭任을 신청했을 때의 서류. 사임 배경에는 對馬藩의 拔荷一件에 대한 처분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交隣提醒>(雨森芳洲文庫 소장)

호슈의 외교사상 및 당시 조선 통교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 이 책 속에서 호슈

자신이 “朝鮮과 交接하는 문제는 먼저 人情을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듯이, 내용은 조선의 인정과 政情 등에도 이르고 있다.

<裁判記録>(お茶の水圖書館 소장)

호슈가 裁判(對馬에서 파견한 外交使節) 신분으로 釜山에 와서 외교교섭을 행하던 당시의 기록. 호슈의 주된 역할은 東照宮 제사를 위한 送使 요구와 對馬가 조선에서 받는 歲賜米에 대한 교섭이었다. 총 4冊이며, 年次는 享保 14~15년(1729~1730)에 이른다.

<隣交始末物語 隣交始末物語句解>(雨森芳洲文庫 소장)

文祿·慶長の 役 이후 日朝 國交回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자료.

<詞稽古之者仕立記録>(大韓民國國史編纂委員會 소장)

조선어 通詞 양성에 관한 자료. 말미에 호슈가 稽古通詞들에게 보낸 書簡이 첨부되어 있다.

<信使停止之覺書>(雨森芳洲文庫 소장)

寶曆 3년(1753), 大順院(제27대 藩主 宗義蕃) 때, 朝鮮通信使의 호위 임무가 藩財政을 압박하고, 나아가서 막부의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

- ② <雨森芳洲書翰集>에는 호슈가 발급한 書狀을 編年順으로 수록하였다. 말미에는 <雨森先生之事>라는 제목으로 對馬藩医가 기록한 아메노모리 호슈에 관한 기록을 첨부하였다.

2. 비교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資料集 간행11-3, 雨森芳洲全書 3.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日中文化交流の研究> 歴史班編, 關西大學 간행. 1982년.

<裁判記録> 중에서 本卷에 수록되지 않은 사료는 《續芳洲外交關係資料集》(별항 참조)에 수록하였다.

《米原町史》 資料編

1. 내용

延享 4년(1747), 翌年の 朝鮮通信使 來聘에 수반하여 醒井宿에서의 宿驛 및 助郷의 부담 수, 제공 방법에 관한 기록.

延享 4년 7월, 조선통신사 來聘에 수반하는 宿驛 및 助郷의 부담수, 제공 방법에 관한 기록 등을 수록하였다.

2. 비교

米原町史編纂委員會 편찬. 米原町役場 간행. 1999년.

《山口縣史》史料編 近世1 上, 下

1. 내용

<毛利家四代實錄>은 明應 6년(1497) 모토나리(元就)의 출생부터 元就·다카모토(隆元)·테루모토(輝元)·히데나리(秀就) 4대의 事蹟을 편년체로 기술하고, 慶安 4년(1651) 히데나리의 서거까지 155년간을 정리한 사료이다. 文化 6년(1823)부터 萩藩이 편집을 시작했고, 明治 26년(1893)에 종료하였다. <毛利家三代實錄考證>이란 <毛利家三代實錄>의 史料編으로 편집한 것이다.

①의 朝鮮通信使 관계 기록은 寬永 20년(1643)의 朝鮮通信使를 萩藩이 그 領國內의 馬關·上關에서 접대한 내용, 鞍置馬 조달을 下命받은 내용, 使節의 동향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②에 수록된 것은 元和 3년(1617)의 朝鮮使節 來日에 즈음하여, 使節 접대를 命하면서 宗瑞(毛利輝元)가 益玄(益田玄蕃頭元祥)에게 보낸 8월 6일자 書狀 사본이다.

① 上卷 <毛利家三代實錄考證 百十二>

② 下卷 <毛利家四代實錄 卷卅二>

2. 비교

山口縣 간행. 1999년.

《樂郊紀聞》

1. 내용

對馬人 中川延良(号, 樂郊)가 기록한 《樂郊紀聞》를 翻刻하고 注를 추가한 사료이다. 安政 6년(1859) 무렵에 완성하였다. 全13卷이며, ①에는 1~7卷이, ②에는 8~12卷 및 <鷄肋篇> 1卷이 수록되어 있다. 역대 對馬藩主의 事跡과 對馬의 地誌, 風聞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각권에서 조선관계 기사가 散見된다. 그 중에서도 ②에는 조선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古城이 있다던가, ‘야기(ヤギ)’라는 말이 조선어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등 조선에 관한 풍문을 모아서 기록하였다.

2. 비고

東洋文庫 307·308. 中川延良 著. 鈴木棠三 校注. 平凡社 간행. 1977년.

《隣語大方》

1. 내용

에도시대의 일본어를 草書體로 표시하고, 諺文으로 해석한 책. 18세기 말 성립. 다양한 異本이 존재하며, 본문에는 日朝 쌍방의 학자들이 손을 댄 흔적이 있다. 이 책은 조선인을 위한 일본어 學習帳이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 學習帳이기도 하다. 이 책에 影印된 것은 조선 司譯院을 통하여 출판된 조선판이다.

<交隣須知>(별항 참조)가 단어 중심의 學習帳임에 비하여, 이 책은 문장과 회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차원 높은 텍스트이다. 내용은 <公儀之事>를 비롯한 요령서와 교훈적인 것이다. 그 중에는 書簡文의 견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장도 볼 수 있으므로 실천적인 文例集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었을 것이다.

2. 비고

京都大學國語學國文學研究室 편찬. 京都大學國文學會 간행. 1963년.

底本은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소장본(구 奎章閣本)이며, 影印과 함께 釋文 및 索引이 첨부되어 있다.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 對馬宗家文書 第Ⅲ期》

1. 내용

對馬宗家文書시리즈 第Ⅱ期는 國立國會圖書館에 소장 중인 對馬宗家文書에서 倭館館守日記 359책과 裁判記録 272책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고 別冊을 附記했다. 한국에 있는 倭館의 <館守日記>는 貞享 4년(1687, 館守는 22대 吉田作右衛門)부터 明治 3년(1870, 104대 館守 番高麗造)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교교섭에 임하는 役人이 기록했던 <裁判記録>는 寶永 2년(1705)부터 明治 3년까지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2. 비고

田代和生 감수. ゆまに書房 간행. 2004~2006년.